

중요무형문화재 제14호

# 한산모시짜기







## “중요무형문화재 기록도서”를 발간하며

---

이 책은 중요무형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중요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의 하나로 기획된 것입니다.

무형문화재는 그 대상의 형체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기능과 예능에 의해 전승됩니다. 그런 까닭에 유형의 문화재보다 쉽게 사회적·문화적 환경 변화에 노출되어 변형되거나 급격히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에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1995년도부터 중요무형문화재 개별 종목에 대한 실연 전과정과 역사적 전승양상 등을 사진 및 도면과 함께 수록하여, 지정 당시 보고서의 한계를 뛰어 넘어 보다 학술적으로 보유자의 기·예능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한산모시짜기』는 한산모시의 역사와 재배조건, 모시짜기의 각 과정별 내용, 모시표백, 보유자의 전승현황 전반을 상세히 수록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중요무형문화재 기록도서”가 전통문화유산을 지키고 유지하는 한편 중요무형문화재를 올바르게 전승해 나가는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전통문화의 토대로 자리 매김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04. 7.

국립문화재연구소

# 한 산 모 시 짜 기

I. 모시의 역사 . . . . .	6
1. 한국모시의 역사 . . . . .	6
2. 한산모시의 유래와 제직 특성 . . . . .	24
II. 한산모시의 재배 조건 . . . . .	29
1. 기후 풍토적 환경 . . . . .	29
2. 모시종자 . . . . .	30
3. 모시재배 . . . . .	32
III. 모시짜기 제작과정 . . . . .	37
1. 태모시 만들기 . . . . .	37
2. 모시굿만들기 . . . . .	44
3. 모시날기 . . . . .	56
4. 모시매기 . . . . .	74
5. 모시짜기 . . . . .	97



#### IV. 모시 표백과정 . . . . . 132

##### 1. 표백하기 . . . . . 132

#### V. 한산모시짜기의 전승현황 . . . . . 139

##### 1. 보유자 문정옥 . . . . . 139

##### 2. 보유자 방연옥 . . . . . 150

#### 참고문헌 . . . . . 164

#### 영문요약 . . . . . 167

# I. 모시의 역사

## 1. 한국모시의 역사

### 1) 삼국시대 이전

우리나라 직물의 역사상 마직물은 견직물과 함께 가장 오래 전부터 의료로 사용되어 왔으며 특히 모시는 천연섬유 가운데 우리나라를 알리는 질 좋은 특산물로서 해외로부터 호평을 받아 왔었다. 이는 우리나라가 우수한 모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자연 풍토적 여건을 가지고 있으며 모시를 제직하는 기술면에 있어서도 인근의 중국과 일본, 그리고 동남 아시아 등의 타 지역 모시 생산 국가들에 비해 차별화된 기능과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마직물의 재배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고대 우리나라 저마 직물의 제직에 대한 문헌기록은 『중국정사(正史)조선전』에 나타난 기록이 가장 오래된 사료이다. 그러나 여기에 나타난 마직물에 대한 대부분의 기록들은 마(麻) 또는 포(布)로써 명시되어 있으며 저마로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한 근거로써 「小爾雅」에 “麻紵葛曰布 布通名也”라 되어 있어 포(布)란 용어는 당시 일반적인 천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저마와 대마, 갈포 등을 통용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1)</sup> 우리나라 저마섬유에

1) 민길자·이순미, 「우리나라 織物製織技術에 對한 研究1」, 한국의류학회 한국의류학회지 제8권 2호, 1984, p.44



대한 기록은 통일신라시대에 처음으로 저마(苧麻)라는 명칭이 기록되며, 그 이전의 기록에는 대부분 포(布)나 마(麻)로 명기되어 있다.

〈표 1〉은 『중국정사조선전』에서 발췌한 고대 우리나라 마직물에 관한 기록이다.

〈표 1〉 中國正史朝鮮傳에 나타난 우리나라 고대 마직물 기록

시대	기 록	내 용	출 전
勿吉	婚嫁 婦人服布裙	혼례용 베치마	中國正史朝鮮傳 北史
勿吉	婦人則布裙	부인 베 치마	中國正史朝鮮傳 魏書
夫餘	在國衣尙白, 白布大袂袍, 絳, 履草鞮	베로 된 포	中國正史朝鮮傳 三國志
夫餘	婦人着布面衣	부인 베 면의	中國正史朝鮮傳 晉書
東沃沮	又設得一布衣, 從海中浮出, 其身如中國人衣, 其兩袖長三丈	소매 긴 베옷	中國正史朝鮮傳 三國志
綽婁	夏則裸袒, 以尺布蔽其前後	여름용 베의	中國正史朝鮮傳 後漢書
靺鞨	婦人服布	부인 베옷	中國正史朝鮮傳 隋書
韓	衣布袍	베로 된 포	中國正史朝鮮傳 三國志
韓	布袍草履	베로 된 포	中國正史朝鮮傳 後漢書
馬韓	衣布袍	베로 된 포	中國正史朝鮮傳 晉書
弁辰	亦作廣幅細布	폭넓은 고운베	中國正史朝鮮傳 三國志

표에서 알 수 있듯 우리나라 마직물 재배와 제직의 역사는 부족연맹국가 시대에 이미 한반도 전역을 포함한 북방의 부여, 옥저, 동예에 이르기까지 널리 보급되었고 당시의 마직물은 여름용 의료로써 남녀 외출용 겉옷이나 여자들의 일상복으로 많이 보편화되었으며 제직 기술면에 있어서도 폭이 넓고 섬세한 마직물을 제직하였을 정도로 이미 그 기술이 우수하였다.

고고학적 발굴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의 마사(麻絲) 사용 연대는 선사시대로 훨씬 거슬러 올라간다.<sup>2)</sup> 제직 연대 또한 B.C 6000년에서 B.C 5000년에 해당되는 선사시대 유적지<sup>3)</sup>에서 다량의 가락 바퀴들이 출토<sup>4)</sup>된 점들을 미루어 볼 때 선사시대부터 이미 제직의 역사를 추정해 볼 수 있지만 직기의 유물이 발견된 것은 청동기시대 유적인 함경북도 오동 유적에서 발견된 바디와 B.C 1세기 전후의 것인 신창동 유적에서 베틀의 바디가 처음으로 조사된 바 있다<sup>5)</sup>. 특히 신창동(新昌)유적에서 출토된 바디세트는 세포(細布)를 짜던 직기로서 당시 직기의 폭은 약 40cm 정도로<sup>6)</sup> 현재의 바디 크기와 비교해 볼 때 직기의 폭이 넓은 편에 속하므로 폭 넓은 모시를 짠음을 알 수 있다.

마직물에 대한 고대 우리나라 출토 직물들은 대개 마구나 대구장식을 비롯 한 동경 등에 금속부착 직물의 형태로 많이 남아 있고 대개는 기원 전후를 중심으로 한 유물들이 많이 보인다.<sup>7)</sup> 특히 기원전 325년의 것으로 추정되는 길림 후석산(吉林猴石山)원시유적에서 발견된 청동 칼에 부착된 마포는 천의 폭이 약 50cm에 12승으로 제직되었으며<sup>8)</sup> 문헌기록에서 보이는 폭이 넓은 마포의 제직을 실증적으로 뒷받침 해 준다.

〈표 2〉는 삼국시대 마직물에 대한 기록들이며 당시 마직물은 일반 의복과 조세용 베로 사용되었다. 위서 열전 고구려조의 기록에 길에서 만난 평서민의 옷차림이 마의(麻衣), 납의(納衣: 누비옷), 그리고 부들로 짠 옷을

2) ① 서포항, 공산패총유적 (B.C 3500~2500) : 골침에 마사(麻絲)가 감겨짐

② 길림성 연길현 성성소 유적 (11세기경의 고조선 유적) : 모직물과 마끈이 출토

3) 西浦港 一期層, 山里 下層, 東三洞 一期層, 노산리 유적등

4) 권영숙, 『고대 복식과 직물』, 강좌 한국고대사 제6권 (재)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2002, P. 365

5) 앞의 책, p. 186

6) 고고 유물로 본 『한국고대국가의 형성』, 부산광역시 북천 고분관, 1998, p. 153

7) 권영숙, 앞의 책, 2002, p. 420

8) 민길자·심연옥, 『중국 동북지역에서 출토된 고조선, 부여, 고구려시대의 직물 연구』, 한국복식학회 복식 제22, 1999, p. 66~68

입고 있어 당시 마직물은 평 서민의 실용적인 일상복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세품으로 충당된 마직물은 명주와 같은 다른 의료들이나 곡물류와 함께 지역 특산물로써 화폐가치가 높은 조세품으로 국가에 바쳐졌는데 당시의 조세품은 일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조세품의 종류와 그 해 농사의 길흉여부, 그리고 백성들의 빈부의 정도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거두어 들였음을 알 수 있다.

삼국시대 마직물의 실증적 자료가 되는 유물은 현재까지 의복으로 출토된 예는 없으며 대부분 대(帶)나 금속물의 수작 직물형태로 많이 나타난다. 최근의 보고에 의하면<sup>9)</sup> 5세기경 가야시대 수작직물 중에서 마직물로 밝혀진 것은 모두 48점이며 그 가운데 대마직물이 30점이고 모시가 17점이며 이들은 대부분 끈(組)이나 띠(帶)등에 사용되었다. 대부분 평직의 S자 꼬임을 가졌으며 제직방법이 오늘날과 큰 차이가 없었다.

〈표 2〉 삼국시대 마직물 기록

년대	기록	내용	출전
高句麗	衣布帛及皮	베옷	中國正史朝鮮傳 魏書列傳 高句麗
高句麗	其一人着麻衣, 一人着衲衣, 一人着水皁衣	베옷	中國正史朝鮮傳 魏書列傳 高句麗
高句麗	賦稅則絹布及粟, 隨其所有, 量貧富差等輸之	조세용 베	中國正史朝鮮傳 周書 高(句)麗
百濟	賦稅以布絹絲麻及米等, 量 歲豐儉, 差等輸之	조세용 베	中國正史朝鮮傳 周書 百濟
新羅	多桑麻, 作縑布	베 생산	中國正史朝鮮傳 染書 新羅

9) 박윤미, 「伽倻과 古墳時代の 麻織物の 비교 연구」, 아시아민족조형학회 국제학술회의집, 2003, p. 59

## 2) 통일신라시대

삼국시대까지의 기록에서 마직물이 저마와 대마의 구별없이 포(布) 또는 마포(麻布)로 통용되어 온 것과는 달리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면 처음으로 저마라는 용어가 대마와는 구별되어 기록된다.<sup>10)</sup> 따라서 통일신라시대 이후 우리나라 문헌기록에 나타나는 마포(麻布)는 일반적으로 삼베와 모시를 통칭하는 명칭으로 마(麻)는 삼베를 지칭하며 포(布)는 마포를 비롯한 무명을 포함하는 서민용 의류를 지칭하거나 무명만을 지칭하게 되었다. 하지만 질이 좋은 저마의 경우는 저(紵) 또는 저포(苧布), 세저(細苧), 문저포(紋苧布), 사저(絲苧)등으로 기록되어 모시에 대한 명칭이 독자적으로 그 제직 특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표 3〉 통일신라시대 저마 직물에 대한 문헌 기록

년 대	기 록	내 용	출 전
문무왕 2년 (662)	細布三十匹	唐貢物	「三國史記」卷第六 新羅本紀 第六
문무왕 12년 (672)	四十升布六匹 -三十升布六十匹	唐貢物	「三國史記」卷第七 新羅本紀 第七
흥덕왕 9년 (832)	用麻布二十六升-十五升 布二十八升-十五升	麻布와 布에 대한 규제	「三國史記」卷第三十三 雜志 第二
현안왕 4년 (860)	麻紵	검소한 의복	「三國記」卷第十一 新羅本紀 第十一
경문왕 9년 (869)	三十升紵衫段四十匹	唐貢物	「三國史記」卷第十一 新羅本紀 第十一

10) 三國史記, 卷十一, 新羅本紀



통일신라시대는 국가가 안정되고 생활이 풍부해지자 왕을 비롯한 귀족 계급들의 생활이 사치해 지고 의생활 또한 풍요로워 지게 되자 나라에서는 국가가 관장하는 관영수공업장을 두어 의로 생산을 하였다. 직물을 담당하는 곳으로는 조하방(朝霞房), 염궁(染宮), 금전(錦典), 기전(綺典), 모전(毛典), 피전(皮典), 마전(麻典) 등이 있으며,<sup>11)</sup> 마전에서 다루었던 마직물 중에는 30승, 40승포와 같은 질 좋은 백저포를 제직하였다.

마직물의 질은 승수에 의해서 곱고 섬세한 정도를 나타낸다. 특히 통일신라시대 흥덕왕의 복식금제에 의하면 포(布)에 대한 규제는 신분에 따른 마포의 승수로서 규제하였다. <표 4>의 흥덕왕 복식 금제에 나타난 당시 마직물의 승수에 대한 규제범위는 최고 28승(진골녀)에서 최저 12승(평인남)까지이다. 또한 이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같은 계급에서 여자들의 복식에 대한 승수의 허용범위가 남자들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같은 사실은 마포가 남자들의 옷에서 보다 여자들의 의료로 더 많이 사용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표 4〉 흥덕왕 복식금제에 나타난 승수

성 \ 계급	眞骨	六頭品	五頭品	四頭品	平民
남	用麻布 二十六升	用麻布 十八升	用麻布 十五升	用麻布 十三升	用麻布 十二升
여	用麻布 二十八升	用麻布 二十五升	用麻布 二十升	用麻布 十八升	用麻布 十五升

당시 복식에 대한 마포의 승수 규제가 이같이 최고 28승이므로 중국에 진상품으로 바친 30승, 40승 모시는 왕실에서만 허용되는 극상품의 모시

11) 권영숙, 『우리나라 三國時代복장과 同 時代인 Rome 복장과의 비교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7, p 15

임을 알 수 있다. 모시의 승수는 천의 폭에 따라 섬세함의 정도가 달라지므로 당시의 승수에 대한 섬세함의 정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시의 폭과 승수와와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한다.

승수는 일정한 직물의 폭 안에 들어가는 경사 올의 수에 따라 승수가 정해지는데 1승은 경사 올 80올에 해당된다. 현재의 한산 지역의 모시 짜기를 기준으로 볼 때 최고로 섬세하게 짤 수 있는 모시의 승수는 12승까지이며 일반 모시의 폭은 30~34cm내외이다. 따라서 일정한 모시 폭 안에 들어가는 필요한 경사 올의 수는 80올 곱하기 12승이므로 이와 같은 모시를 짜는 데 필요한 경사 올의 수는 총 960올이 되고 이는 오늘날 드물게 볼 수 있는 최상품의 한산 세모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문왕 9년(869년)에 당의 진상품으로 보낸 삼십승 저삼단과<sup>12)</sup>과 당시 마전(麻典)에서 생산되었던 30승 포와 40승 포는 그 섬세함의 정도가 어떠하였는지를 추측할 수 있다.

직물의 척도에 관한 우리나라 최고의 문헌기록은<sup>13)</sup> 문무왕 6년에 명주한 필의 척수가 80자라고 하는 기록이 있으나 이 기록은 견직물에 해당되는 기록이므로 당시의 모시 척수가 이와 같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당시의 천의 폭에 대한 『漢書』의 기록에 “布帛廣二尺二寸爲幅 長四丈爲匹”<sup>14)</sup>, “一黍之廣度之九十分黃鐘之長一爲一分, 十分爲寸, 十寸爲尺, 十尺爲丈…”<sup>15)</sup>라 되어 있어 당시 중국에서는 천의 폭을 2자 2치로 하여 짚음을 알 수 있고 천 한 필의 길이는 4丈, 곧 40자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자는 10푼이

12) 『三國史記』, 卷十一, 新羅本紀 景文王 9年

13) 신라문무왕 5년에 견포(絹布) 1필이 10심(尋)이었던 것을 길이 7보(步)와 폭2척(尺)으로 고치는 등 척도를 중국식 도량형으로 개혁하였다고 한다. 또한 고대 중국에는 한자보다 긴 길이의 단위로 인(仞), 심(尋), 상(常)이 있으며 각각 4자, 8자, 16자를 말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명주한 필의 자수는 곧 80자되며 이는 오늘날과 같다.

14) 漢書, 卷之二十四, 食貨志第四下

15) 漢書, 卷之二十一, 律歷志第一上

며 1장은 10자이다. 그러나 당시에 사용했던 척도 1자의 길이를 오늘날의 cm로 계산하는데 있어서는 직물을 재는 척도와 건축물을 지을 때의 척도가 다르고 또 해당 시대에 따라 척도기준이 다르므로 직물을 잴 때 사용했던 척도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표 5〉는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의 척도에 관한 연구를 다룬 박성래의 연구<sup>16)</sup> 결과를 바탕으로 당시에 통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척도를 기준으로 당시의 천의 폭을 오늘날의 cm로 환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한산 지역에서 가장 곱게 짤 수 있는 세모시의 승수인 12승 모시와 15승 모시가 당시의 천의 폭으로는 몇 승에 해당되는 모시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당시에 제작 가능한 천의 폭을 알아보고 문헌에 기록된 30승 포와 40승 포의 섬세함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오늘날 모시와 비교해보았다.

〈표 5〉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 척도 및 승수 환산치

척도종류	1척길이 평균(cm)	천의 폭 2자2치기준			천의 폭 2자 기준		
		천의 폭	현포폭 30cm기준		천의 폭	현포폭 30cm기준	
		(cm)	12승(승)	15승(승)	(cm)	12승(승)	15승(승)
전한척	23.0	50.6	20.2	25.3	46.0	18.4	23.0
후한척	23.8	52.4	20.9	26.8	47.6	19.0	23.8
기전척	35.5	78.1	31.2	39.1	71.0	28.4	35.5
고구려척	35.5	78.1	31.2	39.1	71.0	28.4	35.5
10지척	19.5	42.9	17.1	21.5	39.0	15.6	19.5
주척	20.5	45.1	18.0	22.5	41.0	16.4	20.5
백제척	23.3	52.3	20.5	26.2	46.6	18.6	23.5
당척	29.8	65.6	26.2	32.9	59.6	23.8	29.8

16) 박성래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도량형』, 1997, p. 170~171

표에 의하면 현재 한산지역에서 최고로 곱게 짤 수 있다고 하는 모시승수 15승과 흥덕왕의 복식규제에 나타난 최고의 모시승수 28승을 거의 같은 질의 모시로 생각할 때 추측 가능한 천의 폭은 한 척과 백제 척, 당척이 가장 가깝고 당시의 문헌 기록에 나타난 40승 포를 기준으로 볼 때는 고구려척과 기전척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당시의 모시 제직 기술을 오늘날 보다 훨씬 섬세한 모시로 짤 수 있다는 가정아래 한척과 당척, 고구려척을 기준으로 추측 해보면 당시 40승포를 짤 수 있었던 천의 폭범위는 50cm내외와 65~78cm 범위로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천의 폭은 실제로 옷을 짓는데 있어 실용적인 천의 폭이 되며 현재까지 전해 내려오는 복식 유물들을 통해서 볼 때 인체의 치수에 적합한 합리적인 천의 폭으로 생각된다. 현재 학계에서 추정하고 있는 포폭은 기원전 325년의 것으로 추정되는 길림 후석산(吉林猴石山)원시유적에서 발견된 청동 칼에 부착된 마포의 폭이 약 50cm에 12승인 점과 중국 문헌에 의거하여 약 50cm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sup>17)</sup> 당시의 천의 폭과 승수와와의 관계는 더 연구되어야 할 과제라고 본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시대의 모시 제직기술이 현재에 비해 폭이 넓으며 극도의 섬세한 모시를 제직 할 수 있었던 그 기술적인 이유를 찾기 위한 연구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조사보고 된 모시옷 유물 중에 최고로 섬세한 모시 유물은 조선시대 출토복식 중에 14.5승으로 짜여진 남양 홍씨 모시단령과 14세기 후반의 해인사 불복장복식유물인 생모시적삼이 31cm의 폭에 13승포로서 정교한 모시유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예나 지금이나 실제로는 15승 모시의 실물을 찾아보기 어려운 뿐만 아니라 현재는 12승 모시조차 짜기가

17) 민길자, 앞의 책



힘든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당시의 30승포와 40승포와 같은 모시는 현재의 천의 폭보다는 훨씬 광폭으로 짠 모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섬세함의 정도에 있어서도 현재 12승 모시의 섬세함에 비해 약 1.5배 내지 2배 정도의 얇고 섬세한 모시가 아닌가 생각되지만 그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다.

### 3) 고려시대

고려시대 모시 제직기술은 다른 어느 시대에 비해 활성화되었으며 문헌 기록과 실제 유물을 통해서 볼 때 모시는 고려시대 복식의 주요한 의장요소였음을 알 수 있다.

주요문헌으로는『고려사』,『고려사절요』,『고려도경』,『노걸대』,『박통사』,『계림유사』등의 기록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송나라사람 손목이 지은『계림유사』는 당시의 우리말에 대해 한자로 기록한 것으로 우리나라 모시(毛施)의 명칭에 대해 “저왈모(苧曰毛)” “저왈모시배(苧曰毛施背)”로 표기하고 있다. 따라서 고려시대 저마에 대한 명칭은 당시에 이미 모시로 통용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모(毛)란 다만 당시의 우리나라 모시에 대한 발음이 그대로 중국식 한자로서 표현되어진 것에 불과한 것이다.

고려시대 대표적인 모시유물로서는 고려후기 유물인 문수사 불복장 직물과 해인사 불복장 복식유물, 그리고 1302년의 아미타불복장 복식및 직물 등이 있으며 이들을 통해서 본 고려시대 모시 문화의 특성은 아래 세 가지의 측면에서 그 우수성이 돋보인다

첫째, 고려시대 모시 제직 기술은 다른 어느 시대보다도 뛰어난 제직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고려시대 직물의 제직은 크게 관영 수공업, 민간 수공업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수요에 따라 특별한 직물들은 국가가 관장하는 관영 수공업장과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민간 수공업장에서

제작 되었는데 당시에 천을 짜는 곳은 잡직서에서 맡아서 하였고 염색은 도염서에서 맡아서 하였다.<sup>18)</sup>

이같이 국가가 직물산업을 장려한 이유는 당시에 모시와 같은 고급 직물들이 화폐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물물교환이 가능하였으며 동시에 주요한 대외 교역품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백성들은 농사일을 하면서 틈틈이 생업수단으로서 길쌈짜기에 전념하여 나라에 바치는 조세품과 화폐 대용품으로 충당하였는데 그 중에는 전문적인 제작기술과 설비를 갖춘 관영 수공업장에서 전문인에 의한 고급직물들이 제작 되었다. 문헌기록에 의하면 모시에 대한 명칭이 사저포(沙苧布), 화문저포(花紋苧布), 세저포, 백저포, 황저포등 아주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이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고려시대 복식유물 중에는 모시옷으로 된 유물이 특히 많다. 유물에 나타난 모시의 승수는 거의 대부분 9승 이상의 세모시로 된 것이 많고 홍화로 염색이 된 것과 생모시로 된 것 등 기록에서 보이는 다양한 색의 모시옷을 확인할 수 있다.

이같이 다양하고 섬세한 모시옷의 의장미는 당시 인근의 중국복식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어 고려시대 우리나라 모시는 주요한 토산품중의 하나로써 대외 교역품의 대상이 되었다. 중국과의 교역에 충당되었던 모시는 대부분 질이 우수한 모시였으며 당시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거란, 금, 송, 원, 명 등이 주요 교역 대상국이었었는데 이들은 대개 교역품이나 공물(貢物) 또는 회례품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또 한편으로 모시는 왕이 국가 공신들에게 수여하는 하사품으로도 많이 이용되었다.

〈표 6〉에 의하면 고려 초기부터 고려 후기까지 중국과 교역을 한 모시의 명칭이 사저포, 세저포, 백저포, 화문저포, 황저포, 홍저포 등 다양하게 보

18) 고려사, 제77권, 지권, 제31, 백관

〈표 6〉 중국과의 교역모시

대상국	내용		년대	출처
晉	貢物	細苧布一百匹, 細中麻布三百匹 細中麻布一百匹	혜종 2년(945)	高麗史 2
요(거란)	貢物	紗苧布	정종 4년(1038)	高麗史 6
금	交易	紵布	명종 15년(1185)	高麗史 20
	貢物	細紵布五十匹	고종 7년(1220)	高麗史 22
원	貢物	紵布, 細苧布	고종 18년(1231)	高麗史 23
	貢物	紵布八十匹	고종 19년(1232)	高麗史 23
	貢物	紵布	고종 40년(1253)	高麗史 24
	貢物	白苧布 三百匹	원종 4년(1263)	高麗史 25
	貢物	紵布一千四百五十匹	충렬왕 17년(1291)	高麗史 30
	貢物	細苧 八十六匹	충렬왕 20년(1294)	高麗史 31
	貢物	苧布一百匹	충렬왕 21년(1295)	高麗史 31
	貢物	白苧布 一白匹	충렬왕 22년(1296)	高麗史 31
	貢物	細苧布	충숙왕 5년(1318)	高麗史 34
	貢物	苧布	충숙왕 8년(1321)	高麗史 35
	貢物	紋苧布	충숙왕 9년(1322)	高麗史 35
	貢物	紋苧布	충숙왕 10년(1323)	高麗史 35
	貢物	文苧布	충숙왕 16년(1329)	高麗史 35
	貢物	紵布	충목왕 4년(1348)	高麗史 37
	貢物	紵布	공민왕 22년(1373)	高麗史 44
명	貢物	紵布八十一匹, 白黃紅紵布各九匹, 白紵布九匹黃紵布五匹 紅紵布四匹	신우 3년(1377)	高麗史 133
	貢物	百細布 五百匹, 黑細布 五百匹	신우 5년(1379)	高麗史 134
	貢物	白苧布四千三百匹, 黑麻布二萬四千四百匹, 百麻布二萬一千三百匹	신우 10년(1384)	高麗史 135
	貢物	白黃苧布黑麻布各五十匹	공양왕 4년(1392)	高麗史 46

인다. 이같이 다양한 모시의 명칭으로부터 알 수 있는 점은 당시의 모시 제직법이 오늘날과 같은 평직 외에도 사직을 비롯한 화려한 문직으로 제직하였다는 점과 모시의 섬세함의 정도가 비단처럼 가늘고 섬세하게 짤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황색, 홍색, 푸른 색 등으로 다양하게 염색을 해서 입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고려시대의 모시 제직특성과 현존하는 고려시대 모시 옷 유물들의 의장미를 종합해 보면 고려시대 모시 옷의 복식 의장미가 어느 정도로 섬세하고 단아하였는가를 알 수 있다. 또한 각 신분과 옷의 용도에 따라 다양한 연출미를 갖추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고려시대 모시의 섬세한 재질미의 표현으로는 『고려사』혜종조에 “麻苧如雪”이라 하여 모시의 재질감이 눈과 같다고 표현하였으며 서공이 지은 『고려도경』에는 “모시의 희고 깨끗하기가 옥과 같으며 폭이 좁다. 그리고 왕과 신하들이 모두 다 입는다”<sup>19)</sup>라 하였다. 또 『고려사절요』에서는 20승포에 대한 언급과 함께 “이는 실이 너무 가늘어서 매미 날개처럼 투명하게 보이는…”이라고 표현하였다<sup>20)</sup>. 이같이 모시의 재질미에 대한 표현은 눈처럼 옥처럼 그리고 매미 날개처럼 아련하고 맑고 찬 정갈한 이미지로 묘사되고 있다.

둘째, 고려시대는 특히 모시가 왕의 편복에서부터 일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일상복으로 많이 보편화된 의료로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조선여속고』에는 당시에 모시로 지은 옷을 남녀 및 신분의 구별 없이 착용하였음을 언급하고 있으며 여자들은 여름용 장옷과 모시저고리를 황색빛치마 위에 즐겨 입었다고 한다.<sup>21)</sup>

19) 고려도경, 제23권 잡속2, 토산

20) 고려사, 제28권, 열전권 제2, 충렬왕 2년

21) 李能和, 朝鮮女俗考, 第18章 朝鮮女子服裝制度5 高麗女裝



또 「고려사」충렬왕 원년에 “평상시에 왕은 검은 건(烏巾)에 흰 모시포(白苧布)를 입으므로 일반백성과 다름바 없다.”라고 하였고 또 동왕(同王) 원년 6월에 “우리나라는 ---흔히 모시 옷을 입으니-----청컨대 흰 옷 입는 것을 금하여 주십시오”라 하였으며 『고려도경』<sup>22)</sup>에도 “고려는 모시와 삼(麻)을 스스로 심어, 사람들이 많은 벼 옷을 입는다. 제일 좋은 것을 시(紵)라 하는데 깨끗하기가 옥과 같고 폭이 좁다. 그것은 왕과 귀족 그리고 신하가 다 입는다.”라 되어 있어 고려시대 모시옷은 왕으로부터 평·서인에 이르기까지 보편화된 의료로서 폭 넓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고려시대 모시짜기는 나라의 장려정책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되었고 이를 국가의 조세품으로 거두어 들여서 의료로서 뿐 만 아니라 화폐로서의 가치를 지니며 국가 경제기반을 다지는 주요 교역품 중의 하나로 자리하게 된다. 당시 고려시대에 나라에 공물로 바치는 포는 공중포(貢中布: 공물로 바치는 中布) 한 필이 공평포(貢平布) 한필 15척(尺)으로 환산하며 또 공모시(貢苧布)와 공면주(貢縣紬) 1필은 공평포 2필로 환산하였다.<sup>23)</sup>

고려시대에 별공(別貢)으로 바치는 지역 특산물로는 청주(淸州)의 설면, 안동(安東)의 사사(蠶絲), 경산(京山)의 황마포(黃麻布), 해양(海陽: 남해, 광주)의 백저포(白紵布)등으로 기록되어 있어<sup>24)</sup> 고려시대 지역 특산물인 모시는 특히 서해안과 남해를 낀 해안지방을 중심으로 질 좋은 모시를 생산한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에도 역시 신라시대에 이어 길쌈을 장려하기 위한 길쌈놀이의 풍습이 성행하였는데 「고려사」의 기록에 의하면<sup>25)</sup> 국가에서 치르는 연회행

22) 고려도경 제23 권 잡속2, 토산

23) 고려사 제78권, 지권 제32, 예종3년

24) 고려사 제131권, 열전권 제42, 최충헌

25) 고려사 제131권, 열전권, 제44, 寄轍

사에서 사신들과 동, 서로 편을 나누어서 길쌈놀이를 하였으며 저사(苧絲) 한 필을 풀어서 일동이 모두 잡고 등글게 둘러서서 3~4회 빙글빙글 돌면서 노래부르고 춤을 춘 다음 각각 잡고 있던 천을 조각 조각 잘라서 가졌다고 하였다. 이러한 길쌈놀이의 풍습은 비단 저사에 한하지 않고 당시 모시를 비롯한 삼베와 명주 등의 길쌈놀이 또한 각 지역에서 행하여 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 4) 조선시대

조선시대는 이전과는 달리 많은 복식유물들과 문헌자료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모시제직기술과 모시文化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이해를 할 수 있다.

출토복식을 통해서 본 조선시대 우리나라 모시옷의 특성은 모시의 섬세하고 곧은 올이 가지는 재질미에 있다. 모시옷은 주로 선비들의 겉옷 포인 직령, 도포, 심의, 철릭, 장삼 등의 외형이 크며 예의적인 포류에 많이 사용되었다. 이는 모시가 가지는 복식의장미가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선비적인 곧은 성품을 돋보이게 하는 요소에 부합되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조선시대 모시는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외국사신이나 나라의 공신들에게 왕이 내리는 하사품으로 많이 나타난다. 기록에 나타난 옷의 종류들은 대부분 저마겸직포(苧麻兼織布)<sup>26)</sup>, 저포철릭, 백저포 철릭등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특히 포류 중에서도 저포철릭을 많이 하사하였다. 철릭은 심의처럼 상, 하를 연결한 포로써 첩리(帖裏), 천익(天翼)등의 명칭으로 불리우며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하늘로 향해 비상하는 날개 짓의 모습으로 표현되

26) 조선왕조실록, 세종 047 12/02/06(정유)(원전) 3집 223면

조선왕조실록, 세조 046 14/04/21(중술)(원전) 8집 180면

조선왕조실록, 단종 014 03/06/10(갑신)(원전) 7집 41면

는 옷이다. 따라서 조선시대 왕으로부터 특별히 사여된 백제철릭은 질 좋은 모시로 만든 귀한 하사품이었다.

조선시대 모시의 용도는 여름용의 소재로써 모든 종류의 옷에 사용되며 특히 외출용 겉옷과 의례용 포류, 그리고 여자들의 속바지류 등에 주로 많이 보인다. 또한 상복(喪服)과 군복(軍服)에도 사용되었다. 모시옷은 특히 하얗게 표백되고 잘 손질된 정갈한 옷 맵시 때문에 사대부가의 기품을 돋보이

게 하는 고급의료이지만 이같이 표백한 흰색의 모시 외에도 다양한 색으로 염색을 들어서 입기도 하였는데 주로 쪽염과 치자염 그리고 홍화 염색을 많이 하였다.

그리고 쓰다 남은 모시 천 조각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잘 모아서 한 조



사진1. 백제철릭 16세기 고운묘출토, 광주민속박물관



사진2. 홍화 철릭 19세기 말, 오륜대복자수녀원



사진3. 여자 속바지①, 19세기 말, 오륜대복자수녀원



사진4. 여자 속바지②, 19세기 말, 오륜대복자수녀원

각씩 정성들여 이어서 모시조각보를 만들고 이들을 생활용품으로 사용하였다. 우리 선조들의 삶의 지혜로 만들어진 이같은 모시조각보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으로 우수한 조형미를 가지는 섬유예술품 중의 하나로 전승되어 왔다.

조선시대 모시질의 우수성은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모시 승수의 제한



사진5. 모시조각보①, 19세기 말, 오륜대복자수녀원



사진6. 모시조각보②, 19세기 말, 오륜대복자수녀원

과 백색의 금제, 다양한 종류의 모시 교직물 등을 통해서 알 수 있으며 역시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조선시대 모시는 중국 또는 일본과의 교역품, 공물, 조세품 그리고 화폐 가치를 지닌 지역 특산물로서 사용되었고 특히 저포전을 중심으로 그 유통구조가 더욱 활성화되었다.

모시 승수에 대한 규제는 교역대상, 착용 신분, 그리고 옷의 용도에 따라 규제를 달리 하였는데, 교역품에 관한 모시 승수의 규제를 보면 세종 7년<sup>27)</sup> 사신관에서 매매할 때 13새 이상의 저마포를 금하였으며, 중국과의 교역에서는 10새, 11새, 12새 이하 등의 모시 승수를 제한<sup>28)</sup> 하였고 일본과의 교역에서는 8승 이하의 것을 내리도록 한 기록<sup>29)</sup>이 보인다. 대개 일반 교

<sup>27)</sup> 조선왕조실록, 세종 027 07/02/16 (병진) (원전) 2집 654면

<sup>28)</sup> 조선왕조실록, 세종 020 05/04/20 (경오) (원전) 2집 537면

조선왕조실록, 세종 095 24/01/05 (정묘) (원전) 4집 390면

조선왕조실록, 태종 025 13/03/23 (임인) (원전) 1집 667면

조선왕조실록, 태종 035 18/01/15 (병진) (원전) 2집 198면

<sup>29)</sup> 조선왕조실록, 세종 121 30/07/09 (계사) (원전) 5집 78면

역품에 사용된 모시의 승수의 범위는 대개 10승에서 13승 사이의 승수에 해당되는 모시가 교역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신분과 용도에 의한 모시 승수의 규제는 세종 28년 공(工), 상(商), 향리(鄕吏)와 천례(賤隸)에 대한 규제로써 8승 이하의 모시를 사용하도록 규제<sup>30)</sup>하였고 군복에 사용된 모시는 석 새 모시를 쓰게 하였으며 세조8년의 기록<sup>31)</sup>에는 모시를 엮어서 갑옷을 만든 기록이 있으나 그 형체는 알 수가 없다. 또 입(笠), 모(帽)와 몽두의에 사용한 모시는 12승 이하를 쓰도록 규제<sup>32)</sup>하였으며 상복(常服)에 소용되는 모시는 정 5승포를 하사<sup>33)</sup>하였다. 그리고 세종28년에 행전에 사용된 모시 승수는 13승에서 15승까지의 높은 승수로 규제하고 있어서 당시 희고 고운 직령과 도포자락아래 종아리를 단정하게 감싸 여미는 고운모시로 만든 행전의 착장미는 사대부가의 주요 복식 의장미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 모시 승수에 대한 규제와 교역품을 통해서 본 모시의 질은 10승에서 15승까지의 것이 상질의 모시임을 알 수가 있다. 이들을 주로 고급 겉옷인 포와 행전, 그리고 입모와 몽두의 등의 두식에 사용되었으며 일반의류에 사용된 승수는 보통 6, 7승 또는 8, 9승을 사용하였다. 또 품질이 좋지 않은 승수는 5승 이하임을 알 수가 있다.

기록에 의하면 조선시대에 최고로 곱게 짠 모시의 승수는 세종 12년 7월에 직비 80여명에게 명나라에 바칠 15승, 16승 저마 교직물을 짜게 한<sup>34)</sup> 기록이 있고 유물로는 남양홍씨의 14.5승 모시 적삼이 있다. 삼국시대나

30) 조선왕조실록, 세종 112 28/05/25 (임진) (원전) 4집 676면

31) 조선왕조실록, 세조 027 08/02/28 (계사) (원전) 7집 52면

조선왕조실록, 정조 044 20/03/12 (무오) (원전) 46집 636면

32) 조선왕조실록, 세종 095 24/01/05 (정묘) (원전) 4집 390면

33) 조선왕조실록, 태종 014 07/07/24 (을해) (원전) 1집 406면

34) 조선왕조실록, 세종 049 12/07/23 (신유) (원전) 3집 246면

고려시대처럼 광폭모시나 문저포 등의 화려한 모시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모시제직 기술이 고려시대에 비해서 뒤진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모시 척수의 범위는 35척에서 40척이며 교역모시의 경우, 일본 회레품에서는 35척과 45~47척까지 나타나고 중국진상품에는 50척까지 나타나서 각 국가가 요구하는 용도에 따라 척수를 달리하여 교역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모시질의 우수성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제직기술은 모시 교직품이며 교직의 종류로는 저마교직(苧麻交織), 사저교직(絲苧交織), 면저교직(綿紵交織) 등이 있다. 이들은 세모시와 함께 고급 모시제품으로 진상품, 교역품, 하사품 등의 고급모시로 사용되었다.

## 2. 한산모시의 유래와 제직 특성

우리나라 모시 생산지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는 이 곳 한산지역의 모시기원은 어느 시기부터 비롯된 것일까? 옛 부터 구전으로 전해내려 오는 한산 모시의 유래는 삼국시대부터이며, 신라시대 한 노인이 건지산에서 약초를 캐러 올라갔다가 처음으로 모시풀을 발견하여 이를 이 지방에서 재배하여 모시짜기의 시초가 되었다고 한다.<sup>35)</sup> 그러나 한산모시의 명성은 이미 삼한시대 그 이전부터 이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특산품으로 자리를 차지하였을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문헌기록에 당시 이 지역에 해당되는 마한지역에서는 길쌈으로 베를 짜왔으며 이들은 일상복으로 베로 만든 포를 입었다고 한다. 당시에 마한은 지금의 충청남북도 서쪽지역에 위치한 12소국 중

35) 朴明洵, 「韓山모시의 特化戰略에 關한 研究 -舒川郡 住民所得 向上을 中心으로-」, 1986

의 하나로 2세기 이후 백제에 통합되었으며 위치적으로 서해안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 일대일 가능성이 높다.

당시 인근의 변환과 진한 지역에서도 이미 광폭세포를 직조하였고<sup>36)</sup>, 변한포 등이 진상품으로 강대국에 바쳐졌던 기록이 있으므로<sup>37)</sup> 예나 지금이나 타 지역에 비해 우수한 모시질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유리한 자연 환경적 여건을 구비하고 있던 한산지역이 인근 지역과 함께 질 좋은 모시를 생산하였음은 능히 추측할 수 있다.

모시품의 시초지로 구전되어 온 건지산의 정상에서 서해안을 바라보고 서면 우선 장항으로 흘러내리는 금강과 황해가 한눈에 들어오고 군창지로 넓게 펼쳐진 농토가 전개된다. 현재 서천군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의 지세는 바다로부터 불어오는 소금기 담긴 해풍과 풍부한 영양분을 가진 기름진 옥토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 재배되는 모시품은 나즈막한 산들 사이를 막힘 없이 유통하는 골 바람을 타고 성장물이 우수하며 모시가 곧게 재배되어 짚이 좋은 질 좋은 모시 생산을 할 수 있는 지세를 갖추고 있다.

백제시대(B.C 18-A.D 660)는 이지역이 특히 세모시 짜기 지역으로 알려져 왔으며 좋은 지역 특산물로서 모시는 외국과의 교역품이나 진상품으로 바쳐졌다. 건지산의 전설 또한 이 시기를 기점으로 유래되었다는 점은 당시 타 지역에 비해 한산지역이 우수한 모시 생산지로서 고려시대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 명맥을 지켜 왔음을 알 수 있다. 문헌 기록에 의하면 고려시대 한산모시는 그 질이 특히 섬세하여 모시 생산지의 대명사로 알려졌고 신라시대 길쌈놀이와 함께 모시짜기 길쌈놀이도 정착되었음을

36) 三國志, 弁辰條, 亦作廣幅細布

37) 三國志, 魏書東夷傳, 韓條, 弁韓布 1500 疋을 낙랑 투항시에 진상품으로 바침

알 수 있다.<sup>38)</sup> 조선시대 예종조에는 임천, 한산지역의 생저를 토산품 공물로 상정한 바 있어 이 지역이 특히 생저로 유명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sup>39)</sup> 15세기 경에는 한성에 저포전이 만들어지면서 모시의 유통거래가 활성화되었다.<sup>40)</sup> 특히 18~19세기에 이르면 충청도 저산팔읍에서 생산된 모시가 많이 유통되었다고 하는데<sup>41)</sup> 저산팔읍이란 한산, 서천, 비인, 임천, 홍산, 남포, 보령, 정산지역을 말한다. 현재까지 전래되어 내려온 한산모시 짜기 길쌈놀이 이는 이 저산팔읍을 중심으로 지역공동체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길쌈놀이를 통한 모시짜기 정신문화를 바로 계승함으로써 이 지역의 우수한 모시짜기 문화를 고수하여 그 맥을 이어 오고 있다.

이상과 같이 타지역 모시와 구별되는 한산지역의 모시짜기 특성은 토양과 기후, 지세를 바탕으로 생산된 모시품의 질과 제직 기술면에서 아래와 같은

다섯가지 측면에서 그 우수성을 간추려 볼 수 있다.



지도1. 저산팔읍

① 세저포(細苧布): 머리 카락보다도 곱게 짜여진 모시로 삼국시대는 30~40승까지 제직되었으며 고려시대는 20승포, 조선시대는 15승포까지 높은 승수가 보

38) 擇里志, 복거총편

39) 조선왕조실록, 예종 006 01/06/29(신사) 원전) 8집 333면

40) 홍희유, 앞의 책, 1989, p.130

41) 홍희유, 앞의 책 1989, p.364



인다. 모시의 승수는 천의 폭이 넓으면 승수가 높아지므로 당시 천의 폭을 알지 못하면 모시의 섬세함의 정도를 추측하기 어렵다. 하지만 기록에 나타난 “마저여설(麻苧如雪)”, “발이내포(鉢伊內布)”<sup>42)</sup> 등의 표현으로 보아 오늘날 보다는 훨씬 가늘고 고운 모시를 제직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이 지역의 모시짜기를 하는 여인들은 대개 세저를 짜는 사람과, 중저를 짜는 사람들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세저에 익숙한 사람은 중저를 짜는 데 익숙하지 않고 중저를 짜는 사람들은 세저를 잘 짜지 못한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옛 부터 세모시를 짜는 기술은 지역 내에서 서로 분화하여 생산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현재는 한산 지역 내에 세모시 짜기로 알려져 있는 지역은 화양면을 중심으로 세모시가 생산된다. 오늘날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한산모시의 포폭은 대개 29~36cm이며 보통 최고로 곱게 짤 수 있는 것이 12승 모시이다.

② 광폭세포(廣幅細布): 폭을 넓게 해서 짜서 만든 모시로 삼국시대 문헌 기록에 나타나며 당시 예측되는 천의 폭의 범위는 50cm 내외, 또는 60~78cm 내외로 추측된다.

광폭의 모시는 고려시대 모시이며 현재 한산지역에서는 62cm까지 제직하고 있다.

③ 문저포(紋苧布): 고려시대 문헌기록에는 나타나나 현재까지 유물이 없으므로 그 제직법을 잘 알 수는 없으나 고려 후기 직물 중에 화문(花紋)으로 된 생초 직물처럼 사직과 평직으로 교차된 형태로 제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42) 李如星, 「朝鮮女俗考」 모시 한 필이 스님의 발루에 들어 갈 만큼 가늘게 짠 모시

④ 사저포(紗紵布): 사직(紗織)으로 짠 고급모시<sup>43)</sup>로 생각되며 중국의 공물로 보낸 물품 중에 사저포(紗紵布) 공평포(貢平布) 등이 있었으며 당시 사직으로 짠 견직물처럼 동일한 기법으로 제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⑤ 저포교직(紵布交織): 저마교직(苧麻交織), 사저교직(絲苧交織), 면저교직(綿紵交織) 등 모든 다른 천연섬유와 교직을 행하여 왔다. 일반적으로 사저교직은 경사울을 견사로 짜고 위사울을 저사로 짚으며 면저교직은 “춘사”라 하며 주로 경사울을 면사로 하고 위사울에 저사를 넣어서 짚다.

43) 고려사, 제6권 세가권, 제6, 정종 4년

## Ⅱ. 한산모시의 재배 조건

### 1. 기후 풍토적 환경

모시재배의 주요조건은 온도와 습도 등의 기후환경과 모시를 재배하는 토양과 산세, 그리고 서리와 바람, 강수량 등의 풍토환경이 질 좋은 모시 생산의 조건이 된다.

일반적으로 모시는 열대지방에서 잘 자라며 모시를 재배하는 지역은 온대북부지방에까지 이르고 대개 습기가 많고 겨울의 냉해에 잘 견딜 수 있는 지역이 모시 재배지로서 적당하다.

모시재배에 적절한 온도의 범위는 연 평균 10.5~12℃ 이며 이 곳 서천 지방의 경우 평균기온은 12.6℃ 정도이다. 모시뿌리는 지하온도 -3~5℃ 가 되면 흡지의 50%내외가 얼어죽게 되므로 최저기온이 영하 10℃ 이하로 내려가는 지방에서는 겨울철의 기온으로 인한 냉해를 입게 되어 모시재배가 어렵다. 따라서 고대부터 우리나라 모시는 주로 충청도 서남부 지역이나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재배해 왔고 서울 경기 등의 서북지역 이후로는 드물게 재배해 왔다. 특히 한산을 중심으로 한 서천지역은 차령산맥 남단에 위치하며 금강의 강줄기가 서해로 빠져드는 길목에 있어 바다에서 불어오는 해풍과 나즈막한 산세들은 모시재배에 적합한 통풍을 좋게 하는 지역적 여건을 잘 갖추고 있어서 예로부터 우수한 모시를 재배하기에 적당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저마의 줄기와 잎은 서리에 약하고, 줄기는 바람에 부러지기 쉬우므로 늦서리가 빠르고 첫서리가 늦은 지방에서 잘 성장한다.<sup>44)</sup> 모시 재배지는 풍해를 잘 받지 않고 일조량이 좋은 곳을 택해서 재배해야 하는데 적합한 토양은 표토가 깊고 배수가 좋은 황토나 사질황토에서 잘 자라고 산성이 강한 토양과 칼리, 석회 등이 부족한 토양에서는 잘 자라지 않는다. 모시 재배에 알맞은 토양의 산도는 대개 pH 5.5~7.0량이며<sup>45)</sup> 모시 질을 좋게 하는 토양은 모래땅에 배수가 잘 되는 곳으로 인분을 준 토양은 모시의 째를 좋게 하고 반 음지에서 자란 것은 키가 크고 곧다.

## 2. 모시종자

모시풀은 쇠기과에 속하는 속근초로서 땅속줄기인 흡지를 많이 가지며 줄기의 길이는 1.5~2.0m 정도에 굵기는 약 1.2~1.5cm이다. 매년 3~4회 수확하는데 모시를 심은 후 3~5년에 이르면 수확량이 점점 떨어지게 되고 약 10년 정도가 되면 수확량이 많이 감해져서 좋지 않다고 한다.

꽃은 여름과 가을 사이에 담녹색 꽃이 피는데 상부에 암꽃이 피고 하부에 수꽃이 피는 자웅동주<sup>46)</sup> 식물이다. 성숙하면 품종에 따라서 갈색 또는 붉은 빛을 띄게 되고 잔털이 밀생하며 물관부는 흰빛이며 성숙된 모시풀은 섬유가 되는 껍질부위가 물관부로부터 쉽게 분리된다. 잎은 깃잎과 비슷하게 생겼으며 녹색의 하트형이다.<sup>47)</sup>

44) 韓相億, 「韓山苧布에 關한 地理學的 研究」, 高麗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 1981

45) 「저마재배」, 서천군농촌지도소, 1994, p. 10

46) 「저마 재배전문기술교본」, 서천군농촌지도소, 1991, p. 4

47) 朴明洵, 「韓山모시의 特化戰略에 關한 研究」, 1986, p. 15~16



사진7. 모시풀의 앞모습



사진8. 모시풀의 뒷모습

모시의 품종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며<sup>48)</sup> 종류는 크게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일본, 대만 등지의 온대지방에서 성장하는 백엽종과 마닐라, 인도 등의 열대지방에서 성장하는 녹엽종으로 나뉜다. 백엽종은 잎의 뒷면이 은백색의 짧은털이 융털처럼 깔려 있고 녹엽종은 잎의 뒷면이 털이 없고 녹색인 것이 특징이다.<sup>49)</sup>

우리나라 모시의 품종은 크게 토종모시인 조선모시와 개량종인 청재모시의 두 종류가 있다. 현재 한산지역에서 재배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모시는 청재인데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에 들어 온것이다. 이는 조선모시에 비해 연하고 째미 좋으며 수확량이 많아서 현재 일반화되었다. 현재 토종모시인 조선모시는 대부분 야생으로 자생하고 있으며 이 종은 키가 작고 티가 많아서 사람들의 관심밖에 있지만 모시의 질적인 면에서는 청재에 비해 우수하다고 한다.

48) 앞의 책, p. 16

① 일본산 : 품질과 수량이 중간정도 임  
② 중국산 : 만숙(晩熟)이며 분열이 왕성한 수량이 많으나 질이 좋지 않다.  
③ 대만종 : 백피종, 청심종, 홍심종이 있고 수량은 많으나 추위에 약함  
④ 조선종 : 조숙(早熟)종이며 질이 양호하고 추위에 강함

49) 韓相億, 앞의 책, p. 7

〈표 7〉 조선모시와 개량모시의 비교

내용\종류	조선종(개모시)	개량종(청재)
형태	씨가 없고 대가 가늘다	앞이 크고 대가 굵다
성질	키가작고 검은티(사미)	키가크고 빨리자람
짚	가늘고 질김	길고 연함
수확량	적음	많음
섬유의질	굵고 우수함	모시가 굵음

### 3. 모시재배

#### 1) 심기

모시를 번식시키는 방법은 크게 씨를 뿌려서 번식시키는 실생번식(종자 번식)과 뿌리를 나누거나 가지를 삽목시켜 번식시키는 영양번식<sup>50)</sup>의 두 종류가 있다. 실생번식은 대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할 경우에 사용하며 일반적으로는 영양번식의 일종인 흡지번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흡지 번식은 가장 간편하고 뿌리가 잘 내리므로 현재 한산지역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흡지의 채취는 4월 상순이나 중순경에 하되 심은 지 3~4년쯤 되면 흡지가 잘 뻗은 모시밭에서 그루를 캐어낸다. 지름이 1cm내외가 되는 흡지는 길이를 12cm로 자르고 굵은 것은 9cm정도,

50) 박명순, 앞의 책, 1986, p. 19~22

흡지번식- 재식 3~4년째의 모시 풀밭에서 봄에 새싹이 나오기 전에 흡지를 파내어 흡지를 잘라 심는 방법  
 세절흡지번식- 많은 모종 생산시 4.5~6.0cm 짧게 잘라 묘상에 사방 7~8cm 간격으로 심어 이듬해 봄에 모종으로 씌. 우량한 신품종 개발에 사용  
 격꽃이- 6월 중하순경 줄기를 잘라서 심수  
 묻어떼기(取木法)- 5~6월에 줄기를 땅에 묻은 후 마디에서 뿌리를 내림

가는 것은 15~18cm로 잘라서 옮겨 심는다.<sup>51)</sup>

모시풀의 뿌리를 옮겨심기 전에 모시밭은 미리 깊이 갈아서 잡초뿌리를 제거해야 하고 퇴비, 낙엽 등을 갈아 얹어 토양을 부드럽게 한 뒤에 옮겨 심는다. 뿌리를 옮겨 심을 때는 짚을 거두어 내고 골을 파서 캐어 둔 모시 뿌리를 심되 간격을 약 1m정도로 하여 심는다.

대개 양달에서 자란 모시뿌리는 3월 하순경이 되면 벌써 4~5cm정도로 순이 나오지만 음달의 모시가 질이 더 좋다고 한다. 모시 뿌리는 횡수가 오래된 것일수록 늦게 싹이 튼다. 모시의 거름은 두엄을 한번, 비료를 세 번 주되 초수와 이수를 한 뒤에 주는데 비료로는 흡수율이 높은 질소와 칼리, 그 외 석회, 인산, 요소 등을 충분히 주어야 하며 적정한 시기에 비료와 퇴비를 많이 주어야 질 좋은 모시를 얻을 수 있다.

모시풀의 병충해로는 흰날개무늬병과 모시나방에 의한 충해가 있다. 흰날개무늬병은 토양이나 흙지를 통해 발병하는데 이 병에 걸리면 모시풀은 잎이 황변하고 줄기의 끝이 늘어지며 백색의 균사가 밀생하게 된다. 방제법으로는 메르클론이나 우스폴론 1,000배액에 1시간 정도 담가서 소독하고 모시밭의 배수에 유의해야 하며 발병하면 그루를 캐내고 주위의 흙을



사진9. 모시뿌리

파내어 소각시키고 포르말린으로 소독해 준다. 그리고 모시나방에 의한 해는 나방이 잎을 갉아 먹어서 생기는 충해인데 특히 9월~10월

51) 韓相億, 『韓山芋布에 관한 地理學의 研究』,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p. 9

에 피해가 심하다. 방제법으로는 비산연을 물 18ℓ당 75~110g DDT, BHC 등의 살충제를 뿌려서 해를 막아준다.<sup>52)</sup>

## 2) 베기

### (1) 베기 도구

〈표 8〉 모시베기 도구

명 칭		내용	타 지역어
표준어 (지역어)	크기(cm) L/W/H		
모시낫	약 30 50	모시풀을 베는 도구, 일반 낫	낫 작두
지게	-	모시풀을 베어낸 뒤 나르기 위한 도구	

### (2) 베기 과정

모시 수확은 무엇보다도 제 시기에 수확하여야 꺾이 좋으며 시기를 놓치면 너무 세어지게 되어 근수는 많이 나가지만 엽맥에서 곁가지가 발생되고 줄기 내의 수분이 감소되므로 인피가 질리게 되어 수확 후에 목질부와 껍질부를 벗겨내기 어렵다. 또한 쉽게 섬유가 끊어지기 쉬우므로 모시섬유의 색깔과 광택이 좋지 않다고 한다.<sup>53)</sup>

모시 수확의 시기는 모시풀의 키가 약 2m 남짓 자라 오르고 줄기 밑둥이 황갈색으로 변하며 아래쪽의 잎이 시들어 말라 질 때가 가장 적당하며 연

52) 朴明洵 앞의 책, 1986, p. 22

53) 「저마 재배전문기술교본」, 서천군농촌지도소, 1991, p. 20



3~4회 모시를 수확한다. 이전에는 전라남도 지방이 삼수를 한 데 비해 이곳 한산지역은 사수까지 행했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거의 삼수까지만 수확하고 있다. 초수는 대개 5월말~6월초에 하며 첫 수확기를 너무 일찍 잡게 되면 섬유는 부드럽고 색택이 좋아 품질은 좋으나 섬유의 강인성이 약하고 수량도 떨어진다. 초수(初收) 이후에 베어 낸 자리에서 모시풀이 또 자라 오르게 되면 이수(二收)를 하게 되는데 시기는 대개 7월 하순경부터 시작하여 8월 중순경까지도 한다. 이 시기에 수확한 모시는 째기(째)가 좋으며 모시질도 다른 수확기에 비해 가장 좋다. 그러나 이 시기에 자칫 태풍을 만나 모시가 넘어져서 빨간 점이 생기게 되면 모시풀이 해를 입게 되므로 특별히 태풍이나 강한 바람에 의한 피해에 유의해야 한다. 삼수는 대개 9월 상순에서 10월초에 하게 되며 서리가 오기 전에 덮어서 보관해야 다음 해를 잘 견딜 수 있다. 간혹 비닐하우스를 이용하여 10월말에 한번 더 모시 베기를 하기도 하지만 찬바람이 불면 모시가 잘 자라지 않기 때문에 잘 행하지 않는다. 이같이 모시 수확은 약 2개월 간격으로 초수, 이수, 삼수를 행하여 봄부터 가을까지 수확하는데 이수가 가장 모시 질이 좋으며 초수는 뻣뻣하고 삼수는 연하다고 한다.

모시풀을 베는 것은 주로 남자들이 하며 여자들은 베어 온 모시풀의 껍질을 벗기는 과정부터 짜기까지의 과정을 한다. 모시를 벨 때는 주로 이른 아침, 이슬이 모시풀에 잘 젖어 있을 때 행한다. 이는 모시를 베고 인피 껍질을 벗기는 과정에서 모시풀이 충분한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야만 모시껍질이 잘 분리되고, 벗기는 과정에서도 인피에 손상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오전 햇볕에 서서히 잘 말리는 것도 질이 좋은 태모시를 만드는 조건이 된다.

모시풀을 벨 때는 밑둥치를 조금만 남겨두고 아래쪽에 모시칼을 수직으로 대고 바싹 잘라 주어야 다음의 수확이 좋다.

베어 낸 모시풀은 왼손으로 줄기를 거꾸로 잡아 쥐고 오른 손으로 잎을



사진0. 모시풀을 수직으로 자르는 모습



사진1. 밀둥치쪽을 한 방향으로 모아 가지런히 한 모습

때 내되 위에서 아래쪽으로 훑어 내린다. 간혹 일손이 모자라거나 앞이 무성할 경우에는 모시풀을 베기 전에 심겨진 상태에서 긴 대나무 막대기 등으로 앞을 대충 아래로 쳐서 훑어 내리기도 하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인피가 상하므로 좋은 섬유를 얻기가 어렵다.

앞을 떼어 낸 모기 줄기들은 모시 밀둥치 쪽

이 굵기 때문에 굵은 쪽이 모시머리가 되게 하여 굵기와 길이, 품질이 좋은 것과 나쁜 것<sup>54)</sup> 등으로 분류하여 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한 다음 직경 약 30cm 크기의 다발로 묶어서 지게에 지고 껍질 벗기는 곳으로 옮긴다.

### 3) 겨울나기

삼수까지 수확하고 난 모시풀은 한겨울을 잘 견디기 위하여 낙엽이나 짚, 왕겨 등을 두껍게 잘 덮어서 겨울을 견디게 하는데 어떤 집들은 비닐 하우스를 지어 겨울나기를 하기도 한다.

54) 병충해 및 풍해 등에 손상된 줄기

### Ⅲ. 모시짜기 제작과정

#### 1. 태모시 만들기

##### 1) 도구 및 명칭

〈표 9〉 모시껍질 벗기는 도구

명 칭		내용	타 지역어
표준어 (지역어)	크기(cm) L/W/H		
모시칼 (삼칼)	8×6.5	모시껍질을 벗기는 도구 ㉠자 형태로 생겼으며 칼날이 위에 있고 크기는 손안에 들어 갈 정도로 작다.	대칼



사진2. 모시칼

## 2) 제작과정

태모시를 만드는 과정은 베어 낸 모시풀을 가져다가 속대로부터 껍질을 벗겨 낸 후, 겉껍질로부터 속껍질인 인피를 분리해 내는 과정과 분리해 낸 모시섬유를 모시머리 쪽을 모아서 묶음으로 엮은 뒤 햇볕에 널어서 말리는 과정으로 나뉜다.

### (1) 껍질 벗기기

베어낸 모시줄기들은 가능한 빨리 속대로부터 껍질을 벗겨 내는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속대인 목질부와 인피부를 분리해 내는 방법은 손으로 분리해 내는 방법과 기계를 이용해서 벗겨내는 방법이 있으며 전통식은 반드시 손으로 벗겨야 한다. 기계를 이용할 경우에는 하루에 보통 30~150kg을 가공할 수 있지만 손으로 할 경우에는 하루에 2~4kg밖에 가공하지 못한다고 한다.<sup>55)</sup>

껍질을 벗기는 과정은 모시풀이 충분히 물기를 보유하고 있을 때에 빠른 시간 내에 작업을 마쳐야 하며 보통은 새벽에 모시를 베고 해가 많이 올라 오기 전에 껍질 벗기기를 마치면 좋다.

모시칼로 껍질을 벗기는 도중 끊어지는 부분이 없이 한번에 쉽게 길게 벗겨지는 것이 질이 좋은 모시이며 반대로 건조해서 껍질 벗기기가 어려운 것은 겉껍질에 붙어 있는 교질이 속껍질에 붙게 되므로 품질이 떨어진다고 한다.<sup>56)</sup>

모시는 삼처럼 삼곳에 넣어 찌지 않고 날로 벗기며 모시껍질을 벗기는데 필요한 모시칼은 옛날에는 대를 얇게 하여 만든 대칼을 사용하였으나 요즈

55) 朴明洵, 『韓山모시의 特化戰略에 關한 研究 -舒川郡 住民所得 向上을 中心으로-, 1986, p. 24~2

56) 앞의 책 p. 26

음은 쇠칼을 이용하여 벗긴다. 모시낫과 같이 ㄱ자 형태로 생겼으나 크기가 손아귀에 들어올 정도로 작고 칼의 날이 위쪽에 있는 점이 일반 낫의 구조와 다르다. 즉 손잡이를 쥐었을 때 검지 손가락이 닿는 부위는 아래쪽은 두꺼우며 무디고 모시마디가 닿는 위쪽이 예리한 날이 된다.



사진3 모시칼을 쥐는 모습

모시 껍질을 벗길 때는 수분이 마르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만약 물기가 말랐을 때는 물을 곁에 두고 추겨가면서 벗겨야만 한 번에 쉽게 잘 벗겨져서 질이 좋은 모시를 얻을 수 있다.

## ① 속대 벗기기

### i) 마디 꺾기

모시줄기의 아래쪽 마디에 모시 칼날은 위로하여 대고 모시마디를 부러뜨린 후 목질부인 속대와 껍질을 분리시킨다.

### ii) 껍질 벗기기

분리된 속대와 모시껍질 사이에 손가락을 넣어 껍질을 벗겨낸다.



사진4 마디 꺾기



사진5 껍질 벗기기

### iii) 속껍질 분리하기

분리된 모시껍질은 겉껍질과 속껍질로 되어 있으므로 섬유가 되는 속껍질을 겉껍질과 분리하는 작업이다. 오른손에 모시칼을 쥐고 속껍질 아래쪽에 모시칼날을 댄 뒤 아래쪽으로 힘을 주어 마디를 꺾으면 위쪽의 겉껍질이 툭하고 부러져서 속껍질과 분리가 된다.

두 껍질 사이에 손가락을 넣고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힘을 주어 훑어 내리면 속껍질인 인피가 분리되어 나온다. 약간의 녹색 빛을 띤 희고 투명한 부드러운 인피 섬유는 향기가 상쾌하고 맑다. 너비는 약 1.5cm 내외이며 길이는 대개 1~2m정도에 이른다.



사진6. 겉껍질이 부러진 상태



사진7. 속껍질인 인피를 벗겨내는 과정

### iv) 베비(패비) 묶기

벗겨낸 인피는 태모시라 하며 모시머리 쪽을 잘 다듬어서 머리 쪽이 한 방향이 되도록 한 움큼씩 손에 쥐고 한 베비씩 묶은 뒤에 흐르는 물에 하루쯤 담구어 두었다가 햇볕에 널어 말린다. 이것은 칼에서 묻어 난 철분과 불순물들을 제거하여 섬유가 갈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현재는 물에 담구지 않고 바로 한 베비씩<sup>57)</sup> 엮어서 양지바르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말린다.

<sup>57)</sup>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으로 링을 만들어 쥐었을 때의 양, 직경 약 1.5~2cm 정도.

## (2) 말리기



사진8. 한베비씩 묶은상태

벗겨 낸 속껍질을 한 베비(패비)씩 엮는 요령은 모시머리 쪽의 꼭지상부를 약 10cm정도 잡아 쥐고 몇 번을 비벼서 끈 뒤에 아래쪽에 붙어있는 가는 인피껍질을 가지고 모시머리를 갖추려서 묶어 준 뒤 햇볕바래기를 한다. 바래기의 종류는 햇볕바래와 물바래 두 종류가 있으며 현재는 거의 햇볕에 바래는 방법을 행하고 있다.

옛날에 물바래는 흘리가는 냇물에서 하였으며 2일 정도 백색이 나도록 물에서 탈색을 시켜 바

래기를 하였다고 하며<sup>58)</sup> 햇볕바래는 대개 일주일 정도 햇볕에 바래는데 물가에서 짚을 깔고 모시를 널어서 콩나물에 물을 주듯 하여 바래거나 줄에 널어서 말린다. 그러나 현대에는 거의 대부분 햇빛이 좋은 날을 택해 바람이 잘 통하는 모시 밭이나 마당에 줄이나 대나무를 걸치고 그 위에서 말린다. 그리고 가능한 이른 아침 은은한 햇빛에서 말리는 것이 모시 질을 좋게 한다고 하였다.

또한 태모시는 언제 삼는가(실잇기)에 따라서 말리는 일정을 달리 하였는데 태모시를 만든 후 금방 삼지 않고 일정 기간동안 보관해 두었다가 쓸 때는 하루 정도만 말려서 잘 보관해 두었다가 필요시 사용한다. 태모시를

58) 韓相億, 「韓山苧布에 關한 地理學的 연구」, 高麗大學校 敎育大學院, 碩士, 1981, p. 32

잘 보관하기 위해서는 우선 두꺼운 종이에 싸서 비닐로 봉한 뒤 다시 검은 보로 싸서 바람이 잘 통하고 습기가 차지 않은 방에서 잘 보관해야 하며 이 경우 태모시의 색은 파르스름하게 그대로 유지된다. 금방 쓸 때는 매일 아침 약 2시간 정도 물에 담구어 두었다가 하루 종일을 말리거나 아침 일찍 이슬을 맞혀서 수분이 고르게 스며들게 하여 말렸으며 약 1주일간 햇볕 아래를 하었는데 너무 오래 말리면 짝이 좋지 않다고 한다.

시간 경과에 따른 태모시의 색 변화는 처음에는 옅은 녹색 빛 상태에서 4, 5일 경과하면 점차 연한 갈색을 띄게 되고 점점 시간이 경과할수록 희게 바래져서 모시의 원사인 태모시가 된다.

대체로 햇볕에 골고루 잘 말려진 태모시는 희고 맑기가 균일하며 광택이 있으나 잘 말리지 못한 경우는 검은 티가 길게 생기거나 색이 고르지 못해서 상품 가치가 없다.

태모시는 아주 강인한 섬유질이므로 내구성과 내수성, 염색성이 좋고 습기를 잘 흡수하므로 의복의 용도 외에도 모기장실, 어망사, 커튼지, 수건, 루우프, 화폐용지 등에도 많이 사용되었다.<sup>59)</sup>

59) 韓相億, 앞의 책, p. 26





사진9 햇볕에 바래기

## 2. 모시굿 만들기 (모시 짚기와 삼기)

### 1) 도구 및 명칭

〈표 10〉 모시굿 도구

명칭		내 용	타 지역어
표준어 (지역어)	크기(cm) L/W/H		
버팀목 (편지)	받침대: 22×13×6 높이: 44	왕대나무를 약 60cm 길이로 잘라서 한쪽 끝을 나무토막 정도의 나무받침대 중앙에 홈을 파서 고정하고 대나무 위쪽은 두 개의 가락을 내거나 안쪽으로 홈을 파서 모시실을 걸 수 있도록 한 도구	편지
모시톱	7×14	모시를 다 짚 후 모시머리를 고르게 훑어서 끝을 가늘게 쪼개는 도구	모시대패
모시톱반	(30-32) ×(22-25)	모시 톱으로 모시머리를 잘게 쪼개기 위해 얹는 나무도마	-
물 투가리	직경:약 20	모시짜기를 할 때 수분을 충분히 먹이기 위해 태모시를 담구어 두는 물 그릇	-
체 혹은 광주리	직경:약 30~40	모시굿을 담는 도구	어레미
모시빗	4-5×12-15	톱반 위에서 모시 톱으로 모시머리를 손질한 뒤 빗어주는 나무빗	

### 2) 제작과정

모시 짚기와 삼기(실잇기)과정은 질 좋은 모시를 생산하는 주요과정으로 태모시를 얼마나 가늘고 섬세하게 잘 짚고 삼는가에 따라서 우수한 모시가



사진20. 버팀목(편자)①



사진21. 버팀목(편자)②



사진22. 모시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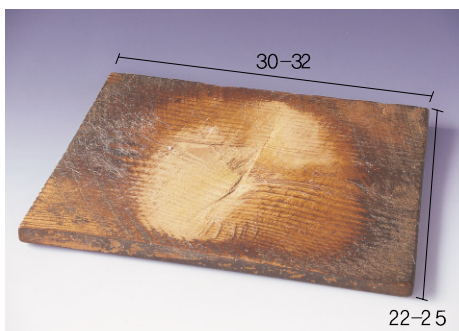


사진23. 모시톱반

생산된다. 때문에 이 과정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부분인데 특히 모시를 앞니로 잘 굽어서 짜는 요령과 짜는 사람의 침 성분 등 사람의 신체적 조건이 모시 질을 좌우하는 척도가 된다는 점도 흥미롭다.

모시를 짜거나 삼는 일은 계절에 관계없이 일년 내내 할 수 있는 아낙네들의 부업이다. 왜냐하면 모시 짜기가 6월경부터 시작하여 한여름에 주로

짜는 것과는 달리 봄부터 여름에 걸쳐 초가을까지 일년에 3번의 수확기를 거치면서 짜거나 삼는 일은 계속되고 수확한 태모시를 말려서 잘 보관시켜 두었다가 한겨울에도 방안에서 소일거리로 이러한 모시굿<sup>60)</sup>을 만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즈음의 젊은이들은 이같이 중요한 모시 짜기 기술을 전승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옛날처럼 15승포와 같은 질 좋은 모시를 구경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 (1) 태모시 물에 적시기



사진24. 물투가리에 담겨 있는 태모시

마른 태모시는 한 베비씩 서로 형클어지지 않게 손으로 감은 다음 수분을 충분히 함유할 수 있도록 짜기 전에 약 1~2시간 정도 물투리에 담가두어 모시 짜기를 좋게 한다. 물 투가리에 담는 태모

시의 양은 작업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한 두 베비를 담구어 사용한다.

### (2) 엄지에 사려감기

충분히 수분을 흡수한 태모시는 모시짜기에 적당하도록 물기를 짜서 엄지에 사려 감는다. 먼저 모시 머리 쪽, 상부 약 10cm정도를 시계 방향으로 틀어서 꼬아 준 뒤 반으로 접어 구부린 다음 아래쪽에 있는 태모시 두 서너 가닥으로 모시머리를 감아서 모시 꼭지를 만든다. 두 보유자는 이것을 왼손아귀 사이에 끼운 다음 모시를 짜는 도중에 수분이 날아가지 않을 만

**60)** 베어서 말린 모시를 햇볕에 잘 말려서 태모시를 만든 후에 껍질을 이빨로 잘게 뜯은 후 섬유가닥끼리 손으로 비벼서 무릎에 대고 이어서 실을 만들어 타래로 사려 둔 것



사진25. 또아리를 감고 있는 모습



사진26. 또아리가 감긴 모습

크의 양인 태모시 두 서너 가닥을 빼내서 왼손아귀 사이에 끼워 둔 모시머리와 엄지손가락을 번갈아 가며 시계방향으로 감아서 재빠른 동작으로 또아리를 만들어 나갔다.

또아리를 사려서 감는 요령은 시계방향으로 돌려 감되 우선 모시꼭지를 먼저 감고 그 다음 꼭지와 엄지손가락을 함께 돌려 감아 가기를 계속 반복하는데 측면에서 보이는 감긴 실의 형태는 X자형이 된다.

오랜 연륜의 경험으로 능숙하게 사려 감은 문정옥 보유자 왼손 엄지손가락의 움직임은 꼭지를 감을 때는 누르고 전체를 감을 때는 세우면서 경쾌하게 반복해 나갔는데 직경 5cm정도의 또아리를 금방 만들어 낸다.

이같이 손가락에 또아리를 틀어 놓은 이유는 태모시를 켤 때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켤는 도중에 수분이 마르지 않아 모시짜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이다. 즉 한 번짜기에 적당한 양의 태모시를 몇가닥씩 단위로 엄지손가락에 사려 감아 또아리를 틀어 놓고 한 가닥씩 풀어서 짜기를 하게 된다.

### (3) 모시 짜기

한 베비의 분량을 켤 때에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켤는 도중에 수분기가 마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짬을 좋게 하는 요령이다. 태모시 한 베비를 켤는 데는 숙련된 정도에 따라 약 1~2시간정도가



소요된다.

모시를 짤 때는 침을 끝까지 잘 문혀서 고르게 찢어야 하며 침 분비량과 성분에 따라 보풀(끄덕)이 잘 일어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 이는 모시 찢기에 좋은 침을 가진 사람이 모시를 짤면 모시 보풀이 잘 일어나지 않고 모시를 짤 때 섬유의 표면이 윤이 나는 좋은 모시를 짤 수 있으며 침의 분비량이 많을수록 좋다고 한다. 인근의 일본 등 다른 나라에는 모시를 손톱으로 찢는 것과는 달리 한산모시는 입안에 있는 침의 성분을 이용해서 이로 모시를 찢는 점이 섬세하고 질 좋은 모시를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인이 아닌가 생각된다.

방연옥 보유자의 말에 의하면 모시를 짤 때는 모시에 물을 축여서 수분이 마르지 않게 하여 이와 이 사이에 넣고 앞니로 굽어서 훑어 내리는 듯한 요령으로 침을 잘 발라가며 최대한 가늘게 쪼개주는 것이 요령이라고 한다. 또 모시를 쪼갤 때는 일단 잘게 쪼개진 틈 사이로 재빨리 손가락을 넣어서 다시 가늘게 쪼개되 모시 가닥을 끝까지 굽듯이 하여 가늘고 균일하게 쪼개는데 도중에 쪼개진 모시 올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려서 손가



사진27. 이로 모시를 찢고 있는 모습



사진28. 꼬개진 모시줄을 손가락에 건 모습

락 사이에 구분하여 걸어 둔다. 즉 길게 잘 꼬개진 좋은 모시 올은 셋째 손가락과 넷째 손가락사이에, 그리고 길이가 너무 짧게 꼬개져서 잇기가 곤란한 나쁜 올은 둘째손가락과 셋째손가락 사이에 걸어서 구분하며 이를 “꾸묵이”라 한다.

모시를 얼마나 가늘고 균일하며 길게 잘 꼬개느냐에 따라서 세저, 중저, 막저로 모시의

질이 결정되므로 모시짜기 과정은 모시 짜기에 있어서 주요한 과정이 된다. 때문에 모시를 재배하는 기술과 짜고 삼는 기술, 그리고 모시에 콩풀을 매어서 짜는 기술은 각각 분업화되어야 하며 각 과정별 전문기술자를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짜기와 삼기 과정의 숙련된 기술전승은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시급히 전승되어야 할 과정이며 숙련된 모시짜기 경험을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익혀 나가는 것이 한산모시 짜기의 기술 보존과 전승의 맥을 제대로 이어 가게 될 것이다.

#### (4) 모시머리 정리하기

짜기가 끝나면

① 둘째손가락과 셋째손가락 사이에 끼워 두웠던 짧은 꾸묵이를 고로 묶어둔다.



사진29. 꾸묵이 정리

② 머리꼭지를 푼 다음 손으로 몇 번을 탁탁 쳐서 실을 골라준 뒤에 짧게 켤 모시다발인 꾸묵이는 빼 놓고 잘 짜어진 모시 다발만 잡아 상부(上部) 모시꼭지로부터 약 25cm 아래줄기를 왼손 중지에 돌려 감고 모시 올의 나머지 아래쪽 부분을 쥐고 반대방향으로 손목에 칭칭 동여 감는다.

③ 엉켜있는 태모시의 머리부분을 입으로 물고 모시 머리 쪽에 묶여있던 모시 올들을 물에 축여 가면서 하나 하나씩 뜯어낸다.



사진30. 입으로 태모시 정리



④ 톱반 위에 모시 머리부분을 올려놓고 모시톱으로 훑어 내린다.

⑤ 모시 빗으로 훑어 내려서 모시머리를 골고루 쪼개어 모시실을 얻는다.

## (5) 모시 삼기



사진37. 모시톱으로 훑어내기



사진38. 다듬어진 모시실

편지의 종류는 위가 막혀 있는 것과 위가 막히지 않고 두가닥으로 나누어진 형태가 있으며 어느 쪽이든 안쪽에 홈이 7cm정도 파여져 있어서 모시실을 걸 수 있게 되어 있다. 편지의 길이는 60cm정도 되며 모시삼기를 할 때는 두 개의 편지를 모시길이 만큼 사이를 벌려서 세워놓고 모시실을 걸되 모시 머리 쪽이 왼편에 가도록 해서 편지에 걸어 둔다.

삼는 요령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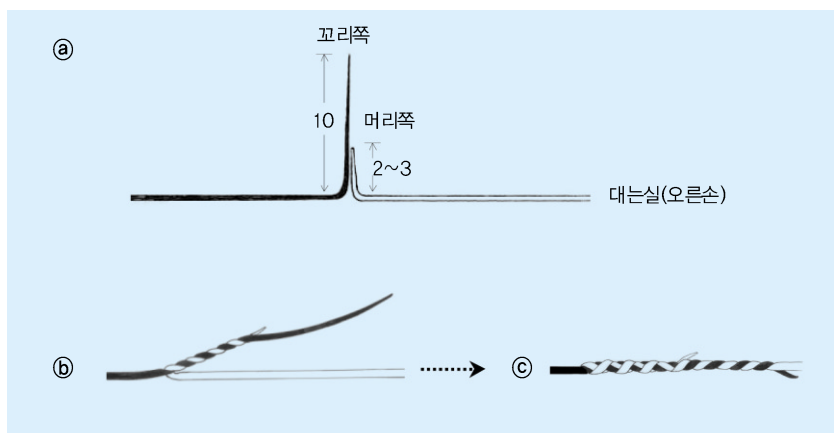
사진33. 모시틀로 훑어내기

모시를 삼을 때는 잇는 실(대는 실)이 항상 머리 쪽이 되도록 하고 꼬리 쪽 보다는 약간 짧게 댈다. 모시를 잘 꼬아 삼기 위해서는 모시실을 풀 때 항상 건조하지 않도록 침을 발라 습기를 주어가며 꼬아야 한다. 굵은 실은 다시 가늘게 쪼개 주어서 굵기를 조절해 가며 이어야 하고 거의 비슷한 굵기의 모시실끼리 이어 주어야 한다. 특히 모시 머리 쪽은 이을 때 끊어지지 않도록 가늘게 손질하여 삼는 것도 요령이다.

한산지역 여인들이 모시실을 이을 때는 항상 치마를 걷어올리고 무릎 위

속살에다 이어 붙인 실을 올려 두고 몸판 실에 이어 부치는데, 이 점은 우리 선조들의 과학적이고 슬기로운 지혜가 스며 있는 귀한 풍속이다. 우선 무릎은 손이 쉽게 닿을 수 있는 작업공간으로 작업의 효율성이 아주 높다. 그리고 모시실을 이을 때 손바닥과 무릎은 표면의 마찰력이 거의 동일하게 주어 지므로 인체표면위에서 꼬아지는 실은 훨씬 탄탄하고 안정된 꼬임을 갖는 탄력성 있는 실을 얻게된다.

① 대는 실의 머리부위를 이빨로 가늘게 쪼갠 후 그림과 같이 모시 머리 쪽의 대는 실은 2~3cm, 꼬리 쪽의 실은 약 10cm로 길게 하여 두가닥의 실을 서로 합쳐서 꼬는데 왼손 엄지와 검지로 두 올을 잡아 앞으로 말아 감아 Z자 꼬임을 준다.



〈그림1〉 모시삼기

② 이어 붙인 모시 올을 무릎 위에 놓고 오른 손바닥으로 앞 쪽으로 비벼서 대는 실의 몸체에 꼬아 부치는데 방향은 시계반대 방향인 S자 꼬임이 된다. 이 때 실을 탄탄하게 잘 꼬기 위한 요령은 오른손 바닥으로 몸체에 이어

붙이기 전에 대는 실의 몸체에도 같은 방향의 Z자 꼬임을 미리 만들어 주는 것이다. 즉 잡고 있던 대는 실을 왼손 엄지손가락으로 앞 쪽으로 약간 밀어서 꼬아 주면 Z자 꼬임이 만들어지고 이를 몸체와 합쳐서 S자 꼬임을 만들게 될 때 훨씬 균일하고 탄탄한 꼬임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다.



사진34. 두 손으로 잇기(Z꼬임시계반대방향, 엄지앞으로) 사진35. 무릎에 대고 잇기(S꼬임 시계방향, 엄지안쪽으로)

### ③ 실 마리(가금방) 표시하기

실마리는 실머리, 가금방, 가금밥, 가금박이라고 하며 모시 삼기를 할 때 실마리를 표시해 두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왜냐하면 실머리 쪽이 항상 모시섬유의 머리쪽이 되어서 같은 방향으로 이어져 나가야만 모시 매기를 할 때 실이 끊어지지 않고 보푸라기가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원리는 모시품을 베어서 직기에 엮기까지 항상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때문에 처음에 모시 몇 가닥을 삼은 다음 일정한 실의 길이가 나오게 되면 실의 끝이 되는 머리 쪽을 손바닥에 몇 회 감은 후 직경 약 12cm정도로 둥글게 사려서 실 마리를 만들어주고 이를 광주리 밑바닥 중심에 놓고 모시

실을 삼아 가야 한다. 이 실마리는 나중에 모시를 날 때 날실이 되는 모시 열 곳이 모두 한 방향으로 정정이 되게 하기 위해서 머리 쪽이 되는 실 끝에 다 실마리 표시를 해 두는 것이다.

#### ④ 모시 굵 묶기

모시 한 곳이 될 만한 분량의 모시가 삼아지면 모시 굵을 묶어서 정리한다. 모시실 열 가닥 정도를 합쳐서 굵게 꼬아 만든 50~60cm정도의 긴 실 두 올을 십자형이 되게 바닥에 놓은 후 그 위에 삼아 놓은 모시실이 담긴 광주리를 얹어서 아래의 실로 묶어서 모시굵을 만든다. 이 때 처음 만들어 둔 실마리가 위로 오게 된다.

모시 1필을 짜는데 소요되는 모시굵의 양은 세저, 중저 막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개 7, 8승 모시를 기준으로 할 때 태모시로는 3~4근이 소요되고 모시굵으로는 날실이 10곳, 씨실이 8곳(꾸리로 18개)정도 소요된다.

대체로 씨실이 되는 꾸리용 모시굵은 가는 것을 사용하고 날실용은 약간 굵은 것을 사용한다. 또한 모시를 짜고 삼는 것은 할머니들의 부업으로 많이 하고 있으며 세저용인 가는 모시굵은 한 곳에 2만원에서 3만원 정도이며 굵은 것은 만원에서 만 오천원 정도로 유통되었다.



사진96. 십자형 만들기



사진97. 모시굵과 실마리

### 3. 모시 날기

#### 1) 도구 및 명칭

〈표 11〉 모시날기 도구

명칭		내 용	타 지역어
표준어 (지역어)	크기(cm) L/W/H		
조슬대	L:100	대나무를 반으로 잘라 만들었으며 5~10cm 간격으로 구멍이 10개 뚫려져 있고 실을 날 때 10가닥의 실을 각 구멍으로 통과시켜 한 모심이 되게 하는 역할	고무대, 홀아비대
편지	50×10×60	50×10cm의 버팀목의 가장자리에서 부터 약 5cm들어 간 곳에 구멍을 파고 길이 60cm 내외의 대나무로 된 편지다리를 박아서 그 위에 조슬대를 얹게 한 도구	
날틀 (말틀)	㉠자형: 45×62×60 일자형: 45×40×60	㉠자형과 일자형(아래말)의 두 종류가 있으며 모시 날기를 할 때 좌우로 서로 마주 보게 놓아 실을 날도록 하는 도구 사이간격은 모시 한 필의 1/4이 되는 4자 반을 두어서 놓는다	
쌀겨	-	모시곳에서 실이 뽀뽀해서 조슬대를 통과할 때 실이 뭉쳐지지 않도록 모시곳 위에 뿌려둠	
자	60	날틀사이의 거리를 재는 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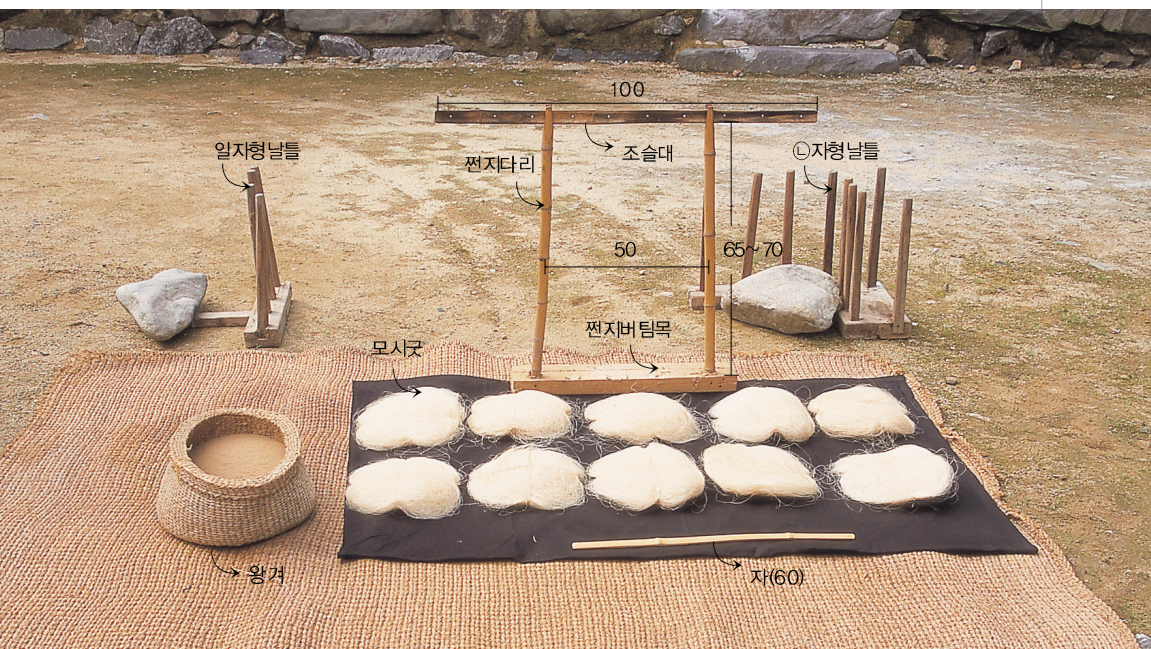


사진38. 날기도구와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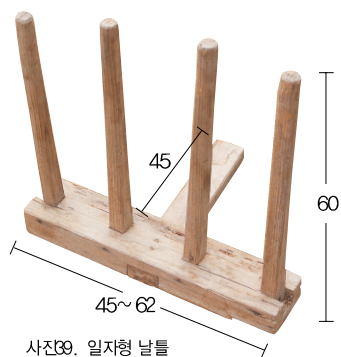


사진39. 일자형 날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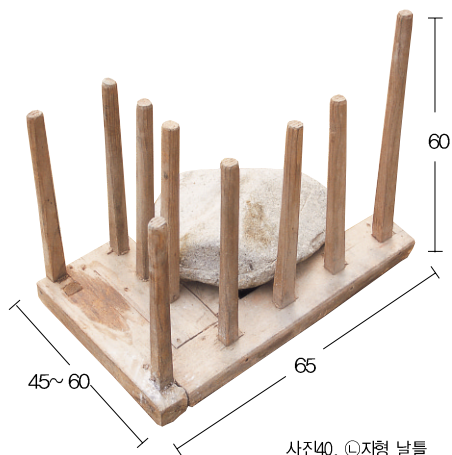


사진40. ㉠자형 날들

## 2) 제작과정

모시 날기란 모시 10곳으로 경사 올을 정정 하는 것이며 모시의 승수를 몇 새로 할 것인가에 따라 모시실의 날실길이가 결정이 된다. 즉 현재 한산 지방에서 짜는 모시는 한 필의 자수가 36자이며 모시 한자의 척수는 60cm 가 되므로 모시 한 필의 길이는 21.6m가 된다. 따라서 8승 모시를 짤 때 필요한 각 모시 곳의 날실길이는 날기의 횟수를 64회(8승 80올)를 날아야 하므로 총 길이는 1382.4m( $21.6\text{m} \times 64\text{회}$ )가 된다.

모시 한 필을 짜는데 필요한 모시 곳의 수는 모시의 굵기에 따라서 15~20개의 모시 곳이 필요하나 7~8승 모시를 기준으로 할 때에는 보통 18개 정도의 모시 곳이 필요하다. 즉 날 올이 되는 경사 올의 날기 과정에서 10곳이 필요하고 씨올이 되는 위사인 북 실에 8곳 정도가 소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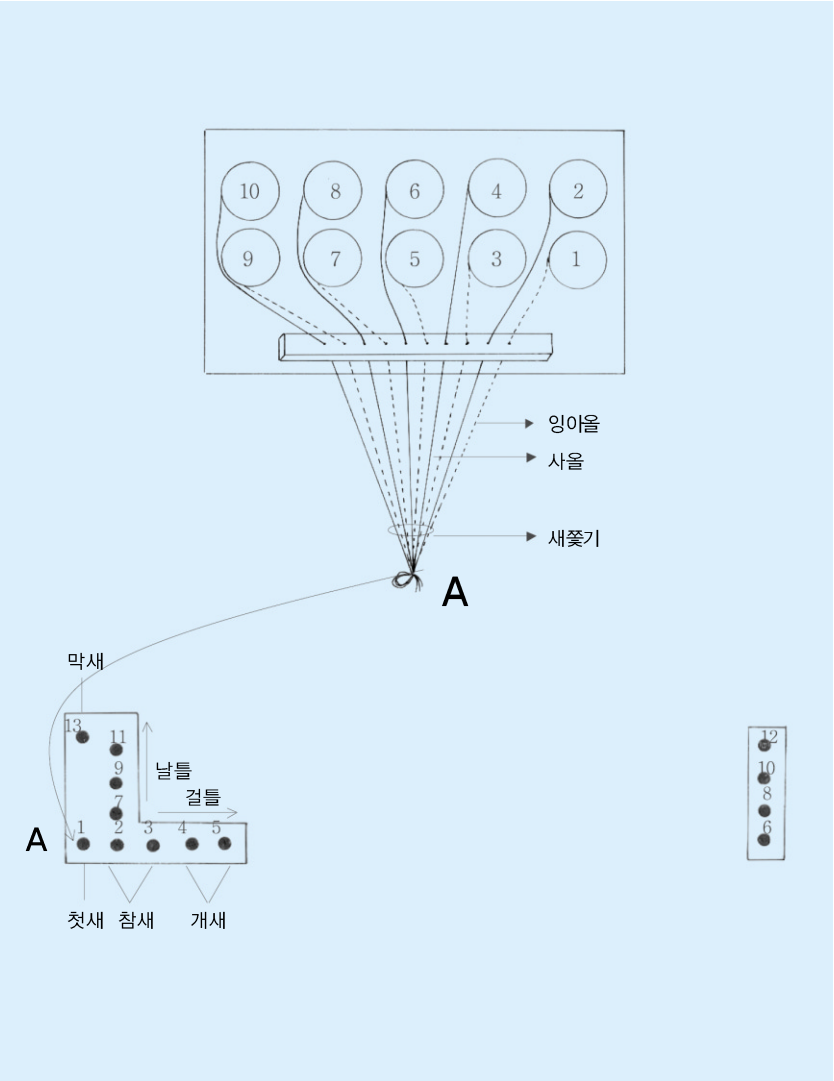
모시를 날기에 앞서서 조슬대와 날틀의 거리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날기를 하는 도중에 비가 오거나 햇볕이 너무 강하거나 하면 도중에 날기를 중지할 수가 없으므로 날기를 할 경우엔 맑고 화창한 날을 택해서 한다. 대개 오후 3시 이후쯤 태양열이 식어갈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날기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2시간 정도이다. 날기를 할 때는 날기 도중의 피로도 등을 고려해서 조슬대와 날틀의 위치를 앞의 사진과 같이 배치하고 날기를 할 때 햇볕을 등지고 나는 것도 요령이다.

### (1) 조슬대와 날틀의 위치 설정하기

대나무를 반으로 쪼개어서 중간에 10개의 구멍을 낸 조슬대를 찢지 다리 위에 걸치되 대나무가 움푹하게 패인 쪽이 모시곳 쪽으로 향하게 한다.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찢지 버팀목 위에는 조슬대가 움직이지 않도록 무거운 돌로 고정한다.

조슬대 앞쪽에는 두 개의 날틀이 좌우로 서로 마주보게 배치하는데 왼편





〈그림2〉 모시날기 I



사진4. 날기 측면에서 본 전체모습

에는 ㉠자형 날들을 놓고 오른 편에는 일자형 날들을 둔다. 이 때 양쪽 날들<sup>61)</sup> 사이의 거리는 60cm의 대자로 4자 반이 되게 한다.

㉠자형 날들의 구조는 가로로 첫새 1개, 참새 2개, 개새 2개로 된 총 5개의 걸들이 박혀 있는 버팀목과 2번째 걸들인 참새와 수직방향으로 3개의 날들이 박혀 있는 버팀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세로로 박혀있는 날들 중에서 맨 마지막 날들 바로 뒷쪽에 막새용 날들이 한 뼘 정도의 간격을 두고 첫 새와 나란한 위치에 꽂혀있다. 버팀목 위에는 날들이 움직이지 않도록 무거운 돌로써 고정한다.

다음으로 일자형 날들의 구조는 날들만 4개가 박혀 있으며 날들사이 간격은 ㉠자형 날들의 간격과 거의 동일하다. 그리고 버팀목의 중간에는 수직방향으로 길이 약 40cm정도의 가로버팀대가 붙어 있다. 이것은 모시날기를 할 때 날들이 움직이지 않도록 위아래 큰 돌맹이를 얹어두기 위한 것이다.

## (2) 조슬대에 실끼우기



사진42. 조슬대 실끼우기

61) 이는 날들의 개수가 좌우로 4쌍이므로 4자반×8회 반복수 하면 36자 즉 모시 한 필이 되는 거리이기 때문이다.

모시굿과 실마리(가금방)를 찾아서 조슬대에 걸어 끼운다. 앞줄에 놓인 모시굿은 잉아울에 해당되고 뒷줄에 놓인 모시굿은 사울에 해당된다. 실을 조슬대의 구멍에 끼우되 1번부터 순서대로 끼우는데 1모심은 조슬대를 통과해서 나오는 10가닥의 실을 말하며 10올 단위의 모심이 몇 회를 날았는가에 따라 승수가 정해지고 8회 날았을 때 1승(80올)이 된다.

### (3) 새쫓기

새쫓기를 할 때는 왼손으로 조슬대를 통과한 모시 열 올(열낫, 한모심)을 잡고 오른손 검지와 엄지를 이용해서 새쫓기를 한다. 검지손가락에는 잉아울을 걸되 1, 3, 5, 7, 9번 올의 순으로 손가락을 아래로 눌러서 걸고, 엄지손가락에는 사울을 걸되 2, 4, 6, 8, 10번 올의 순으로 손가락을 위로 치켜 들면서 실을 구분한다. 즉, 1번 잉아울을 검지로 누르고 2번 사울을 엄지에



사진43. 새쫓기

걸어 올리는 동작을 반복하여 (3, 4) (5, 6) (7, 8) (9, 10)번의 순으로 새 쫓기를 행하여 검지손가락에 잉아올이 5올, 엄지손가락에 사올 5올이 걸리게 한다.

#### (4) 날기

모시 날기를 할 때는 왼손에다 조슬대로 부터 풀려나오는 날실 10올을 쥐고 오른손으로는 새쫓기와 날틀에 실을 순서대로 걸어 나간다. 우선 조슬대를 통과 한 날실 열 가닥을 잉아올과 사올을 구분해서 새쫓기를 한 후 ㉠자형 날틀의 첫새에다 묶어 둔 날실의 맨 처음 실 끝을 걸고 그 다음 새쫓기로 구분된 잉아올과 사올을 두 개의 참새에다 얹어서 X자가 되도록 걸어 준 뒤 구분된 잉아올과 사올을 합쳐서 10올 단위로 4번째와 5번째의 개새에다 그 림과 같이 서로 교차되게 걸어간다. 즉 실을 걸어 나가는 순서는 첫새, 참새, 개새 순으로 걸어주되 참새 걸기란 나중에 바디에 실을 끼울 때 잉아올 5올과 사올 5올로 구분하여 끼우기 위하여 날기부터 잉아올과 사올을 구분하여 걸어 주기 위한 것이며 개새 걸기란 날기의 횟수를 거듭할 때마다 10올 단위 한 모심의 방향이 서로 교차되도록 걸어 줌으로써 날기를 하는 도중에 몇 회를 날았는지 헤아리기 쉽게 하며 매기시 날올을 고르게 하기 위한 것이다.



① 1회 짚 날기에서는 첫 새에다 10올의 실 끝을 매듭을 지어 고를 만든 것을 걸어 준 뒤 그림과 같이 두 번째 걸 틀인 참새의 앞쪽으로는 잉아올 5올이 걸리고 뒤쪽으로는 사올 5올이 걸려서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걸틀 사이가 X자가 되도록 하여 세 번째 걸틀인 참새를 통과시킨다.



사진44. 첫새와 참새걸기

② 그 다음 잉아올과 사올을 함께 쥐고 네 번째의 걸 틀인 개새의 앞 쪽에 걸어 준 뒤 다섯 번째 걸 틀인 개새에는 실을 뒷 쪽으로 통과 시켜서 반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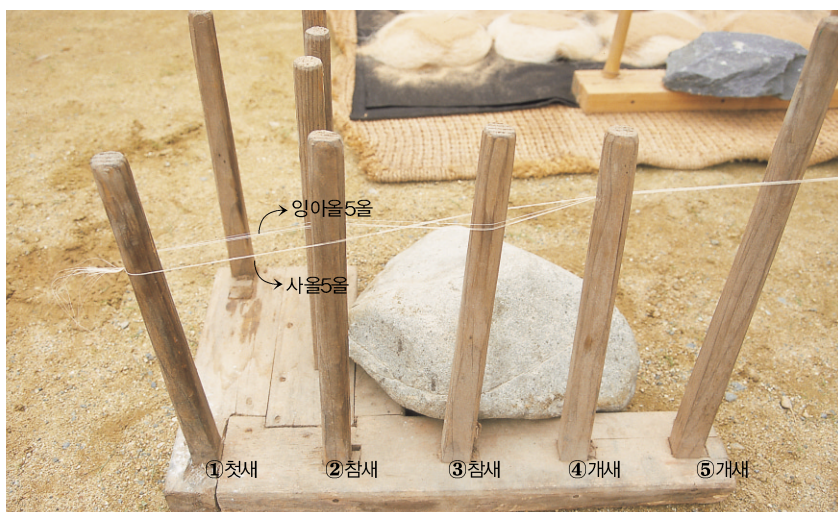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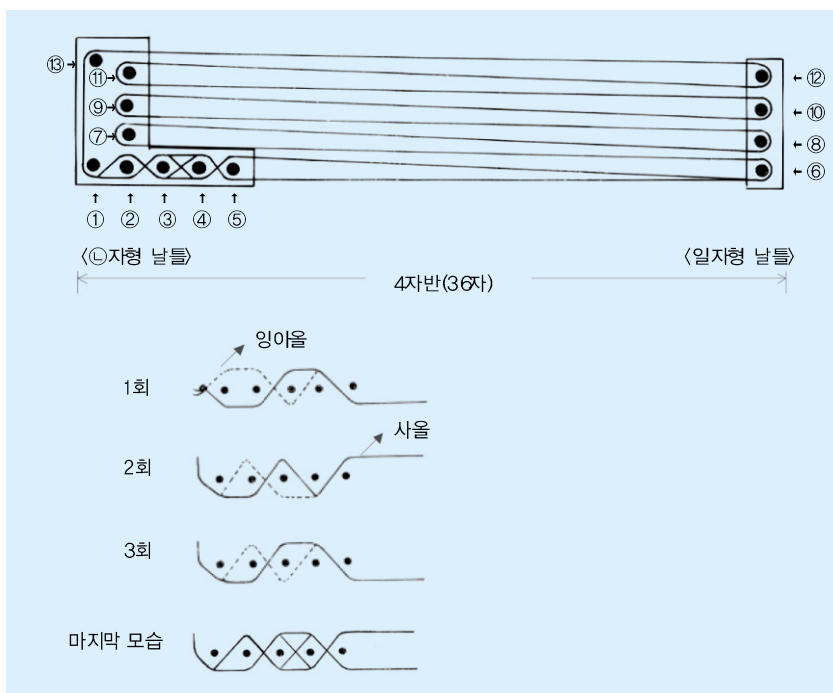


사진45. 첫새 참새 개새가 걸린모습

에 있는 일자형 날들의 첫 번째 틀(6번틀)에 U자형으로 실을 걸어 준다. 계속해서 ㉠자형 날들과 일자형 날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림의 순서대로 (7, 8, 9, 10, 11, 12번틀) U자형으로 실을 걸어가는데 맨 마지막에는 ㉠자형 날들의 뒤쪽에 있는 막새(13번틀)에 걸어서 첫새까지 오게 되면 모시 1필의 길이인 36자를 1회 날게 된다



〈그림3〉 모시날기 II

③ 2회 째 날기는 다시 새쫓기 과정을 거쳐서 그림과 같이 첫새를 감아서 참새와 개새를 같은 요령으로 걸어 나가되 다만 개새를 걸때는 앞의 방향과 반대가 되게 걸어준다. 이것은 10올 단위의 모심이 서로 엇갈려서 걸려져 있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차례차례 헤아리기가 쉬우며 나중에 모시 매기를 할 때에도 이 자리에 개새대를 끼워서 매기도중에 날올들이 풀 때문에 서로

영겨 붙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진46. 두 번째 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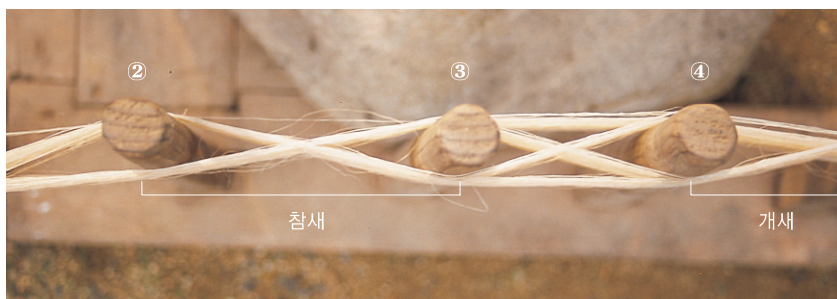


사진47. 참새와 개새가 걸린 모습

날기를 할 때는 고뱅이가<sup>62)</sup> 생기지 않도록 모시를 나는 사람과 조슬대 앞에 앉아서 실이 잘 통과 하도록 돕는 사람과의 협동심이 필요하다. 즉 조슬대 앞에 앉는 사람은 모시굿의 올이 바람에 날리거나 영겨지지는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서 조슬대의 실이 원활하고 매끄럽게 빠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 모시를 나는 사람은 왼손으로 날올을 약간 느슨하게 잡아 쥐고 날실을 가볍게 흔

62) 올이 빠져 나오는 것



들어 가면서 날아야 실이 조슬대를 잘 빠져나와서 고르게 날 수가 있다.

#### (5) 계수하기 (승수 헤아리기)

웬만큼 날기가 행해지면 개새에 걸린 모심의 숫자를 헤아려서 몇 번을 더 날아야 하는 지를 헤아리게 되는데 원하는 모시의 승수가 얼마인가에 따라서 모시 날기의 횟수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8승 2모의 경우엔 1승이 날실 80올에 해당되고 1회를 나는데는 모시 10올씩을 쥐고 날게 되므로 8회씩 날기를 8번(8승)하고 두 번(2모)을 더 날아서 총 66회를 날게 되는 것이다.

개새에 걸린 모심의 수를 헤아린 뒤에는 이를 실로 묶어서 표시를 해 주고 나머지는 승수에 맞추어서 날기를 계속 한다.



사진48. 승수세기

〈표 12〉 승수와 날기 횟수

승 수	모시올의 수	날기 횟 수	구 분
12승	$12\text{승} \times 80\text{올} = 960\text{올}$	$(12 \times 8) = 96\text{회}$	세저 (9~12 승)
8승2모	$(8\text{승} \times 80\text{올}) + 20\text{올} = 660\text{올}$	$(8 \times 8) + 2 = 66\text{회}$	중저 (7~8 승)
5승	$5\text{승} \times 80\text{올} = 400\text{올}$	$(5 \times 8) = 40\text{회}$	막저 (5~6 승)

#### (6) 개미 찌기와 실 끝 자르기

원하는 승수만큼 날기를 마치면 맨 마지막 날기에서는 ㉠자형 날틀에 실을 걸 때 날실을 약간 위로 걸어준다. 이것은 나중에 숫검정으로 개미 찌기



사진49. 실끝 묶기

를 할 때 아래쪽 날실에 솟검정이 묻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실의 끝은 첫 새에서 약 7~10cm 정도를 겹치게 한 뒤 사진과 같이 첫새 앞쪽을 먼저 끈으로 묶어 준 뒤 약 7cm 정도의 간격으로 마지막 실 끝을 묶어 주고 나중에 중간을 가위로 잘라서 날실의 시작과 끝이 되게 한다.

그 다음 구분해 둔 참새와 개새 사이에도 사진과 같이 모시실로 각 새의 사이를 묶어 줌으로써 날틀에서 분리해 낸 날실이 엉키지 않게 한다.



사진50. 참새와 개새사이에 실을 묶은 모습

마지막으로 숯검정으로 개미찍기를 표시하는데 ㉠자형 날들의 ⑦, ⑨, ㉡번에 걸린 맨 마지막 날실의 바로 옆에다 살짝 개미찍기의 표를 해준다.



사진51. 개미표시 하기

이 같이 개미 찍기를 하는 이유는 모시매기를 할 때 매기를 어느 정도 하였는가를 알 수 있도록 모시 한 필인 36자를 4등분해서 9자, 18자, 27자가 되는 위치에 검은 표시를 해두는 것이다.

날기 과정을 전부 마친 날실은 다음의 모시매기를 위해 첫새와 두 번째 사이에 약 7cm 간격으로 묶어둔 날실의 중간을 가위로 잘라주고 두 번째 겹틀에 걸린 날실의 첫 매듭을 앞쪽으로 두 서너 번 말아 넣어서 감아 준다.

#### (7) 실고리 만들기(모시 갓침)

실고리를 만드는 과정은 36자나 되는 긴 날실을 길이를 짧게 하는 방법으로 사슬고리를 만들어 엮어 주는 과정이다. 실고리를 만들 때는 날실의 맨 마지막이 되는 꼬리쪽 날실부터 차례로 날틀로 부터 거두어 내면서 실고리

를 만들어 가는데 이 지역에서는 이를 모시갓침이라 한다. 모시갓침은 오랫동안 보관해 두면 실이 꼬불꼬불한 상태가 되어서 매기시에 실의 배향이 좋지 않으므로 가능한 모시를 날고 매고 짜는 과정은 한 번에 끝이 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시갓침의 종류는 흘갓침과 겹갓침의 두 종류가 있으며 흘갓침은 사슬고리를 하나씩만 빼서 갖추어 가는 것이고 겹갓침은 사슬고리를 두개씩 빼내서 실고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모시 갓침을 하는 순서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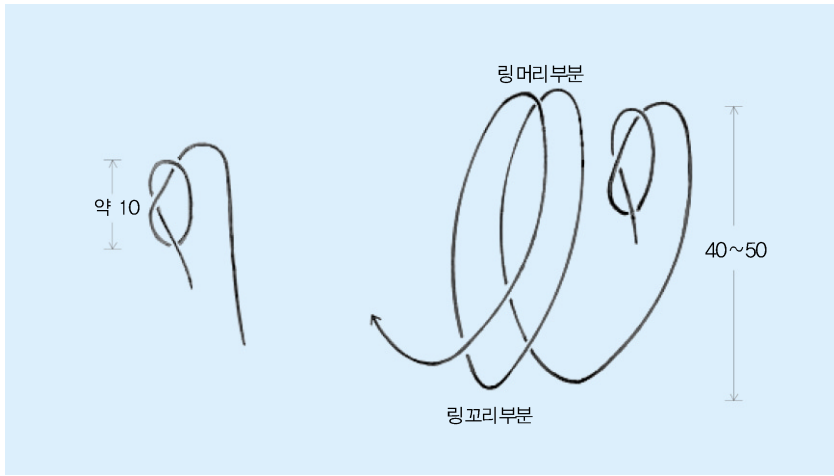
사진52. 실끝 묶기

① 날실의 맨 끝을 왼손에 한번 감아서 고를 낸 뒤 (손가락에 감지 않고 그냥 한번만 묶어둔 뒤 왼손에 끼어도 된다)



사진53. 참새와 개새사이에 실을 묶은 모습

② 오른손으로 40~50cm길이의 실을 잡아서 둥근 실고리를 2개(흘갓침은 1개) 만들어 왼손에 잡아 쥐는다.



〈그림 4〉 실고리만들기



사진54. 링머리 빼내기

③ 왼손에 쥐고 있던 두 개의 실고리 머리 쪽을 맨 처음에 고를 내어 잡고 있던 고 사이로 빼내서 오른손으로 실 고리의 꼬리 쪽 실타래와 합쳐서 맞잡아 준다. 이때 왼손의 상태는 첫 번째 만든 고에다 ②의 실 고리 중간을 걸어서 서로 마주잡아 쥔 상태가 되고 왼손에 쥐어진 실타래는 4겹이 된다.(홀갯침은 2겹)

④ 같은 요령으로 다시 오른손으로 큰 실고리 두 개를 만들어서 왼손에 쥐고 있던 실타래 4겹 사이로 새로 만든 실 고리의 머리 쪽 실타래를 빼 낸 뒤 꼬리 쪽 실타래와 다시 맞잡아 쥐어서 4겹을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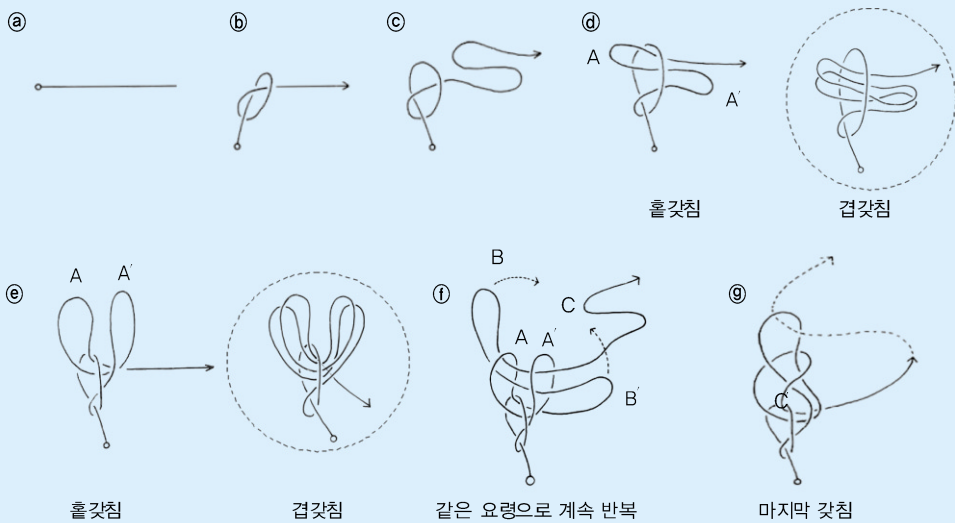
사진55. 실고리 만들기 중간과정

⑤ 이같이 실고리를 만들어 가다가 맨 마지막에는 홀갯침을 두 서너 번하여 끝내는데 ㄴ자형 날들의 개새로 부터 약 50cm 앞쪽에서 갯침이 끝나게 하고 홀으로 빼낸 사슬고리를 몸판 날실에 한번 묶어서 고정해 준다.

⑥ 갯침이 끝나면 날들로부터 개새와 참새를 조심스럽게 빼낸 뒤 갯침의 끝에서부터 돌돌 말아서 원형으로 만들고 맨 끝은 보이지 않게 모시 갯침의 몸판에 끼워 넣어서 마무리 한다.



사진56. 완성 된 모습



〈그림 5〉 실고리 만들기 도해

## 4. 모시매기

### 1) 도구 및 명칭

〈표 13〉 모시매기 도구

명칭		내 용	타 지역어
표준어 (지역어)	크기(cm) L/W/H		
개새대	0.7×73	날 올 10낮 단위인 한 모심 씩을 구분하기 위하여 날실에 끼우는 대	
참새대	2×78	잉아올과 사올을 구분하기 위해 날실에 끼우는 대	
뒷대	1.5×54	바디 뒤쪽에 사올과 잉아올 사이에 끼워서 콩풀이 묻지 않게 하고 매기를 할 때 날 올을 고르게 하는 역할.	
바디	8×37~47	참 빗처럼 대를 가늘게 쪼개서 바디살을 만들고 그 사이에 잉아올 사올을 끼워 넣어서 날실이 고르게 정경이 되도록 하는 역할	
사침대	0.7×56	날기 시 참새로 구분해 둔 잉아올 사올을 바디에 실을 끼울 때 바디 뒤쪽으로 옮긴 뒤 참새 대를 빼 내고 그 자리에 끼우는 가늘고 단단한 두 개의 대 나무 막대기. 모시를 매고 짜기까지 잉아올과 사올 을 구분해 주는 역할을 하며 양 끝은 실로 묶여져 있다	
걸망대	2×52	날실의 맨 끝을 걸어서 도투마리에 고정 해 주는 역할	걸망대
도투마리	25×94.5	매기를 한 후 날실을 감는 도구	
끌개	57×35×45	날실의 마지막 끝을 매어서 고정 시킨 후 날실을 도투마리에 감을 때 앞으로 당겨져 오도록 한 도구	끄싱게, 끄시랑코
맬틀	94×11×34	도투마리를 엮는 도구	걸틀
뱀대	3×52	도투마리에 날실을 감을 때 날실이 서로 붙지 않 도록 사이사이에 지르는 가는 대나무 막대	뱀다구, 뱀비, 뱀댕이
매기솔	10×20	솔뿌리를 캐서 만든 것으로 콩풀을 묻혀서 모시를 매는 풀솔	풀솔
투가리	25내외	콩풀을 개서 담는 그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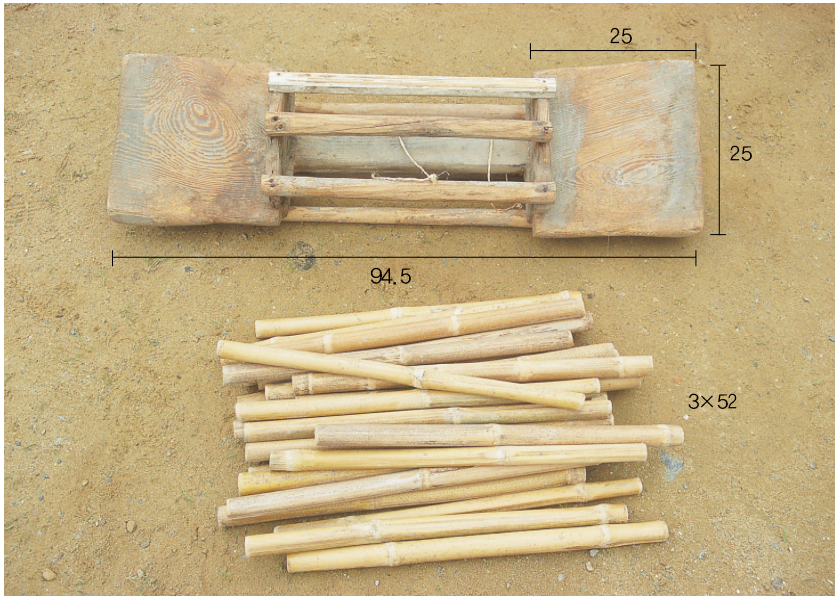


사진57. 도투마리와 뱀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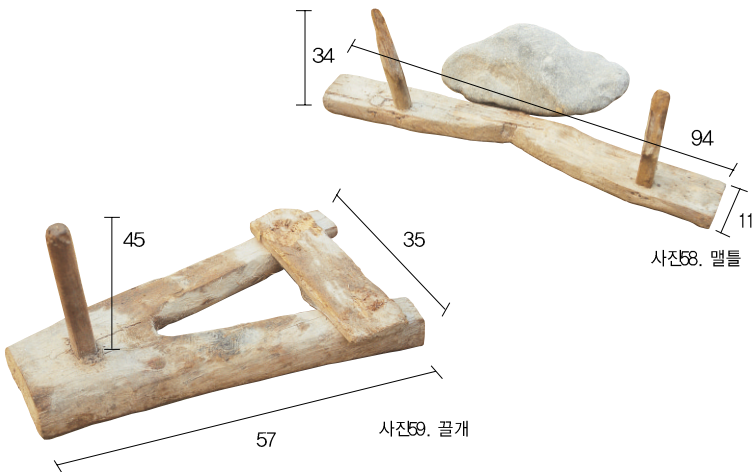


사진58. 맬틀

사진59. 끌개

## 2) 제작과정

모시매기는 날기와 마찬가지로 바람이 없고 구름이 끼지 않은 날을 택해서 맨다. 매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 행해야 하며 대개 10시 쯤 해가 달아오르기 전에 끝을 내는 것이 일의 피로도도 적고 작업이 효율적이다. 보통은 동이 트기전 새벽부터 매기를 하는데 일찍 매기작업을 끝내기 위해서는 사전에 날실을 바디에 끼워 두어야 하며 왕겨 불도 매기 2시간 전부터 지퍼 두어야 한다.

### (1) 바디 실 꿰기

앞서 준비해 둔 모시갓침과 바디 꿰기에 필요한 도구들을 가지고 실내로 들어와서 바디에 날실을 꿰 준비를 한다. 날을들을 바디 구멍에 꿰어 넣는 바디꿰기 작업은 먼저 바닥에 검은 천을 깔아서 날실을 꿰 때 모시 올이 잘 보이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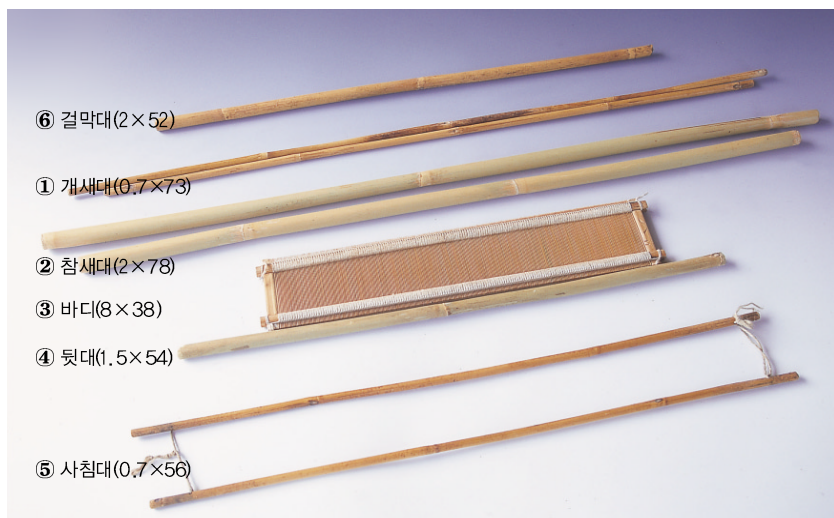


사진60. 바디실 끼우기 도구, 번호순

그 다음 모시갓침으로 부터 날실을 풀어서 실고리를 끝낸 지점인 개새 뒷쪽에 커다란 돌맹이를 얹어서 고정하고 바디 꿰기에 필요한 도구들을 개새대, 참새대, 바디, 뒷대, 사침대, 걸막대 순서로 가지런히 정리해 둔다. 이 막대기들은 각 역할과 위치에 따라서 굵기와 길이가 조금씩 달라서 바디 뒤에 바짝 붙여서 금방 풀을 매긴 모시올이 서로 붙지 않게 하는 뒷대(1.5~1.8cm)가 가장 굵고 다음이 사침대(0.7~1cm), 그리고 제일 가는 것이 개새대(0.7cm)이다.

바디에 실을 끼우는 작업은 한 번 바디에 실을 꿰게 되면 짜기 과정까지 그대로 연결되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현대식 개량직기에서는 매는 바디(맬바디)와 찌는 바디가 다르지만 전통식은 맬 때 한번 꿰어 둔 바디 실은 모시 짜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연결된다.

#### ① 참새대, 개새대 끼우기

잉아올과 사올을 구별하기 위해 실로 묶어 둔 참새와 모심을 구별하기 위해 실로 묶어 두었던 개새 사이의 끈을 풀고 그 자리에 참새대와 개새대를 각각 끼워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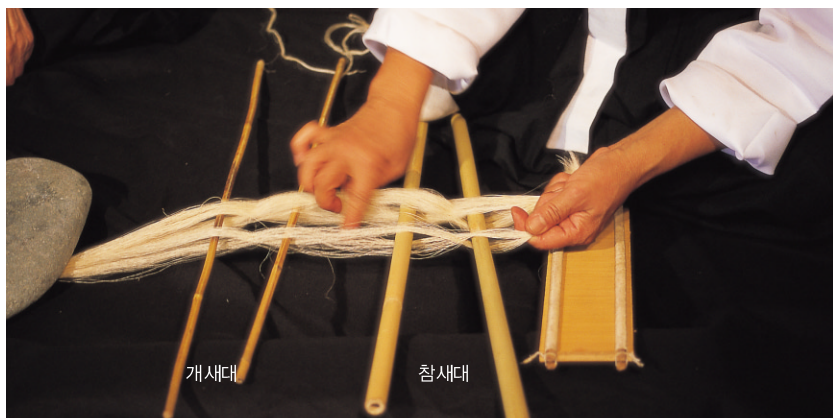


사진61. 참새대와 개새대 끼우기

그 다음 바디 꿰기 작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날실의 끝을 사진과 같이 네가닥으로 나누어 묶어준다.



사진62 실끝묶기



사진63 실끝묶기 확대도

## ② 바디에 두 올씩 꿰기

바디는 원하는 승수에 따라서 준비하며 각 승수는 바디 끝에 씌여져 있다. 예를 들어서 10승의 경우에는 중간이 뚫린 십자가형의 기호로 씌여져 있으며 8승 2모의 경우에는 한자로 八자와 눈금표시 2개가 새겨져 있다. 바디의 길이는 보통 37~47cm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바디살이 촘촘하며 섬세한 것일수록 승수가 높은 것이다. 바디살의 숫자는 8승 2모 바디의 경우는 가는 대가비로 33가닥으로 되어있고 보유자가 켤 바디의 길이는 37cm에 폭이 8cm인 바디를 사용하였다.

바디살을 만드는 재료는 대가비를 가늘게 쪼



사진64. 바디눈금

개어서 만들었는데 이는 대가비로 만든 바디살이 식서를 곱고 탄탄하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바디의 양 끝에는 굵은 면사가 정교하게 감겨져 있거나 검은색의 테이프가 둘러져 있는데 검은색을 쓴 것은 하얀 모시 올을 바디에 끼워 넣을 때 바디 구멍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 배려이다.

바디에 실을 꿰 때는 앞서 실의 끝을 4등분으로 나누어 묶은 첫 번째의 실부터 차례로 풀어서 실을 끼워 나가되 바디 한 구멍에 잉아올과 사올을 함께 잡아서 두 올씩 끼워 간다. 그러나 바디 첫 칸과 끝 칸에는 식서부위가 되므로 이 부위의 짜임새가 튼튼하게 짜여지게 하기 위해서 잉아올, 사올을 각각 두 올씩 꿰어서 총 4올의 실이 꿰여지게 된다.

바디에 실을 끼는 요령은 왼손 엄지손가락에서부터 새끼손가락 방향으로 잉아올과 사올을 각 한 조가 되게 각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두 올씩 오른손으로 받아 옮겨서 바디 한 구멍에 끼워준다.



사진65. 바디살 끼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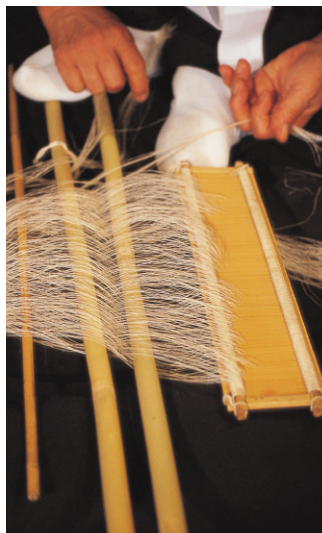


사진66. 왼손에 모시올을 잡은 모습



### ③ 사침대 끼우기

바디에 실을 다 꿰게 되면 바디 뒷 쪽에 있던 참새대를 조심스럽게 조금씩 빼내면서 바디 앞쪽으로 사침을 옮기고 그 자리에 바로 사침대를 끼워준다.



사진67. 참새대와 개새대 끼우기

두 개의 사침대는 양 끝이 실로 서로 묶여져 있으며 매기를 한 뒤 바디와 한 조가 되어서 모시를 짤 때 평직으로 짤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앞서 묶어 둔 4개의 날실 끝매듭을 하나씩 차례대로 바디 앞쪽으로 옮겨가며 사침대를 끼워나간다. 사침대를 끼우는 요령은 준비해 둔 사침대의 한 쪽 끈을 풀어서 바디 앞으로 옮겨진 참새사이에 끼우는데 옮겨진 매듭의 끝을 왼쪽 엄지발가락으로 눌러서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고 두 손으로 참새 사이의 잉아울과 사울을 잘 벌려 가면서 사침을 바디 앞쪽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사침대를 바로 끼워 넣는다. 사침대를 끼우고 난 뒤에 날실의 끝처리하는 실 끝을 묶은 다음 안 쪽으로 두 서너 번 끝을 말아 감아 두어

서 나중에 걸막대를 끼울 공간을 고려해 둔다.

사침대를 다 끼운 후에는 사침대의 양쪽을 다시 묶어서 간격을 고정해 준 다음 앞쪽에 남아 있던 참새대를 마저 빼 내고 묶어 둔 실 끝의 매듭을 다시 풀어 서 가지런히 잘 정리한다.

그 다음 바디의 바로 뒤쪽에 매기를 할 때 잉아울과 사울 사이의 풀이 서로 붙지 않도록 뒷대를 끼워주고 두 개의 개새대를 모시실 몇 가닥으로 묶어서 움 직이지 않게 고정을 하되 묶는 실의 양끝을 마주 잡아 배배 꼬아 틀어서 한 방 향으로 고뱅이를 지게 하는 요령으로 묶어준다. 또 날실의 끝에는 걸막대를 끼워서 도투마리에 날실을 고정할 수 있게 한다.



사진68 바디실을 끼운 상태

## (2) 벚불(왕겨불, 겹불) 지피기

모시매기과정에서 벚불을 지피는 이유는 콩풀을 매긴 뒤 풀이 빨리 마르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벚불을 지피는데 필요한 재료는 왕겨, 콩깍지, 그리고 타고남은 재 등이다. 벚불의 재료로 왕겨를 사용하는 이유는 왕겨가 다른 재료들에 비해 불의 온도를 일정한 상태로 오랜 시간동안 은근히 유

지하기 때문이다. 왕겨 불은 매기 2시간 전쯤부터 서서히 지펴야 하므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지퍼두거나 전날 저녁에 지퍼서 불씨를 은근하게 보존해 두고 이른 새벽에 불씨를 살려 매기 시에 사용한다.

모시 한 필을 매는 데 필요한 왕겨의 분량은 약 한 가마니 정도이며 벼불을 지피는 장소는 매풍의 조금 앞쪽에다 설치한다. 우선 왕겨 불을 지필 적당한 위치가 택해지면 왕겨를 쏟아 붓고 손으로 직사각형의 형태를 잡아서 꼭꼭 눌러가며 다지는데 약 150cm의 길이에 폭은 약 60~70cm넓이로 형태를 만들어서 위에 짚과 콩깍지를 올려놓고 불을 지핀다.



사진69. 벼불 지피기

지핀 지 2시간정도 지나면 불씨가 안정되는데 손을 대어 보아 따뜻한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너무 뜨거우면(싸면) 모시가 부러지므로 식은 재를 끼얹어서 불이 너무 세지 않도록 하고 온도가 내려가면 왕겨를 더 뿌려 주어서 불온도를 조절한다. 왕겨 불은 열을 보존하는 시간이 오래 동안 유지되므로 불씨를 잘 다스리기만 하면 거의 12시간 이상 따뜻한 상태를 유지한다고 한다.



### (3) 콩풀개기

모시를 땔 때 콩풀을 쓰는 이유는 모시실을 이은 곳에 콩풀을 칠함으로 써 끄렁의 생김을 방지하고 날실을 정정할 때 배향을 좋게 하여 모시올이 곱고 균일하게 짤 수 있게 한다. 즉 콩가루에 포함된 유분이 모시를 짤 때 바디와 북바닥의 움직임을 미끄럽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콩풀을 개는 데 필요한 재료는 생콩가루와 소금과 물이 필요하고 도구는 콩풀을 개는 소래기와 소나무 가지를 꺾어서 만든 적당한 길이의 굽기 약 2~3cm 정도의 콩풀 개는 막대가 필요하다.

콩풀에 사용하는 콩가루는 보통 생콩을 절구통에 찧어서 가루를 낸 뒤 체에 받친 것을 사용하는데 옛날에는 간혹 콩을 물에 불린 후 맷돌에 갈아서 쓰기도 하였다고 한다. 생콩을 뺀아서 가루를 내어 만든 것이 점성(짓기, 끈적임)이 많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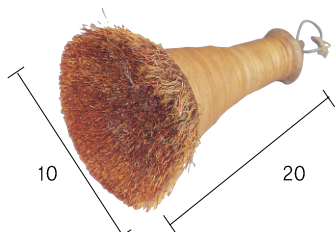
콩풀을 겔 때는 날콩가루와 소금의 비율을 잘 맞추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모시 한 필을 땔 경우, 콩가루와 소금의 분량은 콩가루  $1\frac{1}{2}$ 컵에 소금 약 2주먹 분량이며 이를 찬물에 개어서 만든다. 그 되직한 정도는 묽지도 되지도 않



사진70. 콩풀 만들기

게 개는데 콩풀을 묶게 하면 모시를 매길 때(짓바르기) 올끼리 서로 잘 붙기 쉬우며 보풀(망우래기)이나 잔가닥(꼬령)<sup>63)</sup>이 생기기 쉽다.

콩풀을 깎 때 사용하는 소금의 역할은 공기 중의 습도와 관계가 깊어서 모시를 매는 계절에 따라 소금의 양은 다르다. 즉 습기가 없는 겨울철 건조기에는 소금의 양이 많이 필요하고 습기가 많은 여름 우기 철에는 소금을 적게 넣고 사용한다. 이것은 소금이 가지고 있는 삼투압의 작용으로 공기중의 수분기를 빨아들여서 모시올에 습기를 적당한 상태로 잘 보습하게 함으로서 모시를 짤 때 실이 잘 끊어지지 않게 하고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다. 콩풀의 분량 또한 굵은 모시에 매길 경우는 그 양을 많이 사용하고 가늘고 섬세한 모시를 짤 경우에는 분량을 적게 사용해야 한다.



사진가. 매기솔

콩풀을 매는데 필요한 매기솔은 산에서 나는 솔뿌리를 캐서 만든 것을 사용한다. 솔뿌리는 표준어로 속새풀뿌리가 아닌가 생각되며 이것은 한산 지역의 낮은 산기슭에 흔히 보이는 풀이다. 키가 약 50~60cm정도에 이르

고 그 모양새는 잎이 작고 부드러우며 눈에서 나는 피처럼 생긴 것인데 매기솔을 만들 때는 솔뿌리를 산에서 캐다가 깨끗이 씻어서 말린 다음 그 뿌리를 절구통 같은 거친 면에 대고 곱게 문지른 후 손으로 비벼서 그 잔털을 털어내고 속껍질만 추려서 엮어 만든다. 그리고 매기솔을 묶는 끈은 조선 소나무뿌리를 물에 담구어 잘 불린 다음 칼로 얇고 매끈하게 길게 쪼개어 손질한 뒤 이 소나무 껍질 끈으로 매기솔의 윗부분을 칭칭 돌려 감아 만든 것이다.

63) 고르게 삼지 못해서 생기는 잔가닥

#### (4) 매기

이제 매기를 위한 사전 준비로써 바디살에 낄실이 모두 끼워지고 젓불이 지퍼져서 모시매기에 알맞은 온도가 유지되면 개어둔 콩풀과 매기술, 그리고 매기에 필요한 모든 도구들을 준비한다. 모시를 매기 위해서는 넓은 마당이 필요하고 역시 햇볕을 등지고 매는 것이 좋다. 매기를 할 공간이 정해지면 낄실을 고정할 도투마리와 그 도투마리를 엮기 위한 맬틀(들말), 그리고 반대쪽에 낄실이 팽팽하게 유지되도록 거리를 두고 낄실의 끝을 고정할 끌개를 마당 저 만큼 떨어진 위치에 놓아둔다.

그리고 매기를 한 후 낄실을 도투마리에 말아 감을 때 낄실과 낄실 사이 사이에 모시올이 서로 붙지 않도록 끼워 줄 뱃대(배대이)와 매기 도중에 실이 끊어지면 서로 이어 줄 모시실과 풀 솜(명주솜) 등도 준비한다.

모시 매기에 필요한 인원수는 3명 정도이며 매기에 소요되는 시간은 모시 올의 품질에 따라 다른데 대개 잔가닥(ㄷ렁)이 없고 모시질이 좋은 것은 2~3시간 정도 소요되며 매기가 나쁜 것은 4~5시간이나 소요된다.

##### ① 맬틀과 끌개의 위치설정

맬틀의 위치는 왕겨불을 지퍼 둔 바로 앞 쪽에 약간의 거리를 두고 놓고 반대편에는 끌개를 놓되 맬틀과 약 18자 정도 거리에 두는데 이는 모시 반 필의 위치가 된다. 마당이 좁을 경우에는 길이를 더 짧게 해도 상관이 없다. 맬틀과 끌개 위에는 각각 큰 돌맹이를 얹어서 움직이지 않게 고정한다.

##### ② 도투마리에 낄실 고정하기

맬틀의 위치가 설정되면 바디에 끼워 둔 낄실을 조심스레 펴서 낄실의 맨 마지막에 끼워 두었던 걸막대(질망대)를 도투마리 앞 쪽에 있는 가로대에 걸어서 낄실의 한쪽 끝을 잘 고정해 준 뒤, 도투마리를 맬틀 위에 올린다.



사진72. 도투마리에 걸막대 고정하기



사진73. 맬틀에 도투마리 얹기

### ③ 끌개(끄시랑코)에 고정하기

날실의 한 쪽 끝이 맬 틀에 고정되면 나머지 한 쪽 끝은 반대편에 놓여진 끌개에 고정시켜서 날 올들이 서로 팽팽하게 잘 유지 되도록 한다. 모시 한 필 36자인 경우 그 중간지점인 18자 되는 곳에 끌개를 놓고 모시 갖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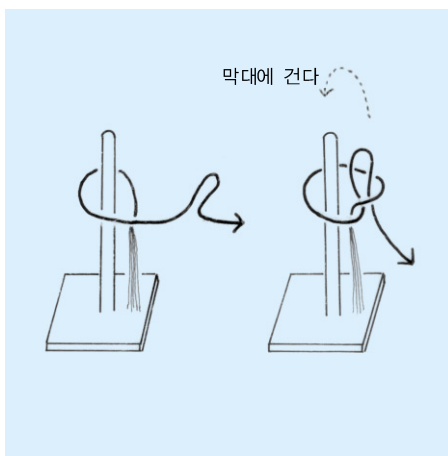


사진74. 골개에 고 걸기

의 고를 풀어서 적당한 길이가 되면 다시 고를 짓고 그림처럼 끌개에 걸어서 고정한다. 나머지 반은 보자기로 싸서 끌개 아래쪽에 얹어둔다. 만약 마당이 좁아서 매기를 하는 거리가 짧을 경우에는 공간이 확보되는 만큼 거리를 잡아서 끌개의 위치를 정한다.



사진75. 확대도



〈그림 6〉 고를 거는 법

매기를 할 때 날올들은 양 끝이 서로 팽팽하게 잘 고정되어야만 콩풀을 먹일 때 배향을 좋게 하므로 맬틀과 끌개위에는 각각 큰 돌맹이를 얹어서 맬 때 움직이지 않게 단단히 고정해 둔다. 대개 맬틀과 끌개사이의 거리는 약 7m정도이고 벚불과 날실의 간격은 20~30cm정도이며 도투마리와 사침과의 간격은 약 1m 남짓에 이른다.

대략적으로 맬틀과 끌개의 위치가 정해지면 날실의 중간에 묶어 두었던 개새대의 끈을 풀고 개새대를 움직여서 날올 들을 가지런히 펴 준 다음 막대기로 탁탁 들어가며 올들을 바루고 다시 끌개를 움직여서 날올을 팽팽하게 해준다.



사진76. 날을 바루는 모습

#### ④ 모시매기

매기를 하는 이유는 실의 이음새를 매끄럽게 하고 보푸라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날실의 강도와 탄력성을 높여 줌으로써 모시짜기를 할 때 조직을 고르고 탄탄하게 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i) 매기요령

맨 처음 모시매기를 할 때는 사침대와 뒷대 그리고 바디를 최대한 도투마리 쪽으로 모아 붙인 뒤 바디의 앞쪽에서부터 매기를 시작한다. 매기를 하는 위치는 벼 불 위에서 하며 길이는 약 2자 남짓(120~150cm)이른다. 매기를 할 때는 모시 올이 잘 마를 수 있도록 불기운을 조절해 가며 매기를 하는데 콩 풀을 매긴 날들이 벼 불 위에서 적당히 마르게 되면 도투마리에 말아 가면서 매기를 계속 해 나간다.

매기의 요령은 무엇보다도 날의 아래, 위로 콩풀기가 골고루 베여 들도록 하는 것이다. 오른손으로 매기 솔을 잡고 콩 풀을 매기면 왼손은 재





사진77. 매기모습



빠르게 움직여 가며 콩풀이 고루 잘 스며들게 해야한다. 즉 콩풀이 칠해지면 우선 왼손가락으로 날올들을 작은 가락을 만들어 쥐고 아래로 빗질하듯 하여 콩 풀이 올과 올 사이에 잘 스며들게 한다. 그 다음 왼손바닥을 날실의 아래쪽에 바쳐서 오른손으로 매기솔을 잡고 날올들이 하나 하나씩 올이 분리되도록 여러번 매기를 해 준다. 그런 다음에 조심스럽게 바디를 앞으로 옮겨 주어서 날올들을 빗질하고 사침대를 앞으로 움직여서 자리를 옮긴 뒤에 다시 매기를 반복해 간다.



사진78. 매기따정 ① : 콩풀 묻히기



사진79. 매기따정 ② : 솔질하기



사진80. 바디와 사침이 걸린 상태정면



사진81. 바디와 사침이 걸린 상태측면

콩풀의 농도는 농도가 너무 되면 모시올들이 서로 붙게 되어 날을들을 서로 분리하기가 힘들고 너무 묽으면 쉬이 마르지 않아서 모시올들이 서로 엉겨 붙기 쉬울 뿐 아니라 이어준 모시의 잔가닥이 매끈하게 잘 처리되지 못한다.

모시 매기를 할 때는 오른편에 항상 콩풀 소래기와 물소래기를 놓고 필요 시 사용하는데 날올의 상태를 보아서 마른 상태이면 매기 솔에 먼저 물을 묻혀서 수분을 준 뒤에 콩풀을 발라야 콩풀이 고루 잘 먹여진다. 그리고 벼 불이 너무 강하면(싸면) 날올들이 서로 빨리 건조되어 버리므로 바디와 사침대를 이동시킬 때 힘이 들고 말라붙은 날실을 바디 살로 빗질하기가 힘

들게 되므로 매기 도중에 불기운을 잘 다스려 가면서 매어야 한다.

또 매기과정은 옛날에는 밖에서 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바깥의 날씨나 모시의 질에 따라 매기를 하는 시간에 많은 차이가 있다. 또 매기를 할 때 전해 내려온 속담으로 모시를 날 때 날실 위를 넘어 다니는 것을 금기시 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모시짜기 과정에서 매기 작업의 중요성과 정성을 알 수 있는 풍습이었다.

모시매기를 할 때 필요한 인원은 기본적으로 3명 정도의 일손이 필요하다. 즉 매는 사람과 반대편에서 모시 매는 일을 함께 도우며 서로 바디를 잡고 앞으로 옮겨주는 사람, 그리고 개새대가 있는 곳 쪽에 앉아서 실 잇는 일을 도우거나 잔가락을 정리하고 도투마리에 실을 감을 때 뱃대를 넣어서 감아 주는 사람 등이다.

이곳 한산지역 여인네들은 옛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협동정신을 서로 잘 계승하여 왔으며 이들은 서로 어느 집에서 언제 모시 매기를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른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서로 함께 도와 가며 공동작업으로 매기작업을 해 오고 있다. 서로 서로를 도와가면서 일의 효율성을 높히고 함께 하는 협동심과 단결력을 키워 온 것은 비단 모시짜기의 기술적인 문화의 계승 뿐 만 아니라 한산지역의 인심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정신적인 문화 유산이었다. 평생을 모시짜기로 인생을 바친 두 보유자의 소박하고 담담한 모습, 그리고 남다른 인내심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등은 그들만이 가진 특별한 성품이 아닌 이 지역 대다수 여인들의 모습이었다.

## ii) 실 잇기

매기도중에 실이 끊어질 경우에는 따로 준비해 둔 모시실을 뽑아서 끊어진 곳에 대고 이은 후에 풀솜으로 감아서 처리를 한 후 아래쪽으로 실 끝을 넘겨서 이어 붙이고 콩풀을 매겨서 실끝처리를 해 준다. 이때 사용하는 풀

솜과 잇는 실 등은 사침대 끈 사이에 끼워두거나 개새대 뒷편에 있는 날실 위에 얹어 두어서 팔이 쉽게 닿도록 한다. 또한 개새대와 바디의 거리는 날실의 상태가 좋을 땐 많이 떨어져도 괜찮으나 날올의 상태가 좋지 못하여 실이 자주 끊어질 경우에는 서로 가까이 있어야 올을 찾기가 쉽다.

### iii) 도투마리에 감기

모시매기를 2자 남짓하게 되면 매기를 마친 모시 올은 벅불 위에서 적당히 마르게 되어 이들을 도투마리에 감아 주어야 한다. 도투마리에 실을 감아 줄 때는 날실의 중간 중간에 가는 대나무 막대기인 뱀대를 도투마리에 걸린 날올 사이사이에 끼워 넣고 날실을 감아 간다. 이때 도투마리를 한 번 감을 때마다 반대편에 매어 둔 꼬시랑코는 계속 앞으로 끌려 오게 된다.



사진82 도투마리에 감기

한산지역에서 사용하는 도투마리는 중심부분을 미리 나무로 짜 두었으며, 뱀대 또한 대나무를 둘로 쪼개지 않은 원통형이다. 때문에 맨 처음의 날올은 도투마리를 들어 올려서 두 서너번 말아서 감아 준 뒤에 중간 중간에 뱀대를 끼워가며 날올이 서로 닿지 않도록 감아간다. 처음에는 굵기가 굵은 뱀대를 사용하다가 나중에 도투마리의 크기가 점점 커지게 되면 굵기가 작은 뱀대를 사용하는데 모시 한 필을 매는 데 필요한 뱀대의 수는 약



30여 개 이상 소요된다.

이 같은 요령으로 매기를 반복해 가다보면 날기를 할 때 표를 해 둔 중간 지점의 개미표시 점까지 매기가 끝나고 저 만큼 떨어져 있던 끝개는 어느 듯 벚불 바로 앞에까지 끌려 와 있게 된다. 끝개 위에 얹어 둔 나머지 날실을 풀어서 끝개에 다시 고정시키기 위해 당겨 온 끝개를 다시 마당 저편으로 옮겨 놓은 다음 날실의 끝을 고를 맨 뒤 끝개에 고정하고 계속 매기를 해 나간다.

#### iv) 자르기

매기 과정이 거의 끝날 즈음에 이르면 매기 끝 부위로부터 50~60cm 쯤 되는 지점에서 모심을 찾기 위해 끼워둔 개새 대를 빼내고 마지막까지 매기를 해준다.

그리고 끝개에 고정된 날실의 끝 부위 약 20cm정도는 매기를 잘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남겨두고 가위로 날실을 잘라 주는데 가위로 자를 때는 앞쪽의 날실을 잘 잡아 쥐고 잘라 주어야만 날 올의 간격이 고르게 된다.



사진83. 가위로 자르기

### v) 끝처리

가위로 잘라낸 날실은 끝을 4등분하여 나누어 잡고 각 1/4 등분씩 매기 솔로 각 실 끝을 잘 매어 준 다음 한 묶음씩 가지런히 잘 묶어준다. 그 다음 사올과 잉아올 사이를 벌려서 걸막대를 끼워준다. 이 때 걸막대의 중간에다 흰 끈으로 고정용 띠를 만들어 끝개에 고정한 후 4등분한 날실들을 각각 묶어 주면 작업하기가 쉽다.



실 끝처리 확대도



사진B4 실 끝처리하기



사진B5 매기 마지막 상태

## 5. 모시짜기

### 1) 도구 및 명칭

〈표 14〉 모시짜기 도구 (기본도구)

명칭		내 용	타 지역어
표준어 (지역어)	크기(cm) L/W/H		
누운다리	190	베틀을 수평으로 지탱하는 버팀목으로 앞은 높고 뒤는 낮게 되어 있다.	베틀다리
채머리	37	선다리 뒷쪽에 있는 누운다리로 도투마리를 엮도록 한 지지대	
선다리(앞다리)	102	베틀을 수직으로 지탱하는 버팀목이며 위에는 용두머리가 가로로 놓여 있다.	
뒷다리	19	베틀 뒤를 버티는 짧은 다리로 뒷가둥이라고도 한다. 여기에 앉을개를 걸쳐 놓는다.	
앉을개	25내외×62	베틀 뒷자리 위에 걸쳐 사람이 앉아서 직물을 짤 수 있도록 한 판대기이다.	
가로대 (가로목)	78	베틀다리 곧 누운다리 두 사이에 가로지른 나무이다. 보통 한 개로 되어 있으나 큰 베틀은 두 개로 되어 있는 것도 있다. 이것이 베틀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베틀신대	100	베틀 신 끝에 달려서 잉아대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나무 막대	신나무
용두머리	8×79	베틀 선다리 위쪽에 가로로 놓여 있으며 중간과 가장자리에 홈을 파서 쇠꼬리와 눈썹대를 끼우도록 된 나무이다.	
눈썹대	78	용두머리 양끝에 달린 긴 막대로 끝에는 눈썹끈이 달려 있어 잉아대와 연결하여 잉아대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역할을 함	
눈썹노리	-	눈썹대의 끝 부분으로 눈썹줄이 달려 있다.	
눈썹끈	15~25	눈썹머리 맨 끝에 달린 끈으로 잉아대를 때 달아주는 역할	
누름대	70	잉아대 바로 뒤쪽에 가로로 사울을 아래로 눌러 주는 막대기로 사울이 치켜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역할	
부테허리	6×50	모시를 짤 때 허리 뒤에 치는 쇠가죽으로 만든 허리띠로 양쪽 끝에는 길이 약 25cm 정도의 끈이 달려 있어 낄실을 감은 말코의 양 쪽 끝에다 끈을 감아 길이를 조절하고 낄실을 팽팽하게 지탱시키는 역할을 한다.	
베틀신	-	베틀 짜는 사람이 오른 발에 신는 짚신으로 끝에는 베틀신끈이 달려 있다. 짜는 사람이 발을 앞으로 당기고 놓고 함에 따라 이 끈은 베틀신대로 연결되어 눈썹대를 움직여서 잉아대를 들었다 놓았다 하는 역할을 한다.	끝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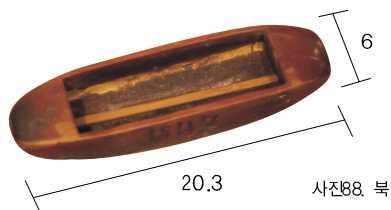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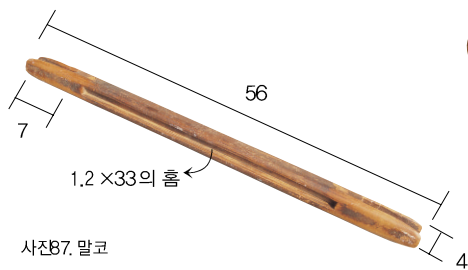
〈표 15〉 모시짜기 도구 (배틀 부품)

	명칭		내 용	타 지역어
	표준어 (지역어)	크기(cm) L/W/H		
날 실 용 부 품	도투마리	94.5×25	날실을 감아 두는 틀	
	비경이	50×33×23	잉아올과 사올을 벌려주며 복실이 잘 통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는 역할	비게미 베게미 벙어리
	벵대	2.5×33	도투마리에 날실을 감을 때 날 올들이 서로 붙지 못하도록 함. 매기를 할 때 날실의 중간 중간에 끼워 넣는 직경 2~3cm 정도의 통으로 잘라서 만든 대나무 막대기	베댕이
	바디	38×8	베의 날을 고르게 하여 복의 통로를 만들어 주고 씨실을 앞으로 쳐서 씨율이 백이게 한다. 가는 대가비로 만들어 졌으며 모시의 승수에 따라 바디살의 수가 다르다. 바디의 양 끝에는 굵은 무명실로 단단하게 감아서 처리하였으며 모시의 경우는 검은색을 쓰면 좋다.	
	잉아대	1.5×62	잉아대는 잉아실을 거는 상하 잉아대와 잉아속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잉아올을 걸어 올리는 역할을 한다.	잉에대
	사침대	56×0.7	잉아올과 사올을 구분하여 참새 사이를 가로로 꽂아준 대나무 막대	
	밀침대	2×70	베를 짤 때 앞이 차면 날줄을 풀기 위해 도투마리를 밀어 넘기는 긴 막대이다.	다올래, 밀대
	바디집	51.5×14	잉아올과 사올 2올을 한번에 꿰어서 날 올이 통과하게 하며 날을 고르게하고 복의 통로를 만들어준다.	
	말코	5.2×56	짠 천을 말아 감는 대이며 중간에 홈이 있어 베의 끝을 그 속에 넣고 천을 감은 뒤 양 끝에 패인 홈에다 부테허리 끈을 고정하고 날실을 팽팽하므로써 천이 고르게 짜 지게한다.	
씨 실 용 부 품	복	6×20.3	씨실인 실꾸리를 넣고 복 비늘로 고정시켜 바디 바로 앞 날줄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실을 짜는 도구이며 옆에 작은 구멍이 아서 실을 통과시키게 되어 있다. 무명실용 복은 크기가 크고, 모시용 복은 작다.	
	복바늘 (복단계)	0.8×13	복 속에 실꾸리를 넣은 뒤에 실꾸리가 빠져 나오지 않도록 복에다 홈을 약간 파서 양 끝에다 끼워서 씨실을 누르는 대오리이다.	복딱지
기 타	풀솜	-	실을 이어줄 때 연결하는 명주 솜	
	잇기용 실	-	실을 끊어졌을 때 이어주는 모시실	





사진86. 직조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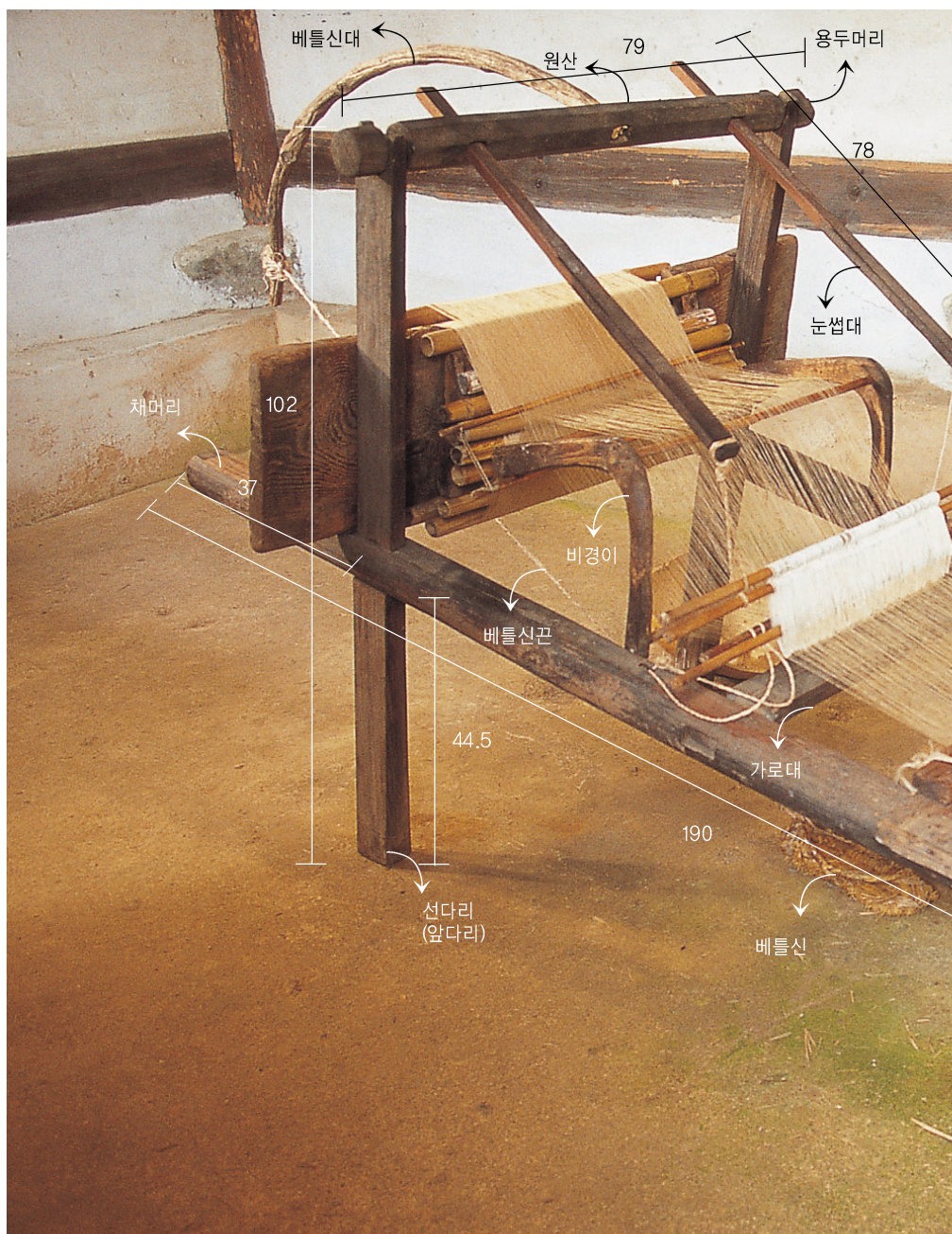


사진89. 직기의 구조





## 2) 제작과정

모시짜기는 짜기를 하는 실내의 습도가 아주 중요하므로 한랭 건조한 겨울에는 모시짜기를 잘 하지 않는다. 실내 공기가 건조하고 차가우면 모시 섬유가 쉽게 부러지게 되어 모시천을 상하게 되므로 모시짜기는 보통 봄부터 초가을까지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모시 짜기가 제일 좋은 계절은 하지를 넘어서 짜는 것이 좋은데 이 시기는 사람에게는 제일 못 견딜 시기이지만 모시실에게는 수분이 공기 중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모시실의 상태가 가장 좋은 적기가 된다.

때문에 옛날에는 모시를 짜는 장소로 특별히 습기가 있는 장소를 택해서 마루장 밑을 파서 짜거나 움집이나 토굴 등에서 모시짜기를 행해 왔다. 또한 짜는 도중에 적절한 습기를 공기 중에 보유하기 위해서 이슬 맞은 풀을 베어서 직기 아래에 두고 짰다고 한다. 오늘날에는 가습기를 이용해서 습기를 유지하고 창문도 비닐로 막아서 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고 짜고 있으며 실내 온도의 조절이 가능하므로 연 중 모시짜기를 할 수 있다.

현재 한산지역에서 제작하고 있는 모시의 폭은 전통베틀에서는 일반적으로 28~36cm에 이른다. 삼국시대로부터 고려시대에 이르는 문헌기록에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폭넓은 모시의 폭은 대개 50cm내외에서 약 60cm내외로 추정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유물은 공개되고 있지 않아서 어느 정도의 광폭모시를 어느 시대까지 짜 왔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 수는 없다. 현재 개량식 베틀에서는 간혹 특수 의뢰에 의해 62cm에 이르는 폭 넓은 모시도 제작하고 있다.

모시의 폭은 옷을 지을 때 입는 사람의 체형과 디자인에 따라서 적당한 천의 폭을 선택해야 하는데 현재는 모시옷의 용도가 대부분 저고리나 치마

감으로 사용되므로 이에 적합한 모시의 폭은 대개 28~36cm 이른다. 조선시대 복식 유물에 보이는 일반적인 직물의 폭은 포(袍)의 경우 약 62~70cm에 이르는 것도 있다. 따라서 문헌에 나타난 광복세포의 모시는 이와 유사한 천의 폭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한산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시 한자의 기준은 54.5cm가 아닌 60cm이다. 모시의 폭과 한 필의 자수는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한산모시는 31cm폭에 한 필이 36자(21.6m)이고 판교 모시는 33cm폭에 40자(24m)가 통용되고 있어 한산 지역을 둘러싼 인근의 모시짜기 지역들은 모시짜기 과정에 있어 각각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모시 한 필을 짜는 데 소요되는 전체시간은 모시베기에서 짜기까지 약 두 달 정도가 소요되며 짜는 데만 약 4~5일이 걸린다고 한다. 이는 전통 직기가 개량식 직기에 비해 모시를 짤 때 바디와 몸과의 사이 간격인 앞길이가 길어서 모시를 짤 때 천이 팽팽하지 못해 능청거리므로 짜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량직기로 짠 모시와 전통직기로 짠 모시를 비교해 보면 전체적인 재질감은 개량모시 쪽이 훨씬 매끄럽고 촘촘하여 탄탄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통직기로 짠 모시가 훨씬 탄력성이 있고 두터워서 오랫동안 입을 수 있다고 한다.

#### (1) 꾸리감기와 씨실만들기

앞서 행한 날기와 매기과정을 통해 모시짜기를 할 때 필요한 경사울인 날실을 만드는 과정을 모두 마쳤다. 이제부터는 모시짜기에 필요한 위사울 즉 씨실이 되는 실꾸리를 만들어서 북집에 끼워 넣는 작업을 해야 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보통 7, 8승 정도의 모시 한 필을 짜는데는 날실로써 모시굿이 10굿 필요하며 씨실에는 꾸리용 모시굿 8굿 정도가 필요하

다. 이것을 실꾸리로 계산하면 모시 한 굵은 실꾸리 약 두 개 정도에 해당 되므로 씨실에 필요한 실꾸리의 수는 모시의 굵고 섬세한 정도에 따라 약 10~16개가 사용된다.

꾸리 감기에 앞서서 필요한 준비물은 소꾸리에 담은 모시굿과 그 위에 뿌려 둘 양대콩이나 감씨 등의 굵은 열매류, 그리고 씨실을 감을 전대(가락)가 필요하다. 전대는 길이가 약 15cm에 직경 약 1.2cm 정도의 가는 대나무로 만든 막대이며 한 쪽 끝에는 깊이 1.5~2cm로 홈을 파서 뾰족하게 두 가닥으로 가락을 낸 막대기이다. 이 갈라진 가락 사이에 모시굿의 실마리를 찾아서 실을 걸어 준 다음 몸체를 모시실로 감아서 꾸리를 만드는데 이 과정을 꾸리감기라 한다.

① 모시짜기용 꾸리는 손으로 꾸린다. 우선 모시굿의 실마리를 찾아서 위로 들어 준 뒤 위에다 강낭콩이나 감씨, 아주까리, 울무, 보리 등의 꾸리밥을 끼얹고 실마리를 제자리에 놓는다. 이것은 실꾸리를 감을 때 실이 풀려 나오면서 서로 엉키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진90. 꾸리밥과 실 감기

② 모시굿으로부터 실마리를 찾아서 침을 적당히 바른 후 왼손에 전대(가락)를 들고 오른손으로 실 끝을 접어서 링을 만들어 전대의 윗쪽에 있는 두 개의 가락사이에 걸어 준다. 이



사진91. 전대에 실고리 감기

것은 나중에 실을 모두 다 감았을 때 실 꾸리의 첫 끝이 되는 부위로 실 끝을 쉽게 찾아서 빼내도록 하기 위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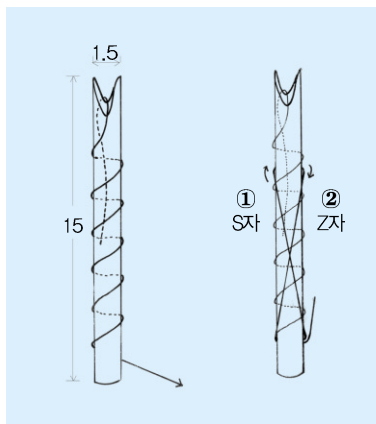
③ 전대의 중간 몸체에다 처음의 실 끝이 감추어지게 실을 시계방향으로 돌려 가며 감아준다.

④ 4~5cm 정도의 폭으로 전대의 몸체 중간에 실이 감겨지면 이제부터는 전대의 위쪽과 아래쪽을 서로 교차시키는 요령으로 실을 걸어 준다. 즉 전대의 위쪽으로 실을 걸어 줄 때는 S자형(앞에서 뒤방향)으로 실을 걸어 주고 전대의 아래쪽으로 실을 걸어 줄 때는 Z자형(뒤에서 앞으로)으로 실을 감아 올려서 다시 S자형과 Z자형 감기를 계속 반복한다.

이 때 전대를 잡은 왼손은 전대의 중간을 잡아주어서 전대의 아래위로 힘이 균등하게 유지 되도록 하며 오른손이 실감기를 하는 동안 왼손도 역시 시계방향으로 전대를 조금씩 돌려주어야만 몸체의 아래위로 실이 고르게 감긴다. 만약에 왼손으로 전대를 돌려주지 않으면 한 쪽으로 배



사진92 실돌려 감기



〈그림 7〉 실꾸리 감기 과정 도해



사진93 Z자로 돌려감기



가 불룩하게 튀어 나와서(지게구리가 진다) 북집에 씨실을 넣을 때 좋지 않다.



사진94 실꾸리 단계별 모습

⑤ 이렇게 실을 다 감아서 실꾸리의 크기가 북집에 들어 갈 정도의 크기로 완성이 되면 실꾸리의 위 부분을 시계 방향으로 수평되게 몇 회를 돌려 감아 준 뒤에 Z자형으로 실을 아래쪽으로 감아 내려서 역시 수평으로 몇 번을 감아 준다.

그 다음 다시 S자의 역방향으로 실을 감아서 꾸리의 중간쯤에서 시계방향으로 몇 회를 돌려 감고는 마지막 실 끝을 꼬아서 안쪽으로 보이지 않게 잘 정리해준다. 이러한 작업은 씨실을 북집에 넣고 짤 때에 실이 실꾸리의 안쪽으로부터 풀려져 나오므로 실꾸리의 아래, 위쪽과 중간 부위를 잘 감아서 마무리를 단단히 하여 씨실이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⑥ 다 감은 실꾸리는 안쪽의 전대를 조심스럽게 빼내고 첫 실의 고가 빠져 나오지 않도록 주의한 뒤 물에 1시간 이상 담구어 둔다.

⑦ 수분을 충분히 흡수한 꾸리 실은 실꾸리 안쪽에 있는 고를 찾아서 첫

실가닥을 뽑아 내고 젖은 모시나 대나무 잎으로 싸서 모시가 건조하지 않도록 한 다음 북집에 넣고 북바늘(북단게)로 중간을 고정해서 씨실이 움직이지 않게 한다. 그 다음 북집의 옆면에 뚫려 있는 작은 구멍사이로 씨실을 통과시켜 씨실(위사)을 만든다.



사진95. 물에 담군 씨실



사진96. 북집에 씨실끼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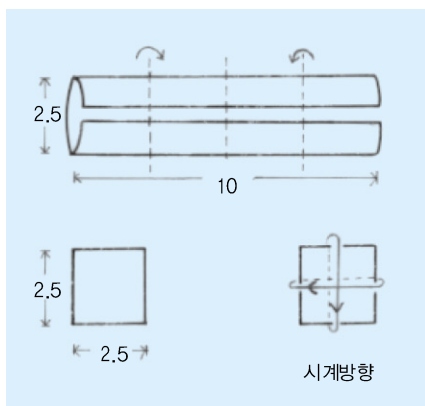
## (2) 잉아실 만들기

씨실이 준비되면 이번에는 잉아울을 걸어 줄 잉아실을 만들어야 한다. 잉아실은 30번이나 40번 정도의 굵은 면사를 탁구공 크기만큼 동그랴게 감아 준 뒤 이것을 콩풀이 담긴 작은 그릇에 집어넣어서 콩풀을 입힌다. 그 다음 이를 넓은 체반위에다 고르게 편 뒤에 잘 말려서 다시 실을 감은 후 잉아실을 걸 때 사용한다.

이같이 잉아실에 콩풀을 먹이는 이유는 잉아실을 단단하고 매끈하게 해서 날실이 걸려 올라오지 않게 함으로써 날실이 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① 잉아실 감기 : 잘 말린 잉아실은 그림과 같이 잉아실을 감아 간다.

두 사람이 마주앉아 한사람은 타래실을 양손에 벌려서 잡고 한 사람은 뿔뿔한 종이를 가로 세로의 크기가 약 2.5cm정도 되게 그림과 같이 사각으로 접어서 실감



〈그림 8〉 잉아실 타래용 종이접기와 감기

개를 만든 뒤 그 위에 +자형으로 잉아실을 몇 회 감은 다음 실의 두께가 0.3cm정도에 이르면 방사선으로 골고루 돌려 감아서 직경 약 4cm정도의 탁구공만큼 되게 감아둔다.

② 다 감은 잉아실은 콩풀을 먹여서 실을 튼튼하게 해 주어야 한다. 잉아실에 풀을 먹일 때는 풀먹인 잉아실을 담은 채반은 왼쪽에 두고 콩풀은 오른쪽에 둔 뒤 감아놓은 잉아실 뭉치를 콩풀 그릇에 담근다. 그 다음 왼손으로 실오라기의 끝을 쥐고 오른손 엄지와 검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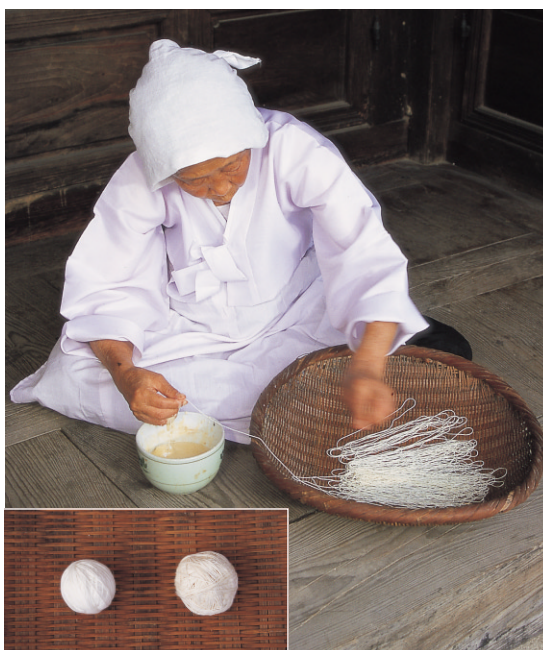


사진98 콩풀 먹이기 전후의 잉아실비교

사진97. 잉아실 콩풀먹이기

떨러오는 여분의 콩풀을 받아내면서 실을 풀어 내어서 이를 왼쪽에 놓인 채반 위에다 20~30cm길이로 나란히 넓게 펴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말린다.

③ 건조된 잉아실은 처음과 같이 둥글게 다시 감아 두되 마지막 실 끝 부위 50~60cm정도는 중간을 접어서 고리를 만들어 묶어 두어서 맨 처음 잉아대에 실을 걸 때 잉아대에 건 실의 끝처리가 깔끔하게 되도록 한다.

### (3) 모시 짜기

#### ① 베틀에 날실 얹기

매기를 마친 날실은 도투마리에 그대로 감아서 베틀이 놓여져 있는 움막으로 가져간다. 우선 베틀의 뒷편에 있는 선다리 앞쪽의 채다리 위에다 도투마리를 얹어 놓는다. 그 다음 날실을 앞을개까지 풀어서 당겨 놓은 뒤



사진99. 베틀에 얹기

앞을개에 앉아서 부테 허리를 차고 날실의 끝에 걸려 있는 걸막대의 양끝에다 부테 허리끈을 걸어서 대략적인 길이를 맞춘다. 그 다음 앞에 놓인 사침대를 조심스럽게 잘 움직여서 풀어진 날실의 중간쯤까지 이동시켜 놓은 뒤에 부테 허리끈을 풀고 일어나서 날실의 실 끝을 잘 감아서 아래쪽에 내려놓는다.

## ② 잉아실 걸기

모시짜기 과정에서 잉아올 걸기는 사침대로 구분되어 있는 잉아올과 사올의 사이 간격을 넓혀주고 씨실이 통과 할 때마다 잉아올을 아래 위로 서로 교차시켜 가며 평직으로 천을 짜기 위해 잉아올을 잉아실에 걸어서 베틀 위에 걸린 눈썹대 위에다 높게 걸어 주는 것이다.

높게 걸려져 있는 잉아올은 보유자가 모시짜기를 할 때 끝신을 앞으로 당기면 눈썹대가 위로 치켜 올라가고 걸어 둔 잉아올도 함께 위로 올라가 사올과 교차된다.

이 때 교차되어진 바다 앞쪽의 공간사이로 복집을 통과시켜 씨실을 넣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 새로운 씨실을 넣기 위해서 끝신을 뒤로 놓아주면 이제는 눈썹대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잉아올과 사올은 서로 반대의 위치로 교차되게 되며 새로 만들어진 공간 사이로 두 번째의 씨실이 통과되어 천이 평직으로 짜지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잉아실 걸기는 짜기 과정에서 주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잉아실을 걸어주는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전통베틀에서 천이 짜여지는 기본 원리는 아주 쉽게 이해가 된다.

잉아실을 걸기 위한 세부적인 작업과정은 다음과 같다.

잉아실을 거는  
잉아대는 길이  
62cm에 직경 약  
1.5cm 정도의 대나  
무 막대이다. 먼저  
짚 뭉치를 가지고  
또아리를 틀어서  
한번 엮어 준 뒤에  
뭉쳐진 짚 속에 두  
개의 잉아대를 가  
지고 잉아대의 한  
쪽 끝을 서로 교차  
되도록 꽂아 넣어  
서 나머지 한 쪽 끝  
이 V자가 되도록  
벌어지게 한다. 그  
다음 왼손으로 벌  
어진 잉아대의 끝



사진00. 잉아대 한 쪽 고정하기



사진01. 잉아대를 잡아챌 모습

을 손바닥 나비만큼 벌려서 잡고 오른손으로 잉아실 걸기를 한다.

잉아실을 걸 때는 굵은 면사로 된 잉아실로 두 개의 잉아대를 이용해서  
걸어 주는데 사울은 그냥 두고 잉아올만 잡아서 아래 쪽 잉아대에다 걸어  
나간다. 이 때 맨 처음 잉아실의 실 끝은 미리 고가 지어져 있으므로 고를  
바로 잉아대에 걸어 준 뒤 한 두 번 정도 잉아대의 아래 위로 잉아실을 걸  
어주면 처음은 두 겹이 되나 고를 매어 둔 매듭을 지나게 되면 잉아실은  
한 겹이 되어서 잉아실의 처음 실 끝처리가 깨끗하게 된다.





사진02. 잉아실 걸기 (시작부분)

처음 몇 회는 잉아올을 걸지 않고 잉아실로만 잉아대의 아래 위를 8자형으로 교차시켜 나가다가 잉아올을 잡아서 잉아실에 걸어 나가는데 사침대의 아래쪽에 있는 잉아올만 잉아실로 걸어서 잉아대에 걸어준다. 즉 사침대에 걸린 날실은 잉아올과 사올이 서로 X자가 되게 교차되어 걸려 있는데 잉아올은 사침대의 아래쪽에 있고 사올은 위쪽에 있다. 때문에 사침대의 아랫 쪽에 걸려 있는 잉아올만 잡아서 잉아대에 걸어 주면 사올은 그냥 허공에 걸려 있는 상태가 된다.



사진03. 잉아실 찾기



사진04. 잉아올 걸기(측면)





사진05. 실돌려 감기(8자형)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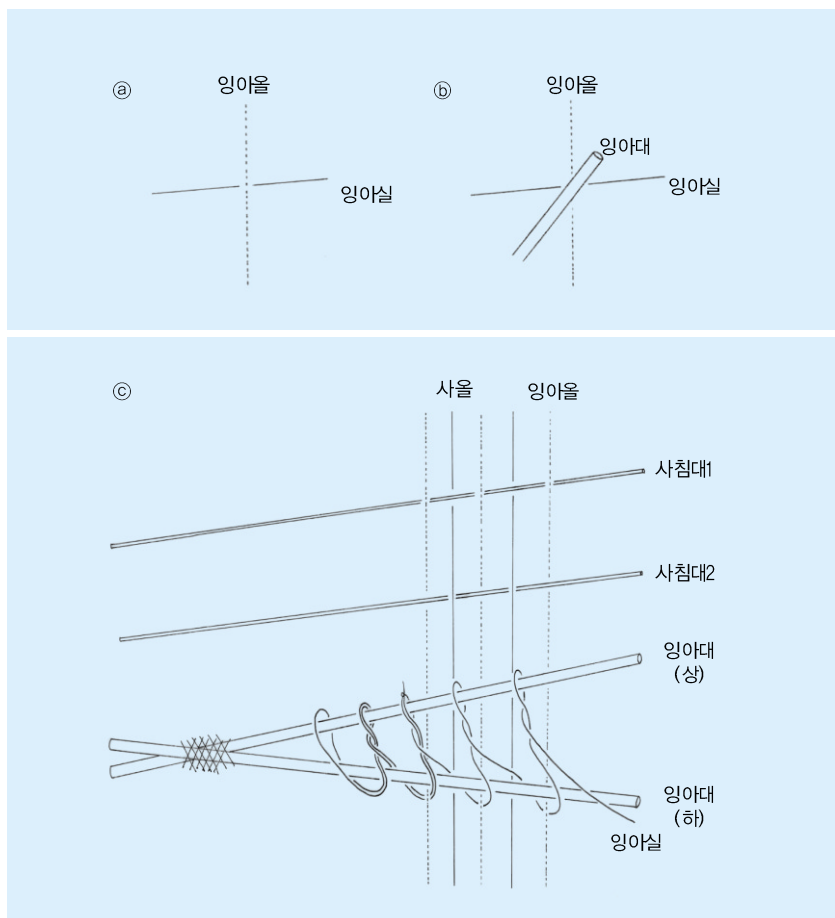


사진06. 실돌려 감기(8자형)②



사진07. 잉아실이 걸린 모습(후면에서 본 상태)

잉아대의 상하 간격은 12~13cm정도로 왼손 아귀에 잡히는 간격이며 잉아실을 잉아대의 아래 위로 8자형이 되게 그림과 같이 오른손 검지로 꼬아서 위쪽의 잉아대에 걸어간다. 이 때 식서 쪽은 바디에 끼울 때부터 미리 두 올 단위로 꿰어진 잉아울을 두올 그대로 끼워 주며 잉아실도 두 서너번 더 걸어주어서 가장자리 쪽 식서를 튼튼히 해준다.



〈그림 9〉 잉아실 걸기 도해

iii) 잉아실의 마지막 부분은 처음과 같이 몇 회 더 감아 준 뒤 잉아대의 한 쪽 끝에 고정되어 있던 짚 뭉치를 빼내고 잉아 실이 아래위로 팽팽하게 유지 되도록 잉아 대를 상하로 움직여서 정리해 준다.

방연옥 보유자의 경쾌한 잉아실 걸기의 손놀림은 순식간에 하얀 잉아실이 걸린 잉아대를 만들어 내고 베틀의 중간을 장식함으로써 본격적인 모시 짜기 과정으로 들어가는 준비작업을 마쳤다.

### ③ 부테허리 차기

잉아올을 거는 과정이 끝나면 바닥에 내려두었던 날실의 끝을 집어 들고 다시 앞을개에 얹는다. 부테허리를 허리에 두른 다음 날실의 끝에 끼워 둔 걸막대의 양끝에다 부테허리의 양끝에 달린 끈을 감아서 날실을 팽팽하게 조여준다. 그 다음 왼손은 위쪽 잉아대를 쥐고 오른손으로 아래쪽에 있는 잉아대를 상하로 움직여 가며 탁탁 두드리 주어서 잉아실이 고르고 팽팽하게 되도록 한 후 사침대를 뒤쪽으로 더 밀어 주어서 잉아대와의 간격을 넓힌다.



사진08. 사침대 뒤로 보내기

그 다음 잉아대 바로 뒷편, 잉아올과 사올을 사이에 잉아 뒷대(나중에 잉아속대가 됨)를 끼워 넣고 대의 양끝을 베틀의 위쪽에 달린 눈썹끈에 매달아 주어서 잉아올과 사올 사이의 간격을 벌려준다. 이 때 위로 치켜 올라간 날실은 사올이 되고 아래쪽에 있는 날실은 잉아올이 되는데 이는 사올이 사침대 위에 있기 때문이다. 잉아올은 아직 잉아대를 걸지 않은 상태이므로 여전히 아래 쪽에 위치한다.

#### ④ 비경이(빙어리) 끼우기

잉아뒗대(잉아속대)가 눈썹노리에 의해 위로 당겨 올라가면서 사올들이 치켜 올라가면 아래쪽의 잉아올로 된 날실 위에 또 하나의 속대를 넣어서 아래로 눌러주고 맞은 편에 있는 사람이 넓게 벌어진 공간에 세 개의 가로대로 만들어진 삼각형 기둥 형태의 커다란 비경이를 조심스럽게 끼워 넣는다.

이때 비경이의 아래 면에 있는 한쪽 가로대는 사침대 중간에 걸리게 하고 나머지 한쪽의 가로대는 잉아대 바로 뒷 쪽의 잉아올로 된 날실을 누르게 되고 나머지 위쪽에 있는 가로대는 사올인 날실에 닿게 된다. 그리하여 비경이 두께만큼의 공간이 잉아대 뒗쪽에 만들어지게 되며 바디 앞쪽에도 역시 씨실을 담은 복집이 잘 통과할 만한 공간이 확보된다. 비경이가 끼워지면 비경이 아래쪽의 잉아올을 누르기 위해 끼워 두었던 속대는 빼 낸다.



사진 09. 비경이 넣기

## IV. 모시 표백과정

### 1. 표백하기

#### 1) 도구 및 명칭

〈표 17〉 모시표백 도구

명칭		내 용	타 지역어
표준어	크기(cm) 직경/L		
시루	직경 약 50cm 내외	젓물을 내리기 위하여 벗짚과 콩대 등을 깔고 그 위에 재를 담아서 젓물을 받아내리기 위해 밑바닥에 구멍이 뚫린 용기.	
자배기	직경 약 50cm 내외	직경 약 50cm내외의 용기로 젓물을 받아서 담는 용기.	
챗다리	길이 약 60cm 내외	시루를 얹히기 위해 자배기 위에 걸치는 Y자형나무걸이	
대꼬챙이	직경 약 1cm 내외	모시를 말릴 때 땅에다 모시를 고정시키는 대꼬챙이	



## 2) 제작과정

### (1) 잿물내리기

#### ① 콩대 태우기

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베어 둔 마른 콩대 또는 짚재를 태워서 재를 만든다. 분량은 대개 콩대 2가마 정도에 짚재 1/2정도의 비율로 태운다. 모시는 대개 희고 고우므로 콩대 태운 재를 사용하며 콩대 외에도 메밀대나 푸정나무재를 사용하기도 한다. 약간의 불기운이 남아 있는 재를 부삽으로 퍼서 삼태기에 담는다.



사진 24. 잿물내리기 재료



## ② 잿물내리기

자배기 위에 찻다리를 놓고 그 위에 시루를 건 다음 맨 아래 짚재를 깔고 그 위에 마른 콩대를 짚재와 함께 섞어서 물을 축여 잠재운 뒤 콩대 재를 그 위에 넣고 물을 약간씩 뿌려가며 꼭꼭 다져서 수북히 채운다. 콩대는 잿물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게 하고 알카리 성분이 많아 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 위에 찬물 또는 더운물을 부어서 내리는데 더운물로 내리는 것이 좋다고 한다. 재의 양이 많을수록 이같은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걸러낸다. 알카리기가 진한 노르스름한 빛의 잿물을 받아 낼 수 있다.



사진27. 받아 낸 잿물



사진25. 재 넣기



사진26. 잿물내리기 도구

## (2) 표백하기

### ① 콩풀 빼기(짓빼기)

다 짠 모시는 흐르는 물이나 더운물로 대충 행군 뒤에 콩즙을 빼기 위해 잿물에 1~2시간 정도 사려서 담구어 둔다. 그 다음 잿물에서 건져내고, 뒤에 더운물을 끼얹어가며 방망이로 두들겨서 콩즙을 깨끗이 빼 내는데, 이렇게 한 모시를 반제라고 하며 생모시는 이것을 그대로 말려서 손질한 뒤 보관한 것이다. 콩즙을 잘못 빼게 되면 얼룩



사진 28. 콩풀빼기

이 생기고 염색이 잘 되지 않으므로 골고루 잘 빠지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모시를 짠 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콩즙(집)을 뺄수록 콩풀이 잘 빠진다. 콩즙을 문힌 채 보관하여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탕이 난다고 하며 탕 난 모시는 상품가치가 없게 된다.

### ② 찌기

찜 솥에 찌기 전에 물에 추진 모시는 30~40cm 정도의 병풍접기로 잘 사려서 20분~30분 정도 잿물에 담구어서 잿물이 고루 잘 베어 들게 한다. 중간 중간 아래 위의 위치를 바꾸어 가며 뒤적여주되 잿물 속에 포함된 알카리 성분이 모시섬유의 검은 티 등을 균일하게 정련하여 표백이 용

이하도록 한다.

젓물을 묻힌 모시는 증기를 이용하여 찜솥에 찌는데 위가 좁은 형태의 가마솥에 밑이 뚫린 시루를 건 뒤 가마솥과 시루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밀가루를 반죽



사진 29. 찌기

하여 가장자리를 돌려서 막고 모시를 시루에 잘 사려서 찜다. 이 때 증기 유통이 잘 되도록 모시를 사려서 얹히고 중간 중간에 뚜껑을 열어 천을 뒤적여 주어야 얼룩이 생기지 않는다. 대개 찌는 시간은 젓물의 농도에 따라 다르지만 약 2시간 정도 소요되며 찌기 과정을 거친 모시는 남아 있던 풀기가 거의 빠져 나오게 된다.

### ③ 말리기



사진 30. 말리기

다 찌진 모시는 채반에 받쳐서 물로 대충 행군 뒤에 젓물이 약간 묻어 있는 상태에서 잔디밭에서 말린다. 옛날에는 지게로 지어서 산에서 말렸다고 한다.

#### ④ 바래기(물 바램)



사진31. 바래기

물바램은 대개 오전 햇볕에 하는 것이 좋다고 하며 물기가 채 마르기 전의 꾸덕꾸덕한 상태에서 걷어서 흘러가는 냇가에서 하거나 샘에서 물을 길어와서 물바램을 한다. 시냇가가 곁에 없을 경우에는 잔디밭에서 모시를 길게 펴서 물바램을 하였다고 한다.

물 바래기를 할 때는 골고루 햇볕을 받을 수 있도록 표면을 반듯하게 놓고 말려야 하며 바짝 마른 모시는 다시 물을 충분히 적셔서

물바램을 한다. 이같이 말리고 바래는 과정을 수 회 반복하는 동안에 알카리 성분인 잿물은 다 빠져나가게 되어 모시의 빛깔은 점점 새하얗게 바래가고 더욱 멋스러워진다.

생모시를 반쯤 표백한 것을 ‘반저’라 하고 완전히 표백한 것을 ‘백저’라 한다. 반저는 생모시의 연한 갈색에서 미황색을 지닌 색이며, 백저는 눈이 부시게 하얀 모시 본연의 독특한 특성을 가지는 흰색이다.

물과 햇볕에 의해 모시가 하얗게 바래지는 원리는 물바램과 햇볕바램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햇빛의 작용으로 오존과 과산화수소가 발생하여 표백이 되는 것인데, 모시에 긴터(진사미)가 많고 짙은 것은 태모시 때 잘 바래지 않아서라고 한다. 모시를 희게 잘 바래기 위해서는 우선 물이 있는 장소와 모시를 길게 펴서 말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 곳 한산지방에는 예부터 모시표백을 해오던 장소로서 서천에 모시표백을 하는 표백샘이

있었으며 지금은 샘이 논 복판에 메꾸어진 상태였다.

### ⑤ 풀하기

손으로 풀물을 건져 올리면서 농도를 맞춰 나가는데, 조금 끈적임이 느껴질 정도로 물을 탄다. 천을 풀이 담긴 자배기에 차곡차곡 담아 넣고 손으로 잘 주물러 주어 풀이 천에 골고루 스미게 한 후, 어느 정도 풀기가 배이면 천을 꼭 짜준 뒤 마당에서 건조시킨다. 이 때 백저의 양쪽 네 귀퉁이를 팽팽하게 작은 막대기를 꽂아 주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땅에 고정시키는데, 이 같은 작업은 날실과 씨실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한다. 반나절을 넣어놓으면 촉촉하던 풀기가 마르면서 백저의 표면이 고슬고슬해진다.

푸새된 모시는 손질을 할 때 씨실과 날실의 양끝을 팽팽하게 잡아 당겨서 손질을 잘 한 뒤 봉을 이용해서 말거나 그대로 접어서 보관한다. 그 해 옷을 지어 입지 않을 경우는 콩즙(젓)은 뺀 후에 풀을 하지 않고 잘 접어서 보관한다. 염색을 할 경우엔 풀을 하기 전에 해야 하며 모시염색은 쌀겨나 쪽, 그리고 치자나 홍화 염색 등 색이 차분하고 은근한 천연염색을 많이 한다.



## V. 한산모시짜기의 전승현황<sup>66)</sup>

### 1. 보유자 문정옥



사진32 문정옥 보유자

중요무형문화재 제14호 한산모시 짜기 보유자 문정옥(文貞玉)은 1928년 9월 9일 충남 서천군 화양면 완포리 교율마을 302 번지에서 부친 문팔봉과 모친 신순철의 5남 1녀 중 맏딸로 태어났다. 어려서 남동생 하나는 병으로 잃고 5명이 함께 자랐다. 아버지는 3형제였는데 마을에서 “남평(南平) 문씨네 형제, 정말 우애가 좋네”라고 소문날 정도로 의종게 살았다. 그래서 큰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집안 일을 모두 결정하였는데

아이들 교육문제에 있어서도 그리하여 ‘여자아이들은 가르치면 못 쓴다’는 어른들의 편견 때문에 손아래 남동생들은 학교를 다닐 수 있었으나 보유자는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고 집에서 가사 일을 도우며 지냈다.

66) ‘한산모시짜기의 전승현황’은 송민선(문화재청 학예연구관)이 집필하였다.



당시 화양면 교율마을에서는 모시를 많이 짰다. 문씨 집안에서는 백모, 숙모는 모시를 짤 줄 몰랐었고 보유자의 모친[신순철]만 모시를 짰다. 모친 역시 화양면으로 시집오면서 본격적으로 모시를 짰는데 특히 보름새 등 고운 모시(세모시)를 많이 짰다. 당시 모친은 태모시를 사다가 쓰거나 큰 집에서 재배한 태모시를 받아서 짰다.

모든 어머니들이 그렇듯 모친은 보유자를 고명딸로 애지중지 키워 힘든 모시 짜기를 일부러 시키지 않았지만 보유자는 하고 싶은 마음에 모친의 어깨너머로 모시 짜기, 삼기 등을 배웠다. 그때가 초등학교 다닐 나이쯤 되었을 것이라 기억하고 있다. 당시 보유자는 타고난 눈썰미 덕분에 또래들보다 수(繡)도 잘 놓고, 골무도 잘 만들어서 동네 아주머니들로부터 ‘어리디 어린 것이 뭐든 잘 한다’는 칭찬을 많이 들곤 하였는데 모시 짜기 역시 그러했다. 모친이 모시를 짜다가 집안 일을 돌보러 나가서 잠시 베틀을 비우시면 보유자가 몰래 베틀에 올라 모친이 짜던 부분을 이어서 짜곤 하였는데 괜찮게 짰던지 모친은 무어라 다른 말씀이 없으셨다. 지금 생각해 보면 만약 보유자가 짠 부분이 잘못되었더라면 모시 1필을 모두 버리게 되므로 모친이 ‘얘야, 이것 짜지 말거라’ 하고 나무라셨을 터인데 그런 일이 없었던 것을 보면 그때부터 솜씨가 좋았던 모양이다. 그 후 모친께서 모시 짜는 방법을 모두 가르쳐 주셨다. 보유자가 모친이 일러주신대로 모시를 짜서 처음으로 1필을 완성한 것이 16세 때의 일이었다.

21세가 되던 1948년에 한산면에 살던 김기태(金箕泰, 당시 25세)와 혼인하였다. 물론 옛 사람 모두가 그랬듯이 부모님이 짝 지워 준대로 남편을 만났고, 시집오기 전까지 남편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다만 친정 집에서 초례(醺禮)를 치를 때 비로소 얼굴을 볼 수 있었다. 혼례를 치른 후 바로 시댁으로 왔다. 시댁에는 시부모님과 출가 전인 시누이 2명, 시동생

2명이 있었다.

시집 온 얼마 후 남편은 친정 집의 토굴을 보고 와서 벼를 얹힐 토굴을 찼다. 토굴은 반지하로 만들었는데 짚과 진흙과 돌을 섞어 벽체를 발랐다. 그 다음 남의 집 벼를 보고 와서 손수 벼를도 짜 주었다. 그래서 이듬해 봄부터 모시를 짜기 시작하여 첫째(김승영, 1949년 8월생)이 태어나기 전까지 모시를 찼다. 첫째를 낳은 후 산후 조리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한 이레 있다가 바로 모시를 찼는데, 그 때문인지 아니면 평생 습기찬 토굴에서 모시를 찼던 때문인지 늘그막에 몸이 무겁고 허리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다. 그간 보유자가 이용했던 개량 토굴도 남편이 죽기 전(1985년도 사망) 예전의 진흙 토굴을 허물고 목수를 시켜 만든 벽돌 토굴이다. 보유자는 토굴에서만 모시를 짜 왔던 까닭에 오늘날 다른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방모시(방안에서 짜는 모시)는 깔깔하여 할 수가 없었다.<sup>67)</sup>

평생 모시를 짜 왔던 보유자가 잠시 손에서 모시를 놓았던 적이 있었다면 한국전쟁이 일어나서 피난갔던 기간 뿐일 것이다. 두 살 먹은 장남을 안고 친정이 있는 화양면으로 피난을 갔다가 이모님이 계시는 홍산까지 갔었는데 5일 후 한산면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전쟁기간 중에도 모시를 짜서 팔았는데 전쟁통에 한산면에서는 장이 서지 못하고 기산면의 돼지골 솔나무 밑(광암)에서 장이 섰었다.

---

67) 보유자가 모시짜는 장소로 이용하였던 토굴은 바람이 없고 습도가 높아 모시짜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는 현재 방모시를 짜는 곳에서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 분무기로 물을 적셔 가며 모시짜기를 하는 것과 좋은 대비를 이룬다.

\*“지금 보면 벼 찌느라 고생 징그럽게 했네유. 그때는 선풍기가 없었게. 모시 앞으로 땀이 뚝뚝 떨어져유. 지금은 선풍기가 있다만, 땀이 나서 뚝뚝 떨어져도 벼 찌기는 부들거려 좋기는 허. 굴에는 바람 한 점 없고, 궁둥이에는 땀띠 나고, 벼는 바람 있으면 날려서 못 찌나께. 지금에서 말로 하니 그렇지 그 때는 정말 징그러웠으이.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편케 살쥬, 한때 고생하면 한때는 편케 살쥬.”(문정옥 대담, 2003. 9. 20, 한산면 자택)

모시를 짜기 위해서는 원재료인 모시풀이 필요하다. 시택은 가난했던 까닭에 소유한 밭이 없어 모시를 별도로 재배<sup>68)</sup>하지 못했다. 그래서 모시장에서 태모시를 사다<sup>69)</sup> 짜거나 샀모시를 짰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장에서 사온 태모시<sup>70)</sup>를 찢고 삼아주면 보유자는 날고, 매고, 짰다. 모시 매기를 할 때에 간혹 사촌동서가 모시 뒤를 봐주기<sup>71)</sup>도 하였으나 시어머니나 시누이들은 모시를 짜지 못하여 혼자서 힘겹게 짰다. 이전에는 시택에서도 모시를 잘 짜는 사람에게 샀모시를 맡겼었는데 보유자가 시집 온 이후에는 보유자가 다 짜기 때문에 따로 다른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가 없어 마음이 편하다고 시어머니가 기뻐하셨던 모습이 지금도 생각한다. 그때는 무엇보다도 모시를 잘 짜면 며느리를 잘 얻었다고 하였고, 모시를 못 짜면 며느리를 못 들였다고 했을 정도로 모시를 잘 짜는 며느리들이 인기였다. 그런 까닭에 식구들 식사준비나 다른 집안 일들, 들일은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모두 맡아서 하고 보유자는 모시만 짰다. 그러다 보니 친정 교율마을<sup>72)</sup>에 있을 때는 얼마 짜지 않았으나 시집와서는 무척 많은 양의 모시를 짰다.

그 후 보유자는 태모시를 사다 짜는 것 보다 샀모시를 많이 짰다. 모시를 잘 짠다는 소문이 돌면서 먼 곳에서도 모시를 맡기러 오곤 했는데 보통 모시 한 필 가격의 2~3할 정도를 공임<sup>73)</sup>으로 받았다. 샀모시는 동네 사람들이 와서 사정하면 짜 주곤 했는데 샀모시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다 날아 가

68) 모시는 조금 높은 산 중턱쯤에 있는 밭에서 길러야 좋은 태모시를 얻을 수 있다.(문정옥 대담)

69) 당시 태모시는 주로 서천 근방과 전라도에서 재배한 것을 사다가 했다.(문정옥 대담)

70) 태모시 3근에 모시 1필 정도를 팔 수 있다.(문정옥 대담)

71) 모시를 맬 때 모시줄이 떨어지면 계속 이어주는 것을 '베 뒤 봐준다'고 한다.(문정옥 대담)

72) 화양면 교율마을에서는 가는 모시[세모시]를 주로 짰는데, 한산면 지현리에서는 가는 모시가 없어 굵은 모시를 주로 짰다. 가는 모시는 눌러 짜는데 비해 굵은 모시를 탁탁 쳐서 짜기 때문에 처음에는 무척 힘이 들었다.(문정옥 대담)

73) 샀모시의 품값으로 받은 2~3할의 공임은 그 당시 쌀 2말을 팔면 남는 게 없었다.(문정옥 대담)

저오면 제일 어려운 모시 매기와 짜기 과정을 해 주었다. 지금 생각하면 평생동안 모시를 ‘징그러울 정도로’ 많이 짰던 것 같다.

모시 짜기에 좋은 계절은 여름<sup>74)</sup>이다. 특히 하지(夏至)가 제일 적합한 절기였다. 짜는 사람은 땀띠가 나는 등 신체적으로 무척 괴로웠지만 모시는 부들부들하고 끊어지지 않아 일하는데 효율적이었다. 그러나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모시는 쉽게 끊어져서<sup>75)</sup> 짜는데 공이 많이 들었다. 아마도 모시풀이 가지는 특성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모시는 물 없으면 못한다’고 하였다.

모시를 잘 짜기 위해서는 좋은 모시굿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태모시를 짤고 삼아 만든 모시굿의 굵기에 따라 짜는 모시가 세저(細苧)인지 중저(中苧)인지 구분되기 때문이다.<sup>76)</sup> 오늘날 한산지역에서 세저가 생산되지 않는 이유를 예전보다 떨어진 기술력 때문이라고 쉽게 말들 하지만 그 보다는 세저를 짤 수 있는 모시굿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세저용 모시굿이 있다면 장인의 공력이 더 들어가서 힘들 뿐이지 짜던 사람들은 다 짤 수가 있다. 이렇듯 모시 짜기에 있어서 모시굿이 차지하는 중요도를 감안한다면 좋은 모시굿의 구매단가가 많이 올라야 하는데 모시굿을 만들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에 비해 모시굿의 가격이 너무 낮게 매겨지고 있다.

---

74) 모시는 사계절 내내 할 일이 있었다. 지금이야 방모시를 짜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모시를 짜고 있지만, 예전에는 봄부터 가을까지만 모시를 짜고, 한 겨울 서너달은 추위로 인해 짜지 않았다. 모시를 짜지 못하는 공백기에는 모시를 짤고 삼아 준비해 두었다가 음력 2월쯤 되면 5~6월의 모시를 날아 두어 미리 짤 준비를 해두었다. (문정옥 대담)

75) 모시가 끊어지면 ‘풀숨’이라고 해서 무명으로 이어주었는데 무명은 접착이 되면 잘 안 떨어지기 때문에 사용했다. (문정옥 대담)

76) “세저와 중저의 차이는 명주와 인조의 차이이지 명주는 보면 잔잔하고 데가 나고, 인조는 뽕뽕하니 그렇게 비교하면 되유.” (문정옥 대담)

그래서 모시긋 하는 사람들이 세저용 모시긋을 하지 않고, 세저용 모시긋이 없으니 짜는 사람들이 세저를 짜지 못하고 있다.<sup>77)</sup> 더욱이 중저의 경우 2달 정도면 완성품을 만들어낼 수 있으나 세저는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약 3~4달이 걸리므로 2배 정도의 시간과 품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짜는 사람의 감내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한다. 그런데다가 그나마 세저용 모시긋을 하던 노인분들이 연세가 들어가면서 자의반 타의반 일손을 놓고 있어 앞으로 세저를 보는 것 자체가 힘들어질 것 같다.

보유자의 경우 보름새를 많이 짰다. 예전에 짜던 분들은 거의 다 보름새를 했는데 특히 화양면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보름새를 했다. 그러나 지금은 화양면에서도 보름새를 짜는 사람이 없고 대부분 중저를 많이 짰다. 홍산과 판교 쪽에서는 막저를 짰다.

한편 세저가 점점 사라져가는 이유 중 하나가 베틀 때문인 것 같다. 보름새 등 가는 모시는 구 베틀로 짜야 하는데 요사이는 모두 기계베틀을 이용하므로 보름새를 짤 수 없다.

모시 짜기에 있어 좋은 재료를 찾아 쓰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면 모시매기는 모시 짜기 과정 중 가장 힘든 일이었다. 현재 모시매기는 프로판가스를 이용해 불길을 쉽게 조절해 가면서 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한여름에 왕

77) “가늘어 봤자 지금은 중저요. 가는 게 없어요. 지금은 가는 모시가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짜기는 짜야 하고, 노인네들이 없어 가는 모시를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당께. 짜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니고 하는 사람이 없지. 짤고 삼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소리지. 나이가 많아 다 죽었으니까 없지유. 그렇께 그려. 모시타운에 한 사람 있기는 한데...그 사람이 나이가 많은데 70세 이쪽저쪽이라지? 그 사람만 가는 모시를 하대. 그 외에는 없시유. 가늘게 못 해유. 젊은 사람들이 허긴 허간? 가늘게 하기 힘들고, 가늘게 해도 모시긋 값이 있간. 사는 사람이 싸게 살려고 값을 후리니께 힘들고 하니 안 하지. 짜는 사람은 애지건 하면 짜유. 손에 익었으께 보름새를 짤 수 있는데 하는 사람이 없जू. 보름새는 가늘게 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더욱 귀해질거유.”라며 예전에는 모시긋을 가늘게 짤고 삼는 사람이 있어 보름새를 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가늘게 하는 사람이 없어 보름새를 못한다고 증언하였다.(문정옥 대담)

것불을 피워 놓고 매느라 여름이라 덥고, 화기(火氣)가 있어 덥고, 연기가 나서 덥고 그랬다. 모시매기는 보통 2~3명이 함께 작업하는데 보유자는 시누이나 동서의 보조를 받아 매었다. 지금은 비닐하우스나 창고에서 매므로 날씨와 무관하게 작업을 하지만 예전에는 마당이나 헛간에서 했기 때문에 행여 비가 올까 바람이 불까 전전긍긍하면서 매곤 하였다. 이때는 무엇보다 왕겉불의 강약을 조절하여 매기에 알맞은 온도를 맞추는 기술, 모시에 콩풀<sup>78)</sup>을 곁고루 잘 먹이는 기술 등이 중요했는데 이것은 숙련된 장인들만이 할 수 있는 작업으로 샅모시를 짜는 사람들 대부분이 모시매기부터 해 주었던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모시 짜기를 한 지 20여년이 넘자 그 솜씨가 널리 알려지면서 소문을 듣고 외지에서 사람들이 하나 둘 찾아오기 시작했다. 게다가 인덕이 많았던지 현장조사 차 한산 모시장을 방문했던 교수나 학자들이 한산 면사무소에 와서 누가 모시를 잘 짜는 지 소개해 달라고 하면 면사무소 소사가 보유자한테 모셔 오곤 했었다. 문화재관리국 조사단이 한산 모시짜기 지정조사를 위해 면사무소에 왔을 때에도 마침 사무를 보러 면사무소에 들렀던 동네 구장 송모씨가 안내를 자청하여 보유자를 찾아왔다. 조사단은 모시 짜기 전반에 대해 조사해 가더니 1967년 1월 16일 문화재관리국(현 문화재청)으로부터 중요무형문화재 제14호 “한산 모시짜기” 보유자 인정서를 받았다.<sup>79)</sup> 그런 사

78) 모시매기 때 사용하는 생콩을 멧돌에 갈아 곱질은 버리고 알맹이를 뿔아 체로 친 후 고운 것만 골라 소금과 물을 넣어 사용했다고 한다. 지금은 대부분 방앗간에서 콩가루를 내려 하고 있다. (문정옥 대답)

79) 石宙善, 『韓山모시』, 『無形文化財調査報告書 第20號』, 1966. 8에 의해 조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보유자 문정옥의 신상명세는 다음과 같다.

주소 충남 서천군 화양면 완포리

성명 문정옥(김기태 씨 부인) 당 39세

학력 국졸

보유자와의 대담에 의하면 조사 당시에도 한산면 지현리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주소지가 친정인 화양면 완포리로 되어 있는 사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하였다.



유로 구장 송씨의 덕분으로 보유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몇몇 사람들은 서로 자기 덕분에 보유자가 된 것이라고 무척이나 공치사를 하였다.

보유자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신이 “한산 모시짜기”의 보유자가 된 것은 모시 짜기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남들에 비해 빨리 그리고 많이 짜는 기술 때문에 그리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즉, 농촌 마을마다 가마니 짜기가 등장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모두 환금성이 있는 가마니를 짤 때도 고집스럽게 모시만을 짜 왔고, 논밭 일은 못 해도 모시 짜기만은 자신감 있게 해 온 결과,<sup>80)</sup> 모시가 끊어지지 않게 북만 얹전히 왔다갔다 하는 그런 기능을 터득하여 남들이 2필 짤 때 3필 넘게 짤 수 있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한산면은 모시장으로, 화양면은 모시를 많이 짜는 것으로 유명한데 화양면에 모시를 잘 짜는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시를 짜는 사람이 얼마 없어 모시를 맬 때 유난히 힘들었던 지현리의 자신이 보유자가 된 것은 다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보유자는 현재 한산면 지현리에 있는 집에 혼자 살고 있다. 남편인 김기태씨는 20여년 전 당뇨로 고생하다 돌아가시고 자신의 소생인 5남매<sup>81)</sup>는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다.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제대로 못해준 것이 마음에 걸리지만 지금은 저희들끼리 먹고 사는데 걱정은 없는 것 같아 고마울 뿐이다. 딸이나 며느리 등 자손들이 자신의 뒤를 이어 모시 짜기를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는데 아이들은 보유자가 매일 베틀에 올라 고되게 모시 짜는 것을 봐서 그러는지 배우려고 들지 않아 가르치지 못하였다. 아직도 보유자는 마음 한 구석에 어렵고도 어려운 일이지만 인생의 보람이 되었던 모시 짜기 솜씨를 딸과 며느리에게 물

80) “그래서 나는 밭일은 안하고 모시만 짜다 이렇게 늙었시유. 주인 양반이 농사짓고 나는 풀도 맬 줄 몰라유. 그래서 돌아가신 바깥 양반이 오죽하면 호미자루 안 들어본 사람은 나라고 했겠슈. 호미자루도 안 들어보고 풀을 맬지 않아 요령도 모르고 그냥 모시만 짤고 들일도 몰라유.”라 한다. (문정옥 대담)

81) 아들 셋, 딸 둘을 두었다.(문정옥 대담)

려주지 못한 아쉬움을 남겨두고 있었다.

요즘 들어 자신의 한평생이 ‘모시 짜기로 일관한 인생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이들을 그나마 가르칠 수 있었던 것도 “한산 모시짜기” 기능보유자로 인정되면서 국가에서 준 보조금<sup>82)</sup>과 학비를 대기 위해 정신없이 짜서 팔았던 모시 덕분이 아닌가 하는 깨달음 때문이다. 그 당시 보유자가 짠 모시는 짜기만 하면 5일장에 내다 팔거나 구매자들이 직접 와서 사가거나 했던 까닭에 지금은 남아 있는 것이 없고, 단지 한산 모시축제 때마다 입고 나가는 세모시 적삼이 하나 있다. 그 외에는 한국문화재보호협회에서 주관했던 <전승공예대전>에 출품했던 작품 몇 점이 어딘가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뿐이다.

10여년 전 겨울 얼음판에 미끄러져서 허리를 다친 이후로 모시를 짜지는 못하지만 짜기, 삼기, 매기 등을 하였는데 한 4~5년 전부터 혈압과 오십견으로 그마저도 못하고 있다. 그러나 수 십년간 손에 익혀 온 작업인지라 지금이라도 몸이 아프지 않으면 언제라도 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보유자가 “한산 모시짜기”를 위해 무엇보다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후계자인 방연옥씨가 자신의 뒤를 이어 2000년 8월 제2대 보유자가 된 것이다. 방연옥씨는 보유자가 한산면 지현리에 거주하면서 모시 짜기를 전수한 첫 번째 제자다.<sup>83)</sup> 다른 사람에 비해 모시 짜기 전과정을 쉽게 배우더니 제2대 보유자

<sup>82)</sup> 보유자의 기억에 의하면 처음 인정받고 나서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월 15,000원의 보조금을 받았다고 한다. 당시로서는 큰 금액이었는데, 주로 자녀 학비와 가용(家用)으로 썼다고 한다.(문정옥 대답)

<sup>83)</sup> “방연옥이가 첫 제자여유. 내 나이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유. 얼마 지나니 후계자하랴 하대유[방연옥은 1980년 전수장학생에 등재된다. 보유자 나이 53세경]. 한 십 몇 년 했는디 후계자 되었을가유. 나는 그전에 한 것은 다 모르겠대유. 기억력이 없어서... 제고, 삼고 그러는 거 알려주었지유. 시골은 다 눈으로 보면 하게 마련이어유. 눈으로 남들하는 거 보면 아니께. 그러니 가르치기가 쉽지.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은 가르치기 쉽지. 그 다음에 박승월, 고영애[고분자의 오류를 가르쳤지. 와서 하는 것보고 배웠겠지. 눈으로 보고 하지 일부러 가르치지지는 않았슈.” (문정옥 대답)



사진 33. 전수교육을 하고 있는 문정옥 보유자

가 되었다. 방연옥 다음으로 현재 전수교육 조교인 박승월, 고분자 등을 가르쳤다. 이들 모두가 지현리에 거주하고 있어 보유자가 화양면에서 한산면으로 이주한 이래 한산면 지현리가 “한산 모시짜기” 전승의 메카가 되었다.

전수교육은 제2대 보유자 방연옥씨 위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 가끔씩 한산모시전수관에 나가 둘러보곤 한다. 방연옥씨는 보유자로부터 예전 방식 그대로 잘 배웠기 때문에 전통방식대로 잘 가르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향후 후계자의 문제에 있어서는 걱정되는 바가 없지 않다. 마을마다 젊은 사람들은 모두 대도시로 나가 전승할 만한 사람들이 없고, 또 있

다고 해도 모시 짜기가 어려워 쉽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서천군에서는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한산 모시짜기” 외에 충청남도 지정 무형문화재 “한산 세모시짜기”에 보다 많은 지원을 하는 것 같아 서운한 점도 없지 않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모시 짜기에 관심이 많은 젊은이들이 그 기능을 열심히 이어나가기를 바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 열심히 기능을 연마해 나가는 현 후계자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바라는 마음이다.

#### 〈보유자 경력〉

- 1928. 9 서천군 화양면 출생
- 1948. 김기태와 혼인
- 1966. 문화재관리국 조사
- 1967. 1 한산모시짜기 보유자 인정

## 2. 보유자 방연옥



사진 34. 방연옥 보유자

중요무형문화재 제14호 한산모시짜기 보유자 방연옥(方連玉)은 1947년 12월 16일<sup>84)</sup> 충남 서천군 기산면 가공리 36번지 웅근절 마을에서 부친 방자순과 모친 박수영의 2남 6녀 중 막내딸로 태어났다.

당시는 아무리 부자집이라 하더라도 여자아이들은 초등학교에도 보내지 않았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이들만큼은 잘 가르치라는 할머니의 당부 말씀이 있어서 다행

스럼게도 학교를 다닐 수 있었다. 학교에 들어가기 전 이미 한글과 주산 등을 다 배워서 공부에는 흥미가 없었으나 육상만큼은 워낙 뛰어나 출전한 대회마다 상을 타오곤 하였다. 그 후 학교 담임 선생님이 키가 크고 육상을 잘 하니 육상부가 있는 중학교로 진학시켜 주겠다고 하였으나 모시를 짜고 싶은 욕심에 14살 경 학교를 그만두고 모시를 하게 되었다. 아마도 그때 육상 쪽으로 나섰더라면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여 출세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84)** 실제 태어난 해는 1945년이다. 태어날 때 허약하고 어머니의 젖도 없고 하여 생사여부를 장담할 수 없어서 부모님께서 2년 늦은 1947년에 출생신고를 하셨다. (방연옥 대담, 2003. 9.26, 한산면 자택)

보유자가 처음 모시 짜기를 접한 것은 친정 어머니를 통해서였다. 어머니는 화양면 와초리 출신으로 주로 가는 모시(세모시)를 짚었다. 어머니는 환갑이 넘어서까지 모시 짜기를 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보유자가 모시 짜기를 배우려고 할 때마다 ‘너는 다른 거로 해먹고 살아라. 내가 뭐할라고 너한테 인제사 모시 짜기를 가르치냐? 모시 짜기는 정말 힘들다’고 하시며 못 배우게 하셨다. 그러나 모시 짜기를 하는 어머니 등에 업혀 자란 보유자는 자연스레 모시 짜기를 접할 수밖에 없었다. 늦둥이 막내로 자라 6살이 되어서도 젖을 떼지 못하고 항시 어머니에게 업혀 있었는데 그 덕분에 모시를 짜는 어머니에게 바디구멍에서 빠진 올을 찾아내어 끼워 드리곤 하였다. 그 광경을 본 동네 할머니들이 ‘애가 젖을 먹지 말던가, 아니면 그런 것을 하지 말던가’ 하시며 담뱃대로 머리를 톡톡 치곤 하셨다. 이렇듯 어머니 젖을 먹으며 어깨너머로 보아 왔기 때문에 6살 때부터는 바디 꿰기를 할 정도로 모시 짜기에 익숙해져 있었다. 이후 어머니께서는 재미가 있었던지 바디를 ‘여기 끼워라, 저기 끼워라’ 하시며 모시 짜는 법을 옛날 이야기처럼 들려주시곤 하셨다.

어머니께서 학교에 가라고 책보를 싸 주시면 학교에 가서도 어머니와 언니가 모시를 매고, 짜는 모습이 눈에 선하여 학교 수업이 끝나자마자 바로 집으로 돌아와서 조금씩 도왔다. 어머니와 언니는 모시장이 서는 때를 맞추어 모시를 장에 내다 팔아야 했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모시를 짰다. 어머니가 모시를 나는 것을 보고 배워서 그 다음부터는 학교 가기 전 새벽 이슬이 촉촉할 때 모시 1필을 날아놓고 가면 언니는 바디를 써 놓고, 그 다음날이면 어머니는 아침 식전에 불을 피워 모시를 매었다. 그리고 나면 어머니와 언니가 짜서 장날마다 모시를 내었다. 어머니가 모시를 맬 때면 등교 하기 전 짬을내어 도와드렸는데 보유자가 모시 나는 것



을 본동네 할머니들이 ‘우리네 손녀들은 못 하는 것을 잘도 하네’ 하시며 칭찬하실 정도로 어린 나이에 모시 일이 손에 익었었다. 학교에 다녀와서도 숙제보다 모시 일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는데, 사실 한창 모시에 재미를 붙였을 때에는 학교 가셔도 공부하는 것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 모시 하는 것만 생각났었다. 그래서인지 훗날 문정옥 선생님께 모시 짜기를 전수 받을 때 이미 어머니한테 배운 바가 있어 보다 쉽게 터득할 수 있었지 않았나 싶다.

혼인하기 전인 23~24살 경 (1968년) 웅근절에서는 한 집, 두 집 모시 짜기를 그만두고 가마니 치기로 부업을 전환했는데 어머니는 워낙 성격이 깔끔하셔서 가마니 치기가 지저분하다며 손도 대지 않으셨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에서 모시 짜는 집이 4~5집 밖에 남지 않았다.

보유자 나이 29살 때(1973년) 한산면 지현리에 사는 이소직(李昭植, 당시 32세)과 혼인하였다. 친정어머니가 어디선가 혼인 말이 나오면 집안 내력을 따지고, 맏며느리인가 아닌가를 따지고, 홀어머니 아들인가 아닌가를 따지고 하다보니 혼인이 늦어졌다. 또, 보유자도 친구들을 따라 상경하여 출세 좀 해볼까 했으나 부모님들이 애통해 하셔서 고향을 떠나지 못하였고, 그러다 보니 시집갈 생각도 없었던 터라 혼인은 더욱 늦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친정어머니께서 현재의 남편을 보시더니 맘에 드신다고 하여 전격적으로 혼인하게 되었다.

남편은 큰 형님이 심어 놓은 밤나무를 관리하였다. 지금은 밤나무가 많이 죽어 얼마 남지 않았으나 그 당시에는 30여명의 일꾼을 부려야 겨우 밤을 수확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밤 값이 워낙 싸서 인건비도 안 나올 정도였

다. 아이들 키우기에는 빠듯한 형편이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문정옥 선생님을 만나 모시 짜기를 배우게 되었다. 원래 시댁은 아랫동네인 구동리에 있었는데 얼마 후 이곳 지현리로 이사를 왔다. 지현리에 살면서 한산장을 오가다 보니 문정옥 선생님이 덕 뒷채에서 모시를 펴놓고 혼자 매는 것을 보고 도와드리게 되었다. 그 후 짬이 날 때마다 문정옥 선생님 댁에 들러 도와드리던 중 문정옥 선생님이 '모시짜는 법을 일러주면 배울 수 있겠느냐'고 하시며 배우기를 권유해 막 내 광규<sup>85)</sup>가 3살 되던 1980년경부터 본격적으로 모시 짜기를 배웠다.

지현리에서 모시 짜는 사람은 문정옥 선생님과 몇몇 뿐이었고 동네 아낙네들 대부분은 산으로 나무하러 다니거나 남의 집일을 하러 다녔다. 그래서 지현리에는 문정옥 선생님 이외에 모시를 짜던 사람이 없었다. 문정옥 선생님 댁으로 모시짜는 법을 배우러 다니면서 선생님께서 식사를 하시거나 하여 틈이 나면 베틀에 올라도 보고, 말코도 차보고 하였다. 그 후 모시 짜기에 자신이 붙으면서 친정에 가서 어머니가 쓰시던 베틀을 가져왔다. 1980년 겨우내 짜고, 삼고, 해서 1981년도 3월에 짜서 완성하였다. 생애 최초로 짠 모시 4필은 약 12만원을 받고 팔았다. 그 당시 쌀값으로 산정해 보면 쌀 2가마니 분으로 꽤 큰 금액이었다. 모시를 판 돈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생활비로써 가정경제의 보탬이 되기도 하였다. 다른 사람보다 쉽게 모시짜기를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시집오기 전까지 어머니와 언니가 모시짜는 것을 곁에서 도와 왔던 까닭에 모시를 짜고 삼고 매는 요령을 터득했기<sup>86)</sup>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 생각한다.

85) 자식은 2남1녀를 두었다. 장남은 공군 중사로 재직 중이고, 장녀는 간호조무사, 차남은 중장비 기사로 근무 중이다. (방연옥 대담)

86) "예를 들면 발도 이렇게 땅길 때는 버텨야 하고 발을 놓을 때는 허리를 좀 숙여야 잘 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아니 문선생님이 쉽게 배운다고 하시더라고요." (방연옥 대담)

웅근절 친정 마을에서는 집집마다 각기 소용될 만큼 모시를 심어서 사용하였으나 지현리에서는 모시는 재배하지 않고 장날 모시굿을 구입해다가 썼다. 모시 재배는 오랜 시간과 노동력이 투입되어야 했기에 모시굿을 활용하였던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모시굿이 굶던 가늘던 상관하지 않고 매끄럽게 잘 삼아진 것으로 모시를 잤다. 모시굿을 구입할 때면 ‘몇 새 들어가서 얼마가 남겠다’고 속으로 계산을 하고 샀다.

짜여놓은 모시를 삼을 적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의 침이다. 켜 모시를 삼아 사려놓은 모시를 보면 아직 삼지 않은 모시와 비교해 볼 때 훨씬 매끄러운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는 다른 어떤 첨가물 없이 단지 사람의 침으로만 서로 이어 뉘음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 훨씬 매끄러워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삼아놓은 모시굿은 가늘수록 비쌌다. 예전에는 가는 모시굿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지금 젊은 사람들은 들어가는 노동력에 비해 경제성이 없다고 하여 삼지 않아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

모시와 매우 연관깊은 재료 중 하나가 쌀겨이다. 모시를 땀 왕겉불을 피울 때 사용하기도 하고, 모시를 날 때 모시굿 위에 쌀겨를 올려놓아 약간의 무게감으로 눌러 주면 모시굿이 흩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고운 입자로 인해 모시올이 잘 풀려서 모시를 나는데 매우 용이하였다. 쌀겨는 모시굿의 올 보다 곱고 또 무거워 많이 썼을 것이다. 쌀겨를 쓰게 된 것은 곳곳에 방앗간이 생기면서 쌀겨를 쉽게 얻을 수 있었던 까닭이다. 돌아가신 친정어머니가 세저를 하시던 약 70~80여년 전에는 쌀겨 대신 큰 냇가에서 고운 모래를 채취해서 썼었다고 했다.<sup>87)</sup>

87) “친정어머니는 화양면 와초리에 사셨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방앗간에 흔한 것도 아니고 해서 날기할 때 쌀겨 보다는 가는 모래를 썼대유. 어머니 어릴 적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할아버님하고 사셨는데 동네가 갯가라 모래를 구할 수 없어 집에서 한 시오리 떨어져 있는 대아리 다리 밑 냇가에서 고운 모래를 구하셨대유. 모래를 얼래미체와 같은 용도이나 구멍이 큰 것, 주로 수수 등 굵은 알곡을 내릴 때 사용함)에 쳐서 곱게 만든 후에 날기할 때 사용하셨대유. 그때는 지금 마냥 쌀겨가 흔할 때가 아니어서... 어머니 살아계심 한 103세 넘으실 거니까 쌀겨 보다는 고운 모래를 쓴 거이 더 오래되지 않았을까유?” (방연옥 대담)

주로 중저, 상저를 짰다. 중저, 상저를 짜던 사람은 그것만 짜야 하고, 막저를 짜던 사람은 또, 막저만 짜야 했다. 가는 모시를 짜다가 굵은 모시를 짜면 훨씬 많은 힘이 들어가 노동이 고되었기 때문인데 가는 모시는 바디를 살살 치더라도 바로 배겨 나는데 굵은 것은 힘을 들여 톱툭 쳐 주어야 배겨 나기 때문이다.

친정 어머니때에는 세모시를 짰었지만 지금은 세모시를 짜지 않는다. 전통 베틀에서 개량 베틀로 바뀌면서 세모시를 짤 수 있는 바디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모시 바디는 광이 짧기 때문에 지금의 개량 베틀과 맞지 않는다.<sup>88)</sup>

모시는 굵게 짤수록 재료인 모시가 많이 필요하다. 세저의 경우에는 모시쪽수를 많이 짜야 하기 때문에 한 올당 필요한 모시는 적다. 그러나 세저를 짜기 위해서는 태모시를 가늘게 짜서 가는 모시곳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과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짜고 삼는 사람들은 대부분 60대고 그 이하는 기술이 없어 가늘게 짜지 못하고, 그런 까닭에 가는 모시곳의 생산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모시를 재배하거나 모시곳을 사서 날고 매어 모시를 짜기도 하지만 샛모시<sup>89)</sup>도 짰었다. 샛모시를 맡기려는 사람들은 모시 삼기 등은 하지만 모시

---

<sup>88)</sup> “옛날 것이 광이 넓다고 하는데 지금 것이 더 넓어. 예전에 보면 애들 여운다고 일부러 한 필에서 몇 치 더 넓게 해서 짠 것 있는데 그것도 지금 것하고 대 보면 옛날 것이 3~5cm 정도 더 작더라고. 엄청 좁지 50년 전 모시라냐? 가서 보니 엄청 작어. 바디도 옛날 것을 보니 한 뼘 밖에 안 되겠더라고. 옛날에는 그게 정상이래. 나무바디가 촘촘하니 좁고, 쇠바디는 촘촘치 않으니 광이 넓지. 바디 크기로 채서는 안 되며, 예전 열새 바디가 조그마하고 지금 쇠바디는 커. 그리고 좁으면 상품성이 없으니 광을 넓게 할 수 밖에 그래서 30cm 정도 해야 지금 현재 사람들의 몸치에도 맞지.” (항연옥 대담)

<sup>89)</sup> ‘샛베짖다’라고도 한다.

짜기를 하지 못해 짜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다. 대개 모시를 맡기려는 사람이 베가침까지 하고, 바디를 써서 가져오면 짜는 사람은 모시를 매어서 찼다. 모시를 직접 짜서 팔 경우 10만원(당시에는 보통 쌀 1말값, 보리쌀 1말값 정도 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이라고 하면 샀은 약 2할 정도 받았다.

모시를 잘 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다 짠 모시를 잘 개는 것이다. 전체 길이 36자 정도의 모시를 처음과 마지막을 맞잡아 3자(90cm) 조금 못 되게 접어 꺾고 나서 반을 접어나간다. 모시짜는 사람은 요령있게 개야 하는데 나중에 길이가 모자라면 값을 잘 받을 수가 없다.

개량 베틀을 접하게 된 것은 1980년대 중반경이다. 지현리에서는 문정옥 선생님과 보유자만 전통 베틀로 모시를 짜고 있었는데 어느 곳에서 살다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모시짜는 사람이라며 이사를 왔다. 바로 그 사람이 개량 베틀<sup>90)</sup>, 즉 지금 주로 사용하는 베틀을 가지고 들어와서 동네 사람들에게 모시짜는 법을 가르쳤다. 그 당시에는 모시금이 매우 좋아서 동네 사람들이 너도나도 배워 약 10여명이 개량 베틀로 모시를 찼다. 그러나 보유자는 문정옥 선생님의 당부 때문에 전통 베틀로만 모시를 찼다. 전통 베틀로 모시 1필을 짜려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약 3일이 소요되는데 개량 베틀은 하루 반나절이면 찼다. 다만, 동네 사람들 중에 날기, 매기 등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문정옥 선생님<sup>91)</sup>이 이 과정을 도맡아 하셨다. 개량 베틀의 매기는 너무나 쉬웠다. 전통 베틀의 경우에는 도투마리에 뱀뎡이를 끼서 돌릴 때마다 사람이 일어나서 도투마리를 옮겨주어야 하는데 개

90) “그 개량 모시틀이 뭐냐면 일본 기모노에서 배에 차는 것[おび] 짜던 기계여. 그게 일본에서 망하자 그걸 가져다가 짠 거지. 가격은 한 20만원 했던가?” (방연옥 대담시 부군 이소직의 제보)

91) “1984~1985년도 경으로 기억하는데, 보통 한 나절에 2~3필을 매셨다.” (방연옥 대담)

량 베틀의 경우에는 앉아서 도투마리를 돌려주면 되었다.

전통 베틀로 모시를 짜면 날고 매고 하여 근 1주일이 소요되는데 비해 개량 베틀은 쉽게 매어 쉽게 짤 수 있었고, 게다가 판로도 좋아 살림살이에 많은 보탬이 되었다. 그러나 항시 전통 베틀로 짜는 것을 엄두에 두고 있는데, 이것은 자신이 전통을 잇는 사람으로서 그 도리를 다 하는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1981년 이후에는 30 필 정도 밖에 짜지 못했다. 8월부터 10월까지지는 밤나무를 돌볼 일꾼들을 사서 일을 해야 하니 모시 짜는 일을 못 하고 다만, 11~12월에 모시를 삼아 두었다가 봄(3월달)부터 짜서 팔았다. 개량 베틀로 짜기 시작한 것은 한산모시 전수관이 건립된 후 전수활동을 하면서 부터이니 약 10여년 정도 되었다. 그때 모시관에서 모시를 짜는 사람 모두에게 개량 베틀을 사주었다. 예전에는 겨울 추위 때문에 매지 못하였으나 비닐하우스가 일반화되면서 겨울에도 모시를 맬 수 있게 되면서 비닐하우스에서 매고, 모시관에 가서 짜면서 1년에 생산하는 모시의 필수가 늘게 되었다.

1981년경의 세모시 가격은 약 35,000~40,000원, 9승 5모 정도는 25,000원, 7승 5~6모하는 막저는 20,000원 정도의 가격대가 형성되었는데 그때만 하여도 인건비에 비해 모시금이 좋았다. 개량 베틀은 9승 2~3모까지 짤 수 있으나 예전의 나무바디를 이용한 것 보다는 새수가 낮았다. 그러나 투입된 노동력으로 계산해 보면 개량 베틀이 훨씬 더 경제적이었다. 그래서 1990년대 들어서면서 개량 베틀을 선호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졌다. 그때 개량 베틀로 모시를 짜서 아이들도 가르치고 땅도 사고 하여 부자가 된 사람들이 제법 있었다. 그러나 중국산 모시가 수입되면서 한산



모시의 시세가 떨어져 갔고 그 영향으로 예전에는 8~9집이 짚었으나 지금은 외부로 아르바이트일을 다니고 모시는 짜지 않고 있다.

현재 생모시와 표백한 모시 모두를 생산하고 있다. 생모시 9승 5모를 짜면 50~60만원 정도 하고, 8승 2모를 짜면 40~45만원 정도 받는다. 중간 상인들이 한산장에 많이 들어와 주어야 매매가 활발해지는데 요사이에는 모시를 구매하려는 상인들도 별로 없어 모시값이 좋지 않다. 개량베틀은 잘 짜면 약 40~45필 정도의 생모시를 생산한다. 생모시는 필요할 때마다 기산면 구북리에 있는 개인 표백소에 맡겨 처리하고 있다. 요새는 크로드칼기를 이용해 화학적인 방법으로 표백하는데 예전에 웅근절 마을에서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표백했다. 통나무로 걸개를 만들어 가마솥을 건 뒤 모시를 넣고 밤새 불을 때어 삶은 뒤 솥에 와서 빨았다. 그 다음 모시에 풀을 먹여 자연 그대로의 별판에 손으로 늘어놓고 집게로 꼭꼭 눌러 말리면서 탈색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보유자는 문정옥 선생님한테 모시짜기를 배우면서 모시짜기 전과정을 습득하게 되었다. 그래서 1980년 8월 1일 전수장학생이 되었고, 1986년 2월 28일에 이수자가, 1987년 7월 1일에는 전수교육조교가 되었다가 1991년 5월 1일에는 보유자 후보가 된 뒤, 2000년 8월 22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중요무형문화재 제14호 한산 모시짜기의 보유자 인증서를 받았다. 문정옥 선생님의 후계자로 선정된 후 약 23년째 되던 해였다. 결국 친정어머니한테 모시 짜기, 삼기, 날기를 배우고, 문정옥 선생님께 매기, 짜기를 배웠으니 지금 생각하면 어머니와 문정옥 선생님 두 분 모두가 모시 짜기 보유자가 되도록 도와주신 스승이라 생각한다.

제1대 보유자이신 문정옥 선생님과 후계자들 모두 한산면 지현리에 살고 있다. 그래서 이수자나 전수장학생들도 거의 지현리에 거주하고 있다. 문정옥 선생님은 요사이 건강이 나



사진 36. 보유자 문정옥과 방연옥

빠지시면서 직접 실연은 못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알려주면 보유자가 실연하며 가르치고 있다. 특히 모시 짜기와 삼기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마을회관이나 보유자 집에 모이도록 하여 전수교육을 하고, 날기와 매기는 보유자가 적당한 날을 잡아 시연을 해 보이면 보고 배운다. 매기를 할 때는 무엇보다 날씨가 유념해야 하는데 날씨가 건조하면 매기가 쉽지 아니하므로 보통 날씨가 부드러울 때 즉, 습도와 온도가 적정할 때 한다.

보유자가 되기 전까지는 배워야겠다는 것만 생각하여 열심히 배우기만 하면 되었는데 보유자가 된 지금은 어떻게 후계자들을 잘 가르치고 알려줄까 하는 것이 제일 큰 걱정거리이다. 무엇보다 자꾸 후계자를 신청하라고 하는데, 50세가 넘는 분들은 잘 하는 분이 많지만 관에서는 약 18~35세 정도 되는 젊은 사람을 뽑으라고 하니 적당한 사람이 없는 실정이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배워야 하는데 모시 짜는 일이 워낙 고되기 때문에 배우려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모시짜는 사람들 중에서도 전통 베틀로 짤 줄 아는 사람을 많이 키워내

야 한다. 요즈음 화양면이나 한산면에 모시를 짜는 사람 대부분이 개량 베틀을 이용하고 있다. 보유자가 제일 늦게까지 전통 베틀로 모시를 짰던 사람이다. 후계자들에게도 항상 전통 베틀을 옆에 놓고 친숙하게 지낼 것과 보유자가 전수교육을 할 수 있을 때 전통 베틀을 이용해 짜는 방법을 배우라고 일깨우고 있다. 그렇게 한달에 두 번씩(첫째주, 마지막주) 전수교육을 한 결과 현재 후계자들도 모두 전통 베틀로 짜는 방법을 습득하여 알고 있다.

보유자는 후계자들과 돈독한 유대관계를 갖기 위해 매달 정기적인 친목 모임도 갖고 있다. 서로 서로 애정사가 있을 때 동참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음식도 나누고 하는데 벌써 2년 정도 되었다.

보유자가 한산모시짜기 보유자로 인정되기까지 가족들이 많은 도움을 주었다. 특히 딸(이혜랑)은 고등학교 때부터 꾸리를 감아주곤 하다가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면서는 바디 쓰는 것까지 했다. 보유자가 눈이 어두워져 돋보기를 쓰고도 바디를 꿰는데 어려워 하니까 딸이 애가 타서 해주곤 했다. 또 보유자가 잠깐 베틀을 비우면 그 사이 모시를 짜 놓곤 했다. 그때가 딸아이 20~21살 때였다. 젊은 사람들이 힘들고 인건비가 나오지 아니하여 배우려고 하지 않는데 딸은 할 수 있는 여건만 되면 하고 싶다고 하므로 보유자도 후계자로 기르고 싶은 심정이다. 딸은 이미 꾸리감기, 모시 짚기, 삼기, 날기, 바디 쓰기, 짜기 등을 할 수 있어 한산모시짜기 전과정을 쉽게 전수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보유자의 작품이 본격적으로 「전승공예대전」등에 출품된 것은 모시 짜기를 시작한 지 3년 정도 경과된 후였다. 1982년 제7회 전승공예대전에



사진 36. 고등학교학생들에게 모시짜기를 가르치고 있는 방연옥 보유자

첫 작품을 출품하여 입선을 했다. 그 후 계속 작품들을 출품하여 2001년에는 청주시 주최 공예대전에, 2002년에는 제주도 주최 전승공예대전, 2003년에는 제33회 전국공예품대전에 출품하였다.



사진 37. 한산모시짜기 교육조교 및 이수자들

보유자는 제1대 보유자 문정옥 선생님이 하신 뒤를 이어 한산 모시짜기를 알리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고, 후계자들에게도 전수교육을 열심히 시켜 한산 모시짜기의 맥이 지

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다짐한다.

〈보유자 경력〉

- 1947. 7     서천군 기산면 출생
- 1955. 3     월기초등학교 입학
- 1973. 5     이소직과 혼인
- 1980. 9     한산모시짜기 전수장학생 선정
- 1986. 2     한산모시짜기 이수자 선정
- 1987. 7     한산모시짜기 전수교육조교 선정
- 1991. 5     한산모시짜기 보유자후보 선정
- 2000. 8     한산모시짜기 보유자 인정

## 한산모시짜기 전승계보도<sup>92)</sup>

가족 전승(모친)

보유자

(2003. 12월 현재)



92) 전수교육조교 박승월(51. 10. 25생), 2000. 8. 22 인정  
 전수교육조교 고분자(55. 8. 3생), 2000. 8. 22 인정  
 이수자 강옥란(56. 1. 26생), 1997. 6. 30 인정  
 이수자 정순진(56. 6. 5생), 1997. 6. 30 인정  
 이수자 황선희(58. 9. 14생), 2003. 9. 1 인정  
 이수자 이현주(66. 8. 30생), 2003. 9. 1 인정  
 전수장학생 이혜랑(75. 8. 7생), 2003. 9. 1 인정



## ▶ 참고문헌

## 〈사료〉

『三國史記』

『宣和奉使高麗圖經』

『雅言覺非』

『朝鮮王朝實錄』

『中國正史朝鮮傳』

『鷄林類事』

『與猶堂全書』

『高麗史』

『高麗圖經』

『高麗史節要』

『老乞大諺解』

『擇里志』

『朝鮮女俗考』

『鉢伊內布』

『萬機腰覽』

『東國文獻備考』

『金華耕讀記』

『林園十六志』

## 〈도록〉

國立民俗轉物館, 『문익점과 무명문화』, 1991

안동 삼베

〈단행본〉

- 宋應星, 『天工開物』, 傳統文化社, 1997  
장경희, 『명주짜기』, 화산문화, 1994  
趙孝須, 『韓國服飾風俗史研究』, 一志社, 1988

〈논문·보고서〉

- 서천군농촌지도소, 『저마재배 전문기술교본』, 1991  
서천군농촌지도소, 『저마재배』, 1994  
서천군농촌지도소, 『저마의 번식법 및 화학섬유와의 혼방염색 개발연구』,  
충청남도농촌진흥원, 1994  
충남발전연구원 『한산모시의 상품개발과 사업화 연구계획-모시제조·제품·  
관광상품 개발-』, 서천군, 2001  
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第十九冊)(衣生活篇)』,  
文化財研究所 藝能民俗研究室, 1986  
북천고분관, 『한국고대 국가의 형성』, 부산광역시, 1998, p. 153  
고부자, 『大田民俗誌(下)』大田光域市史編纂委員會, 대문사, 1998.  
권영숙, 『고대 복식과 직물』, 강좌 한국고대사 제6권(재)가락국사적개발  
연구원, 2002, p. 361~427  
권영숙외 2인, 『海印寺 毘盧遮那佛 腹藏 服飾과 高麗後期 衣服의 特性』,  
성보문화재연구원 성보학술총서 1, 1997  
민길자, 『우리나라 古代織物』, 한양대 한국생활과학연구소 논문집2호,  
1984  
민길자, 『한국 전통 직물의 역사와 종류』,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복식 2천년』,  
1995

- 민길자 · 심연옥, 『중국 동북지역에서 출토된 고조선, 부여, 고구려시대의 식물 연구』, 한국복식학회 복식 제22권, p. 66~68
- 민길자 · 이순미, 『우리나라 織物製織技術에 對한 研究(Ⅰ)』, 한국의류산업학회 한국의류학회지 제8권 2호, 1984
- 朴明洵, 「韓山모시의 特化戰略에 關한 研究 - 舒川郡 住民所得 向上을 中心으로-」, 1986 『저마 재배전문기술교본』, 서천군농촌지도소, 1991
- 박운미, 『伽倻와 古墳時代의 麻織物의 비교 연구』, 아시아민족조형학회 국제학술회의집, 2003, p. 59
- 石宙善, 『韓山모시, 無形文化財 調査報告書 第二十號』, 1966. 8
- 손명중 · 조희승, 『조선수공업사』, 공업종합출판사, 1990
- 呂和妍, 「韓山芻包的 染色 및 組織改良에 關한 研究」,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 1991
- 이순미, 『우리나라 인피 섬유직물에 관한 문헌적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3
- 장현주, 『조선시대 교직물 연구』, 한국복식학회 복식 제52권 5호, 2002
- 韓相億, 「韓山芻布에 關한 地理學的 研究」,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 홍희유, 『조선상업사』, 과학백과사전 종합출판사, 1989

##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14

# Hansanmosijjagi

### (Ramie cloth weaving of Hansan)

This recording book is the report, which is published in link of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original form of recording and preservation.

Hansan weaving ramie fabric is the artisanal technique that transmitt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in Hansan-myeon, Seocheon-gun, Chungcheongnam-do area. Hansan ramie cloth, a traditional summer clothing symbolizing the nation's beauty, was designated as an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asset with an aim to preserve the technologies since 1967. Hansan ramie fabric has higher quality than those made in other regions. The delicate and decent fabric has become synonymous with ramie cloth. Its production proceeds in an order of cultivation and harvest, knitted ramie making, lancing, spinning, knotting, weaving, and decolorization.

This recording book records Hansanmosijjagi's origin and production process and the holder's present situation etc. in detail.